朝鮮日報
夕刊
二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歐洲新平和機構로 相互不侵略條約提案

相當한期間內에植民地問題解決期待

獨政府의對英回答內容

【倫敦一日發同盟】립벤트로프特使는 一日午前 이든外相을 訪問하고 獨逸政府의 回答을 正式으로 手交하엿는대 그內容은 三部二十七項目으로 되엿다 三部題目은 如左하다

第一部 係爭問題에對한 法律的檢討와 對策

第二部 平和的基礎에 基하야 歐洲의 再組織案

第三部 軍備制限과 戰爭手段의 制限에關한 一般會議召集案

獨逸政府는 右三部門下에 『非武裝地帶設置에 對한 拒否』『四個月休戰期間의 制限』及 『期限二十五年의 不可侵條約締結』『獨逸의 聯盟復歸』等 二十七項目을 擧하야 順次 說明을 加하엿는대 各項目의 骨子는 如左하다

第一部

係爭問題에 對한 法律的檢討와 對策

一、獨逸政府의 法律的見解에 依하면 公約을 毁棄한것은 오히려 佛國이다 佛國政府는 一九一九年條約 特히 윌슨十四原則에 違反되고 또 佛蘇相互援助條約의 締結로 로카르노條約을 毁棄하얏다 獨逸國防軍의 라인란드進駐는 新事態에 關하는 當然한 措置일뿐아니라 참으로 獨立主權의 範圍에서 行動하고 잇는데 不過하다

一、따라서 獨逸政府는 로카르노 協定案提示事項 特히 西部國境線二十키로에 非武裝地帶를 設定하고 國際警備軍을 配備함과 如한것은 獨逸主權을 毁損하는 提案에 不外하다 獨逸政府는 斷乎 排擊치 안흘수업다

一、但 佛白兩國政府의 立場을 考慮하야 四個月間의『精神的休戰』을 提唱하다 休戰期間內에 佛白兩國政府가 國境地帶에 增兵치안흘것을 公約하는 以上 獨逸政府에서도 增兵치 안흘것을 公約한다 또 關係各國政府는 平和機構案에 關하야 交涉을 開始할 必要가 잇다고 認定한다

一、獨逸政府는 라인國境地帶에 要塞를 構築치 안는다

一、休戰期間中 國境戰爭을 回避하기爲하야 國際三人委員會를 任命할것을 提議한다 委員會는 英佛兩國人과 英伊兩國人이 選定한 中立國各代表一名으로하야 佛白兩國領土와 獨逸國領土의 國境地帶를 監視케할것

一、獨逸政府는 歐洲의 平和機構確立을 期하기爲하야 歐洲의 不可侵條約과 軍縮事業達成을爲하야 一般會議를 召集할것을 提議한다

一、前項의 事業에 關하야 具體案이 成立된때에는 獨佛白三國政府는 國民投票를 實施하야 承認을 求할것을 提議한다

一、獨逸政府는 各國政府가 虛心交涉에 當하면 아마 四個月休戰期間內에『보다』平和的인 平和가 實現될수잇슬것을 確信하는데 右事業이 終結되지안흘 境遇에는 獨逸政府는 다시 休戰期間을 延長하는것을 不惜한다

一、新平和交涉期間은 卽時 佛國總選擧終了後 開始할것을 提言한다

一、獨逸政府는 또 聯盟規約을 베르사이유條約으로부터 分離할것을 要求하고 또 適當한 期間內에 植民地問題에 關하야 再調査를 行할것을 期待한다

一、以上의 新平和機構가 終局的으로 決定되어 實現된때에는 各協定條項의 忠實한 履行을 監視할 目的으로서 仲裁委員會를 設置할것을 提言한다

第二部

平和的基礎에 基한 歐洲平和機構再組織案

一、獨逸政府는 新平和機構案으로 去三月七日의 議會宣言中에 包含된 左의 諸點을 다시 提言한다

一、白耳義政府와 和蘭政府와의 사이에 英伊兩國의 保障을 條件으로 二十五個年에 亘한 不可侵條約을 締結할것

一、西部國境線에서 空軍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할것 東部國境에서는 墺太利、波蘭、체코슬로바키아、立陶宛 四國間에 不可侵條約을 締結할것

一、獨逸政府는 相當한 期間內에 植民地問題의 解決을 期待한다

一、關係各國은 以上의 諸提案을 應諾하면 獨逸政府는 國際聯盟에 復歸할 用意가잇다

第三部

軍備制限과 戰爭防止에 關한 一般會議召集案

一、最後로 獨逸政府는 軍縮事業達成을爲하야 一般的會議召集을 提議한다 同會議에서는 戰爭의 人道化를 期하기爲하야 以下의 方法으로 戰爭手段을 制限할것

가、戰地區域으로부터 十二哩以外의 地에잇는 都市는 爆擊치안흘것

나、重砲와 毒瓦斯及 重戰車等의 使用禁止 又는 統制를 加할것

다、非戰鬪員에關한 戰時國際法規를 嚴格히 遵守할것

一、以上 新平和機構案과 軍縮事業에 關하야 具體案이 成立된때에는 獨佛白三國政府는 國民投票를 實施하야 國民의 承認을 求할것을 提議한다

話題解說 산제르만條約

外電에依하면 墺太利政府는 徵兵制度를 採用하는同時에 산제르만條約을 公然히 廢棄하게되어 墺國正規軍은 一萬三千五百에서 增加되리라고 傳한다. 그러면 산·제르만條約이란 어떠한 條約인가?

◇ 世界大戰이 終了되매 聯合國과 同盟國側間에 講和會議를 開하야 平和條約을 締結하엿다함은 周知의 事實이나 이와 가티 平和條約이라하여도 實은 여러가지 條約이 包含되엇는데 그中 가장 重要한것이 (一)베르사이유條約 (二)산·제르만條約 (三)트리아논條約의 三者이다. 베르사이유條約은 聯合國側이 獨逸을 相對로 締結한것이오, 트리아논條約은 匈牙利를 相對로 締結한것이오, 산·제르만條約은 墺太利를 相對로 締結한것이다.

◇ 卽 산·제르만條約은 大戰後 一九一九年九月十日 산·제르만에서 墺太利와 聯合國代表가 會合하야 締結한 條約이니 이로서 墺太利는 匈牙利를 失하고 『보헤미아』를 체코슬로바키아에 『트렌티노』를 伊太利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스라보니아』『크로아치아』『달마치아』를 유고슬라비아에, 『가리치아』를 波蘭에 『부코비나』를 羅馬尼亞에 讓與하엿다. 그 外에 巨額의 賠償金을 負擔케하고 軍備를 極度로 制限하얏다. 例컨대 正規軍은 三萬을 超過함을 不許하는 規定이 되여잇다.

獨의平和提案 英은受諾할態度

【倫敦一日發同盟】一日립벤트로프特使가 手交한 히틀러獨逸總統의 平和提案에 對하야 英國政府當局은 最初 若干의 失望을 느낀모양이더니 다마遇告全體가 特히 和解的인 點을 取하야 今後의 折衝의 基礎로 受諾할態度를 明白히하엿다

英佛見解對立

獨逸의回答에對하야

【倫敦一日發同盟】政府는 獨逸政府의 回答을맛고 卽時 佛白伊三國에 對하야 이를 通牒하는 同時에 右에 對한 政府의 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協議를 거듭하고 잇는데 獨逸政府의 回答의 含意에 關하야 英佛兩國政府間에 對立을 生하고잇는것은 벌서 掩蔽치못할 事實이라고 보인다 一方 英國政府는 獨逸政府의 回答으로써 協定案의 全面的拒否라고보지안코 따라서 協定案을 拒否할 境遇에 行할 英佛伊白四國政府間의 折衝條項도 發動치 안는다는 見解를가지고잇서 佛國과는 全혀 對蹠的見解를 가지고잇다

英佛兩國의 見解는 如左하다

▲英國側의 見解

一、獨逸政府의 回答은 로카르노協定案의 全面的拒否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따라서 로카르노協定案中의 中間的保障條項은 그效力이 終熄되지안햇다

一、英國政府는 中間期間의 保障條項을 確保하고저 英佛伊三國參謀本部會談은 議題가 決定되는대로 卽時 協議할 用意가잇는데 獨逸政府가 로카르노協定을 破棄할 境遇에 發動할 相互援助條項 其他로카르노協定附屬議定書의 規定인 附屬條項은 아직 發動치안흘것으로 생각한다

▲佛國側의 見解

一、獨逸政府는 正式回答에서는 라인란드 非武裝條項 要塞構築問題에 全然言及치아니하다 로카르노 協定案中의 重要基本條項인 右條項에關하야 言及을 避한것은 이를拒否한것이라고 생각할밧게업다 佛國政府로서는 로카르노協定은 全然受諾되거나 拒否되거나의 둘밧게업다는 것을 聲明한 事實에 鑑하야 右獨逸政府의 態度는 로카르노協定案의 全面的拒否라고본다

一、따라서 佛國政府는 卽時 로카르노條約關係國인 英佛白伊四國共同戰線樹立에 着手하야 倫敦로카르노會議에서 成立된 協定에 基하야 相互援助協定에 關한 協議를 할것이라고 確信한다

一、獨逸政府는 假令 理論的이라고하더라도 一旦 條約侵犯國으로 宣告를 밧지안흐면안된다

一、獨逸政府가 如何히 美辭한 條約을 提案하더라도 獨逸政府가 提案한 如何한名目下에 歐洲幸福을 生할可能性은 잇슬수업다

一、墺太利政府는 드듸어 强制徵募法을 制定하야 明白히 산제르마條約을 侵犯하엿다 敵國(獨逸)에 對하야 許容할수잇는것을『墺太利』에 對하야 拒否할수는업다 如斯한 事態의 發生은 모다 獨逸政府今回의 行動에 基因하는것이다 獨逸政府는 將來에 起할 歐洲政局의 不安動搖에 對하야 重大責任을 負하지안흐면안된다 (寫眞은 英 佛外相)

戒嚴司令官更迭 後任은岩越中將

香椎中將引責待命

【東京電話電通】二、二六事件으로 戒嚴司令官兼務에 任命된 東京警備司令官兼東部防衛司令官香椎中將은 今回事變의 責任者로서 待命하게되엿고 後任으로 前第三師團長 岩越中將에 對하야 二日午前十時三十分 宮中鳳凰間에서 如左히 親補式을 行하엿다

東京警備司令官兼 東部防衛司令官 戒嚴司令官陸軍中將 香椎浩平
待命被仰付

陸軍中將 岩越恒一
參謀本部附被免 補東京警備司令官兼東部防衛司令官、戒嚴司令官

그리고 香椎中將에對하야는 責任者와 同時에 處分될터이엇스나 後任岩越中將入東關係로 本日까지 延期된것이다

時題小議

入學均等保障論 (下)

—迎合的廻避를排함—

(八) 安在鴻

自然의 言語가아닌 言語는 이를 學習하야 그意思疏通에 欠缺이업슬만치 熟達하기는 그다지 어렵지아니하되 一一天然에 맛도록 精美하게 하기에는 그血統 혹은 生長을 달니한 人民으로서는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일을테면 猶太人과가티 世界的分布生活을 許久한동안 겪거온 人民으로서도 獨系 英系의 猶太人은 그常住國의 邦語에 關하야 往往 그 獨特한 『사투리』的傾向을 가지게되는데서 이를 證할수잇다 日本의 語의 發音및 組織이 東洋人으로는 그共通類似가 만흠에 依하야 學習및使用이 容易하다고하고 朝鮮人에게 더욱그러하나 그自他共認되는 바이나 그 精徹詳密한 點에서는 역시 巍僻의 걱정을 免할수가 업다 電과 天이 그音을 分揀키 쉽지안코 (チ)ジ가 그 用語를 밧고는때 마치서 濁音의 存否와 緩急의 相異함이 그通常 읽고 씀에까지 큰支障업는듯이 自信하는者로서도 實은 一篇의 小文에도 一二혹二三의 錯誤가 잇슬수잇는것이니 그文意와 理論에서 아모 差違가 업스면서 이러한 缺點을 보이기는 대개 만흘것이다 그러나 考試하는者 이미 佛心이업고 도리어 偏見을 갓추어 무릇一二 濁音의 有無와 緩急의 差誤에 문득 抹殺 退選으로써 速斷하야 朝鮮의 青年子女들로 就學의 機會 일코 徒然히 돌아서게 하나니 이것으로써 그受驗者의 氏名을 考查할것까지도 업시 그錯誤應試者의 누구임은 明白看取되을 明斷할것이다 이와가티 昨年의 末에 實證하는

의 優秀를 품고서도 졸근히 落榜의 苦厄을 당하게 되나니 抑鬱치아니하냐? 朝鮮에 古參으로 머물러잇는者 오히려 所謂 高所大處에서 入學率의 均衡을 銓衡하거늘 新來한 少壯派로서는 도리어 速斷的인 斬伐을 可타하나니 그 進步的이라고 할수 잇는가? 事態가 이러하기로 朝鮮의 學父兄은 그子女들의 때문에 入學率均等의 要求및그 實徹을 要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그 意思疏通 眞理價値의 可能에 잇는것이오 그存否와 緩急의 細微한點은 오히려 第二義的問題인것이다

×

就學의길이 制限되은 就職의길이 制限될 再備인것이다 就學 就職이 아울러 制限되는것은 그生活및生存의 制限을 意味하는者이오 問題의 究竟은 여기에 歸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就學卽 入學率의 均等의 要求는 就職에잇서서도 均等이어야 할것을 必須한 前提로 하는것이다 朝鮮士 朝鮮人 二千百數十萬人의 大多數의 때문에 入學및 就職의 均等을 대개 天下에 不可라할입이 잇지아니할 것이다 入學에잇서 우선 制限이잇고 就職에가서도 다시 制限되고 就職한後에 까지가서 또 그待遇에 만흔 差別및壓迫이 잇는것이다 이것이 朝鮮에서 現下 當面하고잇는 問題의一部인것이다 이問題가 이미 逼切하고 그均等의 要求가 至極妥當하거든 이제運動을 顧慮하는것은 아니하랴?

◇訂正 昨日本文第一段 第十行『生存』의 마테『運動』二字를 補함

蘇聯軍撤退要望 不肯時엔膺懲不辭

不祥事頻發은蘇聯大軍國境線集中結果

陸軍中央部事態監視

【東京電話同盟】長嶺子事件에繼續하는 滿蘇滿蒙國境紛爭事件의 頻發은 그原因이 모다 蘇聯或은 外蒙側의 挑戰積極的態度에 잇는것이 明瞭하게되엇스므로 陸軍中央部도 事態를 重大視하고 現地의 詳細한 報告를 待望中인데 蘇聯側이 挑戰的態度로 나오는 主要한 理由는 滿洲事變以來 充實해온 極東軍의 增强 國境의 攻擊的軍備의 充實에 잇는것은 勿論이오 最近 發表된 蘇蒙相互援助條約締結에 依한 外蒙軍事基地의 强化가 對日滿積極的挑戰態度로 導하고잇는것은 看過키 難한바이다 滿蒙國境 우란方面의 三月二十九日、卅一日兩日에 亘한 不法爆擊은 蘇聯外蒙側의 挑戰的意思의 露骨的表現이라고 日本軍部로서도 언제까지나 事態를 이대로 放任키 어려움으로 至急히 對策을 講究할 必要가잇다고 爲先 紛爭挑發의 直接原因인 國境線의 不明確狀態의 改善、紛爭處理等에關하야 外交機關을 通하야 圓滿調整을 期하려는中인데 此等紛爭이 惹起하는 禍根은 蘇聯側의 挑戰的態度를 挑發하는 兵力의 過大한 集中에잇서서 이兵力을 國境線으로부터 撤退하는것이 極東平和上으로보아 絶對로 必要하다고 蘇聯側의 猛省을 希望하고잇다 그런데 蘇聯側이 日本側의 平和的態度에 對하야 何等反省하는 바을 보이지안코 依然 大軍을 國境線에 集中하여 紛爭挑發의 態度를 反復하고 滿洲國의 治安을 攪亂케함과 如한 行爲를 한다면 日本側으로서는 日滿共同防衛의 見地에서 斷乎히 이것을 膺懲하는것도 不得已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蘇聯側의 態度를 嚴重監視中이다 萬若 蘇聯側이 依然히 挑戰的不法態度를 고치지안는데 잇서서는 國境線의 空氣는 緊張을 不免할것으로 보인다

戰爭到來!

滿蒙國境紛爭을 米國軍部側注視

【華盛頓一日發電通】華盛頓軍部側에서는 滿蒙國境紛爭이 復讐的精神을 助長함을 指摘하야 新戰爭의 危險이 玆에 到來한다고 解釋하고 事態의 推移를 極注目하고잇다

伊匈兩國諒解下 條約廢棄斷行?

匈勃兩國트리아논條約破棄도在邇

歐洲政局多岐多端

【維也納一日發同盟通】墺太利政府가 一日突然强制徵兵制度의 採用을 發明하야 산제르만條約廢棄의 擧에나온것은 이미 過日羅馬에서는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議에서 슈슈닉墺太利首相으로부터 意圖를 表明하고 무솔리니伊首相 겜베스洪牙利首相의 諒解를 어든것으로 밋는다 그리고 墺太利國이 如斯히 산제르만條約廢棄를 表明한以上 匈牙利、불가리아도 此에依하야 續續 트리아논條約廢棄의 擧에나올것으로 생각되여 歐洲時局은 다시 多岐多端을 加하게되엿다

【維也納一日發電通】墺太利政府가 一日突然 强制徵兵制度採用을 發明하고 싼제르만條約을 廢棄하게된것은 이미 過日 羅馬의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議에서 슈슈닉墺太利首相이 其意圖를 表明하야 뭇솔리니伊首相 겜베스匈牙利首相의 諒解를 어든것이라고 信憑되고 잇다 그런데 墺太利國이 如斯히 싼제르만條約廢棄를 表明한以上 匈牙利、勃牙利도 이를본바다 차례로 트리아논條約을 廢棄하리라고보이므로 歐洲時局은 더욱 多岐多端을 加하게되엇다

蘇聯將校로부터 死體引渡書翰到着

日本側은引取委員任命

【朝鮮軍司令部二日午前十一時發表】長嶺子事件戰報(第五回) 蘇軍大佐솔킨으로부터 深堀參謀에게 四月一日午後五時三十分(滿洲時間)左記書翰을 送付해왓다

一、四月一日 솔킨大佐、深堀參謀殿、明四月二日午前十時(日本時間正午)我軍(蘇軍)은 小官에게對하야 長嶺子에서 日本帝國將校及 兵士의 死體를 引渡하라고 命令을바덧다 따라 該死體授受의 現場에는 小官(솔킨)及 軍醫、通譯三名、護衛兵二十四名의 一部隊를 派遣하는데 對하야 貴方에서도 我方에 相當하는 人員을 派遣하기를 希望한다

二、右에 依하야 日本軍에서는 死體引取委員을 如左히 任命하야 鄭重 또는 嚴重히 檢屍한後 授受할豫定이다

琿春特務機關長、日本領事館代表 朝鮮軍參謀一名、第十九師團參謀一名、琿春隊長、同軍醫一名、書記通譯各一名、儀仗將校一名、下士官以下十八名

外蒙機暴虐에抗議

【新京一日發同盟】滿洲國外交部에서는 去二十九、三十一兩日에 亘한 外蒙古飛行機의 不法越境爆擊의 化學部隊의 挑戰行動에 對하야 極度로 憤慨하야 滿蒙兩國에서는 極東平和를 攪亂하는 暴虐한所爲라고 現地로부터 詳細한 報告를기다려 外蒙古政府에 嚴重抗議書를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許世英駐日大使 六日、信任狀捧呈

【東京電話同盟】駐日中華民國特命全權大使 許世英氏는 信任狀과 前任大使의 解任狀을 捧呈키爲하야 來六日午前十時 王大使館參事官外十三名을 同伴하고 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이를 捧呈하고 마친後 前記諸員이 夫人同伴으로 皇后陛下께 謁見을 賜하시게되엇다 그리고 天皇、皇后兩陛下께옵서는 同日午後零時三十分 同大使에게 午餐의 御陪食을 賜하옵시겟다는旨를 一日에 吩咐가계시엇다

韓復渠氏被襲

【上海一日發同盟】當地着電에依하면 山東省主席韓復渠氏는 三十一日後 濟南에서 刺客에게 狙擊되여 重傷을 負하엿다 그리고 死亡하엿다는說도잇다

智利公使에 三宅總領事를起用

【東京電話同盟】矢野智利公使의 轉任에 伴하는 後任으로 三宅칼캇타 總領事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一日 如左히 發令하엿다

總領事 三宅哲一郞
任特命全權公使(二等) 智利國駐箚被仰付

專任外相親任式

【東京電話同盟】專任外相으로 決定한 駐中大使有田八郞氏는 二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着歸東하므로 廣田首相은 卽時 官邸에 同氏의 來邸를 求하야 正式으로 外相就任을 交涉하야 承諾을 어든後 宮中의 御形便을 仰問하야 同日中에 親任式을 擧行할터이다

人事·集會

▲森良吉氏(朝鮮競馬俱樂部常務理事)新任人事次來社

▲白光治郞氏(總督府圖書課事務官) 洋行中이던바 來十六日午前 橫濱入港의 御船後間丸으로 歸國

▲朴格欽氏(曾成高普敎務主任)二日朝遭慘(三男)

▲李勳求氏(崇實專門學校副校長)被任人事次來社

八面鋒

◇墺太利議會가 十五萬의 强制徵兵制度法案을 採擇。

◇베르사유體制가 문허지고 로카르노條約이 休止되는판에 산제르만條約이라고 獨也特存을 許할수잇슬것가。

◇本町署管內 某某街에 靑少年이 生辮이出入함은 벌서부터問題되든일이어니、

◇昨年中警察署出入한數만 六百餘名이라든가 新學年男兒에 與父의 參考資料。

◇三月末日로서 NRA法은完全히 消滅, 復興法은消滅되엇스나 루즈벨트大統領과 米國產業은 嚴存。

◇鳳壁에도 귀나고 網膜에도 뵈나는 우리네經濟界와서 諸組織이 多少다르는 點이 잇는모양。

◇두어라 히틀러가 精神的休戰을 提唱햇스니 마음의 餘暇라도 가져볼가。

謹告

謹告 今般朝鮮營業所를新設하옵고 顧客諸位의便益을 一層더圖謀키爲하야 弊社外務員을 各府郡下에 巡回케하엿사오니 倍前의 愛護로서 鞭撻하야주심을伏願하나이다

外務社員招聘

資格……二十五歲以上 男子中等程度以上의學力者 本社營業種目에依한經驗 又는興味를가지신분
採用人員……約十名
締切期日……四月十日
但地方希望者는志願區域과履歷書郵送 市內에限하야履歷書持參

毛織物及羅紗部
高級紳士服調製部

合資會社
東京金山商會朝鮮營業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耶蘇ビル)
電話光化(3)一三四九番 五五七番
振替京城五三九三番

말더듬이
訥言矯正院
京城府梨花洞二〇四ノ三 矯正案內書無料送呈

ネオチリン 림질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
二圓、三圓、五圓、十圓 (振法書送呈)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鮮藥店百貨店에잇음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당채색
(星送價商)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一八六 振替京城八〇九番

ポンペイ最後の日
紀元一世紀世界最大慘事の再現!
THE LAST DAYS OF POMPEII

四月三日獨占封切
名馬物語 同時上映
團成社

거북선표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光 一一五九

大潮湯、旅館、別館、共
四月三日開業仕候
相變らず御引立奉冀候
仁川 月尾島遊園
京濱線の(京濱食と一日會)も御利用奉願候

正木式製材機
創業明治卄七年
最古의歷史
最新의機構

代理店
松本商會機械部
營業所 京城府古市町十四番
電話長本(2)0320番
工場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東勸"의 苛斂誅求에 更生血路도 暗憺

新移民會社로 引繼前에는 當局도 束手無策

警口移住農民에 管理費徵收問題

총독부의 만주이민을 수용한 안전농촌의 관리비를 동아권업회사(東亞勸業會社)에서 농민에게 부담식히는데 대하야 각농장농민은 이에반대하야 동요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이문제의 선후책에대하야는 그간 외사과에서 여러가지 대책을강구하엿스나 처음에 이민사업을 동아권업회사에 대행식힐때에관리비문제에대한 아모협정이 업섯든것이므로 이제와서 영리회사인 동아권업회사에 관리비자담을 명령하여도 실행이 어렵다하며 또동아권업회사는 금번여름에 신설될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에서 매수합병하게됨으로 새이민회사에 대하야는절대로 관리비의 농민부담제도를 업새게할터이므로 새회사에서만은 이러한일이 업도록하면 자연히관리비문제는 해소될것이라 하야 외사과에서는 이문제는 새회사의설립과동시에 자연히 해소될것으로밋고잇다한다

그러나 그간이삼년동안을 동아권업에서 매년총독부의 보조금을 총사업비의 삼분지일이라는거액을 바다가지고 이민사업을함에 불구하고 농장관리비를 농민에게 부담식힌때문에 갱생도상(更生途上)에잇든 농민의타격은 여간큰것이 아니라하야 동아권업회사에대한 비난의 소리는 매우놉다

五千餘圓價格의 生阿片十貫押收

西小門"王書房"집에서

지난 하로ㅅ날 오후 다섯시 이십분쯤되여 시내룡산서(龍山署)사법계 정 사복경관 스무명이 성기(星熾)주임의 총지휘아래 자동차네대에 난호아 타가지고 서소문정(西小門町) 왕모(王某)라는중국사람의집을 습격하여 그물보잡는한편 생아편십관—그가격오천여원—을 압수해다가 지금엄중히문초하고잇는중인데 이단서를 잡기는 그날 오후네시가량되여 그서원이 대도동(大島町)사십이번지 반익창(樊益昌)(三)이라는 중국사람이 자기안해 호성녀(胡姓女)(二七)와 자기집이층에서 아편을 빨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그아편의 출처를 다저든바 마충내전기 왕모에게서 산것을 자백한데로부터 그처럼 큰아편밀매업자를 잡게된것이라한다。

鬱陵島附近에怪汽船

【大邱】 이십구일오후 울릉도가 두봉(斗峰)압바다에서 항행중의 어선이, 국적불명 이천돈가량되는 괴선에 정선하야 해안을 조사하고잇는것을 주재소소원이, 발견하고, 경북경찰부에보고하엿는바 보고를 접한 경북경찰부는 시절이 시절인만큼중대시하야 총독부로 보고하는동시에 영덕(盈德)포항(浦項)등연안경찰서에 수배하고 전중(田中)고등과장이수사하고저 급행하엿다한다 일일정오에 이르기까지 아주발견을 못하엿스므로린접강원도, 경상남도와 협력하야 방금수사에, 분망중이라한다。경북경찰부는, 물론이고 전조선각항에 수배하야 등괴선의행방을 수사중에잇스며, 때가때인것만큼 군부측에서도중대시한다

凶惡한 食主人 檢事死刑求刑

충남론산군 두마면 부남리(論山郡豆磨面夫南里)에사는리필재(李弼宰)(三五)는 살인,사체유기,사취(殺人,死體遺棄,詐取)죄로 삼십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 궁정(宮井)검사의 담임으로 공판을 밧고 검사로부터 사형의 구형을 바덧다 그는 소화오년부터 그의 고향인 황해도 연백군 해룡면 금산리(延白郡海龍面錦山里)에서 전기주소로 이사가서 살든동 늘 빈곤히 지내왓는데 소화팔년유월하순에 그의친척되는 연백군괘궁면갈현리(掛弓面葛峴里)리세준(李世俊)(二七)이가 그의집에 차저가서 매월오원식 밥갑을 내고 기식하고잇다가 소화구년음력이월초순에 경남남해(南海)로 공부하려 가겟다하고서 고향에잇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려비 일백오십원을 보내달라고 편지하엿다

그뒤 그해사월이십삼일에 리세준의어머니로부터 한꺼번에 보내줄수는업스나 다음달에는 몃십원보내주겟다는 답장이왓다 리세준은 그돈이 오기전에 그날에 피고 리필재로부터 려비 삼십원을 꾸어가지고 남해로 떠나게 되엿는데 긔차시간을 마초아 그날밤중에 두계역(豆溪驛)으로 함께가다가 장차 리세준에게로 오는 돈을 가로바터먹을 생각을하고 리세준을몽둥이로써 차녀허서 죽여떠 울은그시체는바위틈에 흙덩이로써 누질러서 감초아버렷다 그리고는 그뒤 리세준의 몸에 지니고잇든 인장을 가지고 잇다가 그뒤 리세준의 집에서 부처온돈 오십원을 차저먹엇스며 또다시 리세준의 집으로『리세준은 남해로 십변괴 한하고 공부하려 갓는데 공부하야 성공한뒤에 고향에 도라갈러이라하고 돈천원을 부처달라』하드라는 거짓편지를 보냇다가 그만 전후 범죄사실이 판로된것이라한다

池塘의 봄비

봄을등진 敗北者의 설음!!

殖銀頭取門前에 自刎訴寃한債務者

土地九千坪을流質當하고 數十次面會謝絶로

나날히 저러가는 불경기를 저바리고 자살을 꾀한 사람 — 일일오후두시 황해도 해주군일신면제산리(海州郡日新面濟山里)리화문(李華文)(三七)은 부내송현정(松峴町) 식산은행 유하(有賀)두취의사택문압해서 주머니칼로 목을 찔너 자살을도모 하엿스나 곳 룡행인이 발견하고 의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식힌결과 생명에는 별이상이 업겟다는데 그는 소화삼년에 그의 해주군청룡면(青龍面)에잇는 땅구천여평을 십년년부로 갑기로계약하고 식은에 팔백오십원에 저당하엿는데 년부가 좀밀렷다하여 지난소화오년에 경매에부처 그은행소유로명의를 변경하엿슴으로 전긔리화문은 돈을갑흘터이니 논을자긔에게 도로 돌려보내라고 몃번간청하엿스나 번번이 거절을당하고 마럿다 그는 생각다못하야 유하두취를맛나서 원통한사정이나 호소하여 볼가하고 그의집문전을 멧십차례방문하엿스나 유하두취는출장중이라고말하고 만나주지안함으로 그는드듸여 그의문전에서 자긔의 목숨을끈허 원통한사정을 일반사회에 호소하려고 한것이라한다

生活困難으로 事業失敗로

兩名이 또 飮毒自殺

◇일일오후 여덟시 시내계동정(桂洞町)일백사십번지 과자장사 권이봉(權泰鳳)(二)은 가게방에서 무슨독약을먹고 고민하는 것을 그가족이 발견하고 곳의전병원에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원체약을마히먹은관계로회생되지못하고 드듸여 열시경에 죽어버렷는데 원인은 사업에실패한것을 비관한끄테 자살을꾀한것이라하며 일일오후 다섯시 부내팔판정(八判町)팔십구번지 우영복(禹永福)(三)은 자긔집에서 양재스물을 마히먹고 고민하는것을 그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인사정(仁寺町)정긔섭(鄭起燮)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이역시 소생되지못하고 일일상오시십분에 죽엇는데 원인은 생활곤란이라한다

人道橋에서 投身

婆婆苦를 漢江에 洗滌

한강(漢江)의 어롬이 풀리고 나서 첫투강(投江) — 지난하루ㅅ날 오후여섯시반쯤되여 한강(漢江)인도교에서 어떤 중년사나이가 몸을날려 떠러드러가는 것을 때마츰파출소주재 대산(大山)이란 사공이 목견하고 곳 물속으로 달려드러가 건저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킨결과 다행히 살어낫는데 그사나이는 시내 신설정(新設町)오백십사번지의 팔십칠호에서 철공업을 하는 최홍태(崔興泰)(三)로 권솔은 만코 벌리는업서 도저히 생활해나갈수 업는것을 비관한 끄테 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富豪十餘名을中心 十萬圓大詐欺賭博

—市內料亭數處를 賭博場으로 삼고—

本町署에서 一齊檢擧着手

시내 본정서(本町署)에서는 재작년 난상십일 시내동사헌정(東四軒町)관철정(貫鐵町)방면에서 부호세명을 검거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대규모의사기도박(詐欺賭博)이라한다즉동사헌정삼십삼번지 삼당태랑(三堂太郞)(三)서사헌정(西四軒町)일백팔십구번지 미체포도변좌평치(渡邊佐平治)(三)신당정(新堂町)이백륙십오번지 도박전과일범 미체포 한권종장 津府新岩洞)모회사장미체포 김상현(金相鉉)(三)=假名=동사헌정(東四軒町)전과사범 미체포량철환 (梁鐵煥)(三)=假名=돈의동(敦義洞)미체포김성주(金成周)(三)외삼명(三)인데 이들은 모다이삼십만원내지 이백만원의 유수한 부호들인데 상월초순부터 시내욱정(旭町)모일본료리점 혹은전기량철환의집에서 약십만원의 회투사기도박을 하여왓는것을 당국에서 탐지한것이라는데 그들은 전기체포된사람이외에도 부내에 련루자가만흔모양으로 금명간에도 모다체포되리라하는데 취조를따라 사건은 점점확대할것갓흐며 그중에는 시내다옥정 조선권번(朝鮮券番)기생과 모유력한 광산업자도 련루가되여잇는모양으로 이외에 그들은 광산사기(鑛山詐欺)의 혐의도잇서 현재도 피해자인 박모(朴某)는 본정서에 고소를 제기하고잇다고하는바 련루자의 체포에따라서는 사건의전모가 드러날터이라한다

自動車轢人

일일 오후령시반에 경기도양평군청운면 다대리(楊平郡青雲面多大里)사간도로공사장에서 그면도원리(桃源里)사는 김사준(金四俊)(三)은 자갈짐을 운반하든중에 별안간에 뒤편에서 달려간서울 내선자동차부 (內鮮自動車部)운전수 리상화(李祥和)(三)가 운전해가든 자동차에 바치여 너머저서 그는 자동차미테 깔리여 약사미돌가량 끄을려갓는데 생명이 위중할만한중상을 당하엿다 방금 그곳공의(公醫)에게 치료를 밧는중이라 한다

水王産婦人科

市內普校今年新入生 五千四百五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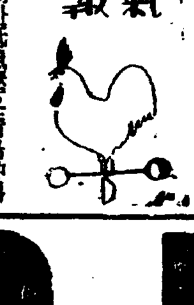
來六日은 一齊히 開學

불과오천여명모집에 열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어 고사에머리를알튼 시내각공사립 보통학교의 제일학년아동의 입학에관한 것은 그동안 결정을보아 대부분입학수속은 완료하여오는륙일 오후한시에 각학교에서 일제히 입학식을 거행키로 되엿다 이번입학이 허가되수효는 전부오천사백 오십명이다 최초는한학급칠십이명을 수용키로 하엿든 것을 그후다시 협의한결과무리 하나마 한학급에 네명식터 수용키로한결과 약삼백명을 더수용케하야 전긔수자에 달한것이다 입학식을 하는날은 학부형들이 동반하여 등교하야 학교 당국의 일반주의사항을 들어야 할것이라한다

補缺志願者만 千名을超過

學務課서整理에沒頭

시내 각보통학교의 보결생모집은 금번부터 지원서를 각학교에서 밧지안코경성부학무과에서 밧기로하야 각학년별로 모집수효에 대한응모자를 적당히 배정하야 평균한 선발률로입학시험을밧기로하엿든데 그간사월하순부터 들어오는 각학년의 지원서는 작금에도하로에삼사십통 오륙십통식들어와 학무과원들은 그정리에몰두하야 다른사무까지도 밀릴형편이다지금 형편으로보면 각학년을 통하여 지원자가 천여명이나되여 압흐로도 더들어올모양이어서그 선발 시험도수배에 넘는상당히 어려운선발이될모양이다 부당국에서는 방금각학교에대하야 보결모집수효를 조사중인데 지원서는 최근중에 모두어제일차로 각학교에 배정 하고 그 후에 다시 여유가 생긴다면、다시지원서를 접수 하리라한다 그런데 일부에는 이번새로 편입된 구역에잇는학교에 다니다가 구시내의 학교에전학하고저하는것도잇스나 이런것은 전혀접수치 안는다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朝鮮低氣壓은青島沖과 西朝鮮灣及 南滿洲에잇고또琉球의北方海上에도 低氣壓이잇다 滿洲는降雪이잇스며 朝鮮及日本內地는호리고 處處에小雨가잇다 東北地方은日氣가조와진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 흐리며一時는小雨가잇다明日은흐렷다개엿다한다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一五度七
最低 一度八
今朝最低 〇度二
今日正午 九度

훙정조흔 初等校教員

千三百名採用에 師範卒業生은九百名

三百名을 移入으로 補充

금년에 새로생길 보통학교 또는 학급에 증설과연장기타로새로 교원의 용원등 새로필요한초등교원의수는 약일천삼백명의 다수에 달하는데 일방으로 금년에 새로교원이될 사범학교의출신은 평양(平壤)경성 대구(大邱)의 세사범등 비학교의 출신과 이에부설된 단긔강습소의졸업자까지 합하야 약구백명밧게 안되다 그러므로 결국 사백명이나 부족하는터임으로 교원시험에 합격한자와 전문학교출신자의 채용을하여도 함모국에서는 결국약삼백명은 일본내지에서 다려와야될 형세라하는바 아즉도 선내의 사범학교 증설계획이완성될때까지 수년간은 매년일본내지로부터 이삼백명의 초등교원을 수입하게될터이라한다

外國電報料減額

종래 외국(外國)전보는 해저선(海底線)을 경유하여오든바 요사이에는 무선(無線)을 경유하게됨에따라 일본에서 외국에 지불하는 해외불(海外拂)이 적게되엿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사월일일부터 외국전보료금을 말한마드에 사전식 내리게되엿다

表善과安岳溫泉 電信과電話取扱

체신국에서는 그간전남 제주도표선(表善)과 황해도 안악온천(安岳溫泉)에 전신과 전화통화 사무를 취급하고저 공사를하여오든바 요사이 준공되엿슴으로 표선에서는 그곳우편소에서 안악온천에서는 그곳 전신전화취급소에서 전신과 전화통화사무를 개시하기로 되엿다한다

電報上告는無効

高等法院에서 判決

전보(電報)로써 상고(上告)하여서는 상고가성립되지안는다는 판결이 이일 고등법원에서 나렷다 평북강계군화경면(江界郡化京面梨)리만동(李萬東)은 평북박천군(博川郡南面領美洞)리기호(李基鎬)씨를 상대로한 가차압이의(假差押異議)사건에 대하야 작년십이월이십팔일에 평양복심법원에서 언도된 판결을 불복하고 고등법원으로 상고하엿는데 그상고장은 작년십이월이일에 평양복심법원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야 그달사일에 그법원에 도달되엿다 그런데 원고의상고긔간은 그달삼일에 만료되엿다 일방으로원고의 소송대리인소송(小松)변호사는 그만료긔일인 그달삼일에 상고한다는 의미로 평양복심법원에 전보를쳣다 그러나전보는 조선민사령(民事令)의규정한상고장에 해당치안흠으로 결국수리할수업다하야 고등법원에서 각하(却下)해버렷다

運動消息

普正러비軍 總督府軍擊破

普專러비對—그第十五日·普正高普對總督府戰은 一日午後四時半부터 總督府球場에서 普正先蹴으로 開始된바 普正軍前半戰에 好調를보이어 結局十四對九로 普專軍總督府軍을 擊破하엿다

普正高普14(8…3 6…6)9總督府

徐廷權選手惜敗

拳鬪俱樂部主催의 徐廷權、左右田、高山三選手海外遠征記念拳鬪大會는 三十日午後七時부터 名古屋御園座에서 擧行하엿는데 이날徐廷權選手는 名古屋拳俱樂部의左右田選手에게 判定으로 惜敗하엿다

日本學生卓球軍 平壤서도大勝

全日本學生卓球軍對 全平壤軍은 三十一日 午後一時부터 平壤三中井五層食堂에서 擧行한바 平壤軍은練習不足으로 第二라운드에 드러가 不振敗하엿다

【日本軍】 【全平壤】
第一라운드
○川 村 3—0 邊龍俊×
○田 村 3—0 黃錫一×
○島 村 3—0 黃致玉×
○安 井 3—1 金永燦×
○青 木 3—1 金基鎬×
×青 木 1—3 金甲淳○
○今 平 3—0 尹愼杉×
○頓 平 3—1 金玉均×
第二라운드
○川 村 3—0 金甲淳×

올림픽招致準備費 二十萬圓을計上

【東京電話同盟】 文部省에서는 올림픽大會東京招致準備費로서 二十萬圓의 追加豫算을 計上하고 特別議會에 提出하고저 事務當局의 大藏省과 折衝中이든바 特히 이問題에 關心을 가진 平生文相은 一日午後五時永田町官邸로 馬場藏相을 訪問하고 이問題에 對하야 充分諒解를 求한後 그承認을 어덧다

體專新設計畫

育大學前提로 體育審議會에서

文部省 體育運動審議會는 오래 동안 休育狀態를 繼續하고잇는바 最近의 社會情勢에 鑑하야 體育運動審議會는 文相으로의 諮問事項인『學生體育運動振興方策』에 關하야 答申을 急히하기로 되여 三十日 午後四時부터 文相官邸에서 特別委員會를 開催하고 主로서 體育體技의 指導者養成機關에 關한 事項을 協議한結果

一、體育大學設立의前提로서 먼저 體育專門學校를 新設하고 올림픽競技를 開催할수잇는 明治神宮 競技場과가티 完備한 綜合그라운드와 緊密히 連絡을 取하야『스포ー츠』指導의 硏究를거듭하야 優秀한 體育指導者의 養成機關을 設置할것

一、現在의 體育指導者 養成機關인 東京高師體育科를 擴充하야 日體、武專、女子體操 女子音樂體操學校等의 內容을 整備하고 體育學校에서 養成되는指導者의 向上을 圖謀할것

等의 成案을 一括으로審議하엿는데 近日中 體育運動審議會總會에 附議한後에 다시 平生文相에게 答申하기로되엿다 그런데 次回의 特別委員會에서는 正科運動競技의 種目增減問題를 爲始로 各學校 運動部와『스포ー츠』團體와의 關係及 學生『스포ー츠』의 經理關係에 關하야 協議할터인바 이는 모다『스포ー츠』團體의 具體化로 觀測되여 잇다한다

中等選拔野球

松山2 岐阜0

【甲子園電話同盟】 中等校選拔野球第五日…松山商業對 岐阜商業戰은 二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岐阜商業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二A對零으로 岐阜商業惜敗

岐阜	0	0	0	0	0	0	0	0	0	0
松山	0	0	0	2	0	0	0	0	A	A2

平安3 京師0

【甲子園電話同盟】 中等校選拔野球大會準準決勝…京都師範對 平安中學戰은 二日午後零時五分부터 甲子園球場에서 平安中學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三對零으로 平安中學勝

平安	1	1	0	0	0	0	1	0	0	3
京師	0	0	0	0	0	0	0	0	0	0

運動界人事

▲林東洙氏(普專籠球監督)青堂同甲에觀親次로 四月二日鄕里咸川에

▲金容武君(前徽文蹴球部主將)今春卒業後 京電에入社

專門校合格者

普成專門學校

法科 (八十五名)

韓炳觀 金京鉉 金敎容 朴順根
尹錫運 金文會 申鳳均 吳德善
崔東玉 金明洙 奇斗鎬 崔明鎬
車洛濬 朴永熙 鄭鳳球 崔元夏
李圭宰 金東源 閔丙玩 白仁鎬
金聖培 沈鉉尙 金安鎬 金舜榮
洪承卓 尹泳珏 李鍾贊 趙炳日
邊華植 宋基命 李國衛 尹斗熙
嚴寶璋 金東淳 姜善錫 李用殷
金用九 金陽俊 鄭漢宗 金河植
黃炳模 金亭大 曹基燮 李華永
洪完植 宋惠石 李相浩 宋日煥
金濟洙 金容厚 金善禪 ...
羅舜鋼 李萬麟 金榮坤 趙昌九
文永培 金洛鉉 李貞石 李興英
高 杭 朴泰喆 金永旭 吳政煥
鄭圭鉉 金聖烈 李載平 崔永洙
閔丙乾 鄭鍾文 申基洛 成榮樂
金道斌 孔敬來 孫錫岡 金潤東
許 珖 姜 準 房禧源 姜錫斗
金澤植 徐廷蔟 金平俊 ...
金煥洙

商科 (八十九名)

李敬鎬 鄭毛運 李容議 呂運渝
朴在昇 李鍾中 崔沭鎬 韓炳熹
朴重華 金容鎬 ...
李竣永 鄭修溥 玄孝燮 尹昌遠
馬世亨 權容直 韓寬洙 金一鉉
金甲壽 金世鍊 金基惠 裵仁得
李秉權 曹完洙 李鍾洙 白雲慶
朴鳳根 張學遠 柳汝萬 琴泰淵
朴東漢 周錫洪 許 鑿 李春培
全基勳 池東立 李東珪 呂運鋼
崔熙寬 李圭宰 李敏熙 黃善球
林鳴植 李 炕 李相龍 金鍾河
高岸鎬 楊慶植 崔錫永 鄭衡謨
李熙英 金京燾 金相琪 吳昌均
李相德 李基用 辛永明 李亨馥
洪在豊 朴用僎 全次辰 崔相軒
金成鎬 文學濬 安商瑾 薛在永
李基淳 金鍾德 洪起完 金璨暎
李恒珪 吳義煥 姜寅錫 李奉九
徐敏倫 林成勳 姜顯謨 李炳基
金徽鎬 金學成 尹志和 宋河一
李濱龜 金正玉 具然鴻 金文圭
金鳳季

蔘茸精

삼용정

高速度血液補給 補陰補陽 強壯新藥

이약은 사람이생기면서신농씨(神農氏)가 여러백가지풀을스스로맛보고 醫藥을창조하실때사람의百病을다고치고 그수명을오래가게하는약으로파명된 人蔘과鹿茸의 조효를 본바탕으로하야 現代에가장완전한方法으로精製하여主劑를삼고、近代醫學界에서 新研究한補血、補陽、補腎劑여러가지를學的으로配合한 것이니 이라고하는 가장理想的이요 効力이굉장히빠른補血強壯劑이다。 옛날秦始皇과 漢나라武帝도 不老長生을爲하야 멀리三神山에 不老不死藥인人蔘을求하엿는데 더욱現代人과가티 衰弱하야 神經衰弱이니 陽氣不足이니元氣不足이니하는 所謂現代文明病이만허서自己가活動코자하여도못行하고또타고난壽命을 다살지못하는人士에게는本劑가唯一無二한補藥이다、元氣가 旺盛하여야 複雜한이社會에서 서로競爭하야 勝利者가될것이니 먹는대로補陽補血이되야老人도 元氣가旺盛하야 老衰를防止하고 靑年과가티될수가잇는 蔘茸精은 到底히他藥에서 求할수업는 最新最高速度強壯劑이다。

藥價 五〇〇瓦 二五〇瓦

淋疾藥界의 霸王 トリパリン

人生의가장苦痛을주는淋疾을根治하시라

初期에는 治療에 念慮하다가 慢性이되면 苦痛이 甚하지안흠으로 完治되지안코 放心하기쉬운病이다 淋疾은 慢性이될사록 赤白帶下症其他의 그다음에는 睾丸炎 副睾丸炎을 일으키고 婦人은 不姙症이되는것이다 本劑는 最近獨逸에서 最新發明한 高貴藥을直輸入하야 主劑로하고 特히 秘藥을 만히配合하엿슴으로 在來의 銀劑나 白檀油劑의作用에 比할것이아니다 淋疾에 別藥을써도 無効하야 苦痛을바드시는분은 躊躇치말고 하로밧비トリパリン을服用하시라 トリパリン은 尿道粘膜의 殺菌作用은勿論이요 長服하시는대로 深部淋菌及膿球의 破壞가確實함으로 아모리慢性된淋疾이라도 再發될念慮가 絶對로업고 더구나 淋疾藥界의 驚異할 完治됨의 自信잇는 斯界의最新劑이다

藥價

나로ー나가

ー고교한만성 위장약

조선에서 가장만흔병이속병이다 ... 경험자 혹은현재쩔쩔하는체중환자 혹은이마석에빠저있는 속병환자이다 그러나 이병은 외모로보아 대소롭지안호므로 그냥두거나 그러치안호면 값싼매약쯤으로 일시일시피할뿐이요 근치는못하고 결국은 만성체중에서 헤매게되는것이다 일차체중에 걸리면건강하든사람도 점점쇠약해지고 음식을차차로 못먹게되고 음식맛이업고 조금먹어도잘체하며 쩔쩔하며 배가압흐거나 명치가압흐고 쓰리고 쥐여뜻고 달리고 내리지안코 무엇인가숨을치밀고신물이 오르고 울렁울렁하고 수족이나른하고 식곤증이나고 껄껄신트름이나고 헛방귀가나고 대변에시간이일정치안코 혹은설사 혹은거품둥이보인다 신외무둥이니 용긔를다시내시고 신약나로ー나를복용하야 근치의광명을 어드시라 단연코특효할것입니다 마약에효력이업스시거든 약을도로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수응하겟습니다

藥價 一週日分壹圓 十五日分二圓 三十二日分四圓

贊丸

연아환

貴重한어린이 病에特効한家庭常備良藥!

子女는 生産하는이보다 실수업시잘길느기만잡으로써 子女가될니다 完全히成育하자면 열두難關이잇다하나이열두가지고비의 難關을問題업시 突破하자면 小兒의生命水며 第二어머니와가튼영아환을 家庭에常備하야두시요 간기 경풍 몸떠운데 기침하는데 식체 보채는데 기침하는데마마 홍역태독 구역질 젓토하는데 푸른똥누는데 소회불량 위장약한데 머리골아픈데 신체섬약한데 그외에도소아에게第一조혼약

藥價 四十錢 五十錢

以上藥은 日本全國及滿洲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京城府授恩洞三二
總發賣元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振替京城一〇四八六番

朝光陽春特輯號의偉觀

二千萬의伴侶者로 朝鮮文化의金字塔

創刊半年만에地盤을確立한

『朝光』!最高部數로躍進

조선의 문화는 조선사람의 손으로 건설되지안흐면 그것은 조선사람의 문화가아니다 물론선진국의 문화수준에 비길바가아니라도 그것이 조선사람에게 행복을주면 그만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야 문화건설에 총동원이되지안흐면 안된다 우선교육방면에 눈뜬깨인이들이 나오고 예술방면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만히지고 여기서 낫는 갑시잇는 창작들이 속출하는것을보아 우리는 깃버할바이다

조선에잇서서 이만한 신문잡지의 발달은 조선사람이 조선의 문자를사랑할줄알고 그곳에 조선사람의 안녕(安寧)을 의탁하며 거기서 자긔들의 애의 과정판을 발견한것이다

지금은 여관의 뽀이、설렁탕배달、어린아이들도 신문과 잡지를 손에 드는것을본다 여기에 조선의 미래가잇고 희망이 잇슴을 깨다를수가잇다

외국의 잡지를 손에드러야 명예스러웟든 시대는 지나갓다 지금은 조선의 잡지를 옆구리에끼고 다니는 청소년을 볼때 내것이 남의것보담 소중하다는것을 깨다른 그들의 얼굴을 웃고 바라보게된다

우선 조선일보사출판부(朝鮮日報社出版部)에서 발행하는 조광(朝光)만 하드래도 페ー지수가 조선잡지중에서 제일만코 체재(體裁)가 조선서 처음이요 참신한내용 화려하고도 실생활에서 어든화보(畫報)등 실로 조선잡지왕(朝鮮雜誌王)으로써 큰소리칠만하야 조선에서 제일가는분량(언제나四百餘頁) 인까닭도잇겟스나 조선에서 제일가는 판매부수를 보히는 이것은 조선의 문화발달에 잇서서 긔여(寄與)함이 큰증좌일것이다

『편집의 대담、또는치밀、또는 고심의결과요 조광(朝光)에 집필하는 몃백인사의 성원과 편달이 끈히지안흔까닭이며 일반독자제씨의 애호의 결정이라아니 할수업다

더구나 이번 조광(朝光)사월호(四月號)는 양춘특집호(陽春特輯號)라 실로 조선의봄을 잡지한권에 모라너헛스며 아모리 봄이 아름다운 시절이라 하드래도 이조광사월호(朝光四月號)를 안보고는 자연과 인생과의 신비(神秘)한 관계라든가 조선의 봄이 엇재서 아름다운지를 모를것이다 그외에 전호보담도 몃배의 힘을드리고 비용을 만히드린 이 잡지의 내용긔타가 누구나 싼갑세 큰보물을 어든것과가티 놀랄것이다

아득한春靄에잠긴 옛故鄕의봄風景

글입은어린時節의가지가지追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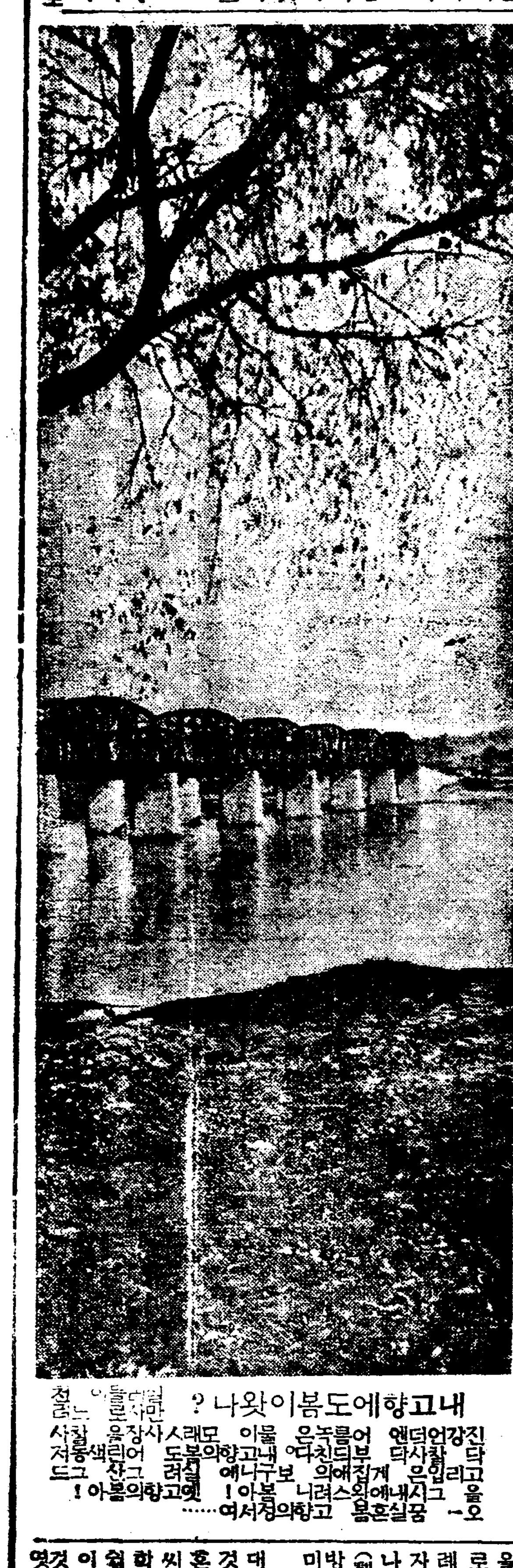
五文士가그린봄의叙情詩

『천하의봄은』 매양일반이오 봄이오면 사람마다 피부밋을 흐르는 피속에 어떤 유혹을 느끼도 매양일반이라하겟지만 참으로좋은 산에 올라 꼿을 꺽금직도한 시절이오 풀우에 몸을 누여 온화한 하늘을 우르 경상도에 발흥너코안동으로『五美人골』하면 대개의 인사는다안다…원래에 배경이 이러고보니 사람이 도더에 버서짐올뭔 할은 아니로되 일평생가야 이곳에는 일회의 연애인들 잇슬수잇을게안히오 일야의 유흥인들 설게될수잇슬게안히다 오즉 잇는것은 영원히 무자극한 한개의 선천적관계일뿐이다…』

이것은 내고향의봄풍경을 그린 김진섭(金晉燮)씨의 글의일단이어니와 이제목아레서 경성(鏡城)을 그린 리효석(李孝石)씨 락타산(駱駝山)을 그린림화씨 정수성(定州城)을그린 리석훈씨등 자미잇고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이 아록아록 색여진것은 누구나 한번읽고 그고향 정서에 담뿍이실릴것이다 누구나 고향은 잇지못하는한개의 아릿다운 꿈이요 보배다 이글을 읽음으로써 독자의가슴은 고향의봄을다시금 연상할수가잇슬것이다(이자미잇는 이글이 조광(朝光)사월호에실리엿습니다

李善熙女史가본 朝鮮作家의表裏

지금까지 문인(文人)들을 이야기한사람들이만호나 어느것을 불쾌한것이 만헛고 『과연그런사람』이라고 할만한지 손사람이업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문단인 관상(文壇人觀相)하는이가 생겻다 그는 녀류문인으로 가장예민한 관찰을하는 리정희(李善熙)씨다 리씨가 작가조선의 군상(作家朝鮮群像)이라고 제목을걸고서 문인을 모조리 등장식히여 그 눈 코 입 털인들들은 성격、특증、작품의내용등을 사롯하게 의미깁게 예리하게 해부해노흔것이니 이것을읽는이는 한번웃고 한번놀라고 무릅을치며 『과연그럿탄』 러 봄을한때다 내고향은 주벼한 일산본에 작정한 네여후의 동경부락(同胞部落)으로 적어도 『장엇다늬하고경탄하실것입니다 (朝光二三〇頁)



내고향에도봄이왓나?

朝光四月號全幅

表紙……安夕影
扉詩……春園
畵報 四月의映畵帖 1、사랑은꿋나다 2、明朗한子女 3、카르멘狂想曲 4、劇研舞臺面 5、桂貞植結樂團
畵報 四月의香氣 1靑春謳歌 2春日春宵
四題 3봄의마음 4四月의리듬 5봄따려가세

내故鄕의봄風景
내故鄕의錬金術……金晉燮
北鏡城의春情……李孝石
定州城의예봄……李石薰
駱駝山麓의春色……林和

봄이맺어준로ー맨쓰
봄바람에날려와서가울바람에날려간女子……白鐵
賭博場에서돈다잇고맹으로스타ー튼

特別讀物
★文壇生活三十年을도라보며……李春園

도라간申丹齋의面影
◇嗚呼不歸의申丹齋……編輯者
◇申丹齋學說私觀……安在鴻
◇金剛山詩……故申丹齋
◇脫出途中의丹齋印象……李光洙
◇上海時代의丹齋……洪命憙
私信公開洪碧初氏에게……故申丹齋
西間島時代의先生……李克魯
北京時代의丹齋……李允宰
靈壽寺文日의靈前에未亡人朴慈惠

時事論文
米國大統領選擧戰……韓普容
鰻油發統制問題……朴用來
商店繁昌의秘策……韓昇寅
經濟時事外觀……李健赫
新聞王허스트의機構……李相睦

名作上에나타난봄과그를읽든時節
十七歲의마농레스코오……李軒求
復活의카츄ー샤……崔載瑞
春情에불타는三女性의運命……金珖燮
에리와아르네의사랑……金煥泰

會計部마돈동무를끌리나서……朱耀元
乙密臺上의密會……李石薰
情死未遂햇다고 病院으로보내든일……金素任
紺碧의海上에서맺은두女性……金晟鎭
봄비와A孃과나……金東鳴
흘러간엘레ー나 上海港의슬픈春色……姜敬愛
K孃……毛允淑
보슬비나리는밤 靈壇압에 안즌……毛允淑
까지……許光然

新入學生에게주는말씀과 敎育標語
不屈의精神으로一貫……養正高普 安鍾元
成功의彼岸까지……梨花女高 金聖爵
해살을겨우라……梨花女專 金活蘭
굿은立志가必要……貞信女校 尹城淳
高尙한理想과實踐做……新學校 李時雄 女性과哲

★作家朝鮮의印像(人物과作品印象記)……李泰俊
★世界放浪記(西比利亞篇)……李克魯
★泰西名作上의實在한主人公……八公山人
△審偵秘話
□…安基永金顯順悲戀放浪記……一記者

나의愛讀書
金珖燮、李泰俊、李萬珪、林和、安在鴻、李克魯、金允經、李軒求、李石薰、金文輯、韓雪野、李無影、金東煥、洪命熹、金晉燮

朝鮮文化와民俗
◇假面이란무엇이가?……宋錫夏
◇꽃구우의源泉秘치기……白花郞
◇朝鮮姓氏源流考……秦春山人
◇新羅美人桃花娘……靑吾
◇關北怪傑李施愛……史外史人
◇渡溟全大鵬……崔永秀

不治의病者를죽일가?살릴까
新生活의困難……京城醫專 劉相奎
意識이明瞭하면……世醫專 金鳴善
죽이는것도좆타……城大醫學部 鄭槿陽
最後까지다하라……京城世專 李容高
法律이許諾하면……府民病院 李先根
五十年만지나면……世醫專 李秉俊

世界名作探偵小說
覆面의下宿人(第三特輯)(英코넌도일原作)……金煥泰譯
第三者(佛모ー리스르블랑原作)……李軒求譯
盜難된편지(米아란포오原作)……金珖燮譯
歐羅巴의孤兒(獨아끔티서만原作)……河仁里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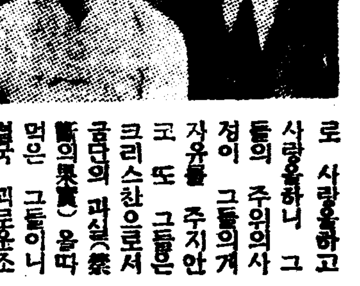
學(수필)……五山高普 金泰鎬
心頭雜草 自己衝動하라 人間으로서의觀察……金石松
文藝時評……白鐵
白石詩集을읽고……朴龍喆
時 밤……柳致環 호흡……李洽

家庭 因果律의再吟味……鄭相鍊
科學 女自働車運轉手의手記……金英鎔
春節과性病……鄭槿陽
創作小說
長篇小說 딸……韓雪野
短篇小說 過歲……嚴興燮
中篇小說 惡魔……朴泰遠
中篇小說 비오는길……崔明翊
長篇小說 純情海峽……咸大勳

禁斷의果實을딴

安基永、金顯順兩人 悲戀四年의告白記

哀傷의두歌人만아는秘話는『朝光』에



예술가의 정열이 웨그다지 남달리 매서운지 테노ー 가수 안긔영(安基永)씨와 쏘프래노 가수 김현순(金顯順)씨와 얼마전 조선의 악단 아니、조선에잇서서 별다른 총애를바뎌 그들이 한번스테지에 오르면 여러남녀의 혼백을 미치게하더니만 어느 틈에 맺는지 그두사람이서로 사랑을하고 사랑을하니 그들의 주위의사정이 그들의게 자유를 주지안코 또 그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금단의 과실(禁斷의果實)을따먹은 그들이니 결국 괴로운조선을 떠나 방랑의 첫발을 내노앗다 예술가에게는 공상(空想)이 마라하나 그들의 그아롭다운 신기루가튼 공상은 여지업시 깨여지고마럿다 그들이 사변이라는 긴ー세월에 어든것은 어린 따님하나와 가난과 술픔과 조소밧게 업섯다 어데를가나 엄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락토(樂土)를 빌리지 안엇다 어데를가나 그들의 과거가 전파되어 그들은 이인類의 이단자(異端者)인거나 가리 떠돌고 멀리하엿다 예술가로써 이런것이 돈을 주고도 살수업는 체험이겟지만 안씨에게는 처자가잇다는것 엇지하야 처자가잇는 사람이 엇지하야 처녀가 처자잇는사나회와ー 이것이 이세긔(世紀)의 인간의 도덕관념이다 그래서 이 두술픈사람들은 신산한 세월을 지내엿스나 그래도 고토가그립고 고토의 봄나물에 냉수를마서도 그것이조타고 붓들다 서도라왓다 그들은 건강하엿다 그러나 그들의엽들에 웅성에는길 수업는 비애와 주변과 그리고 애소(哀訴)가잇섯다 그는 과연 긔자(記者)를 보고 애소를하는것이아니면 또 그들이 조선에도라올바에는 어떠한결심이 잇지안호면 못드를 그의속임업는 『고백(告白)』이잇다 그들의세상이모르든 애처러운 이야기가숨어잇다 이것이 조광(朝光)사월호(四月號)에 기다라케 씨워잇다 보라 강남가든 제비를따라 다시도라온 이들의눈물로 방죽한 이야기를(朝光四月號二百五十六頁부터)

世界名作上에나타난 그봄과그를읽든時節

로맨틱한文學靑年時代의追憶

異國情緒에물든筆致

『그봄은 높흔곳엔 늣게찾저온다 겨울에는 일주일에 세번식이나 국도(國道)를 달리든 우편마차도 四月이되면 겨우 한번밧게 오지 안는다 그러면 높흔곳의 사람들은 여름곳엔 벌서 눈이 녹고 어름이 풀려서 긔선이 통행하고 장기질이 시작되엿다고 생각한다 이산우에에서 아즉도 눈이 길이나싸혀잇서서 가축들은 우리속에서 울고잇고 새는 날러와도 어데론지 옹크리고 들어가서떨고잇다 어쩌다가저오는 길손이 미레동리에다 마차를두고 와다고 이야기한다 손에꼿을 들고서 길까에서 꺽것노라고뵈인다 그러면 놉흔곳에사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동경(憧憬)이 용솟음친다 그들은 이러저리 분주히 거닐면서 이약이한다 해를바라보고는 매일 얼마나녹아지는가를 알라고 한다 눈우에 재를 뿌리고 지금쯤 꼿을따고 잇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감펜촌(村)의 『아르네』와 베엔촌(村)

朝鮮女性禮讚誌 雜誌『女性』의眞價

優美한體裁자랑할만한內容과畫報

犧牲的廉價인雜誌出現

조선에서 제일새로운잡지 자미다잇는잡지 실익이잇는잡지 읽기쉬운잡지 이것을다ー겸비한잡지가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발행하는 녀성(女性)이다

물론 일반녀성을상대로 하는잡지면서 남자도읽으면 웬까닭인지모르고 놋키실흔잡지가『녀성』일것이다 사진、그림 이라든가 그편집이조코 새로우며 그 사마다긔자들이에는 흔적이보히는것이 실로 처음되는녀성잡지인것을알것이다 그러면 그내용을들추어보자。

◇

파랑새 김귀림(金桂林)씨의그남진한시(詩)에 안석영(安夕影)씨의 정서가넘치는그림이다

春、山、女 김상용(金尙鎔)씨는 이화녀자전문학교에서 교편을잡고잇스면서 등산가(登山家)로도 유명한이다 씨가『하이킹례찬』을하엿다 더구나 봄과、녀자와、산과들 참잘맛다고 누구나말할수잇다 여긔에 이화전문방문긔도 사진과아울러잇서 흥미가잇다

女大學 조선에는아즉녀자대학이업는터에 지상에다시작한것이다 리광수(李光洙)씨의 결혼론(結婚論)과 김여제(金輿濟)씨의 애정의심리(愛情心理)는대학에서 강의하는것보담도 알기쉽고 가치가잇다 결혼은어떠한것이며 애정 즉 사랑이란 어떤것이냐는 여기에자세히 해석되엿다

내男優의맘항 조각가 김복진(金復鎭)씨부인허하백(許河伯)녀사 작가유치진(柳致眞)씨부인심재순(沈載淳)녀사긔게 수시가자고서 거짓업시 쓰는것이다

女優四題 장벽、구봉 김용준 안석영 제씨의 그림과 정지용 리상 김귀림 박룡철제씨가 글로써본 조선의녀자다

育兒特輯 박길래씨 조현경씨가 아이를 만히나면어떠냐、안나면어떠냐한 이야기가 아이만히난이나 아이를 못낫는이나 이것을보라

내가거러온길 영화배우 문예봉 무용가 진수방양이 지금까지거러온 이야기를하엿다 그들은 애틋햇다

시몬에게 모윤숙씨가 시몬의게 례의여가(哀歌)를 보내는 제일신(第一信)이다

새살림의부억은 유명한건축가인 박길룡씨가 아조대단히 애를써서연구한 조선부엌개조론이며 설계도도 겻처잇다

처녀와한때 시집갈때는 지냇는데 시집안가고 처녀로잇는이가만타 우선 정영숙 김수임두 점잔은 처녀를 뵈온긔사다 그비밀이 적히여잇다

봄의流行 모자 목도리 구두 솔ー을 이봄에 이잡지를 보지안코는 다ー를수 작이다 얼마나 야ゝ스트해서 소개하는글인지 그리고한대훈(咸大勳)씨의빗나는 장편소설비사의백조(瀕死의白鳥)와 김문집(金文輯)씨의 월광곡(月光曲)이라는소설 사엽(四葉)클로버ー의꿈이라는 리석훈(李石薰)씨의소설 그리고제씨의 봄밤의꿈드 제씨가『이것을유행식히시요』한새류행제안이잇다 그외에 자미잇는긔사가만흔데 갑슨단十錢이요 郵稅는 一錢이다

사진은 조선서 처음으로 시험한『한파스텔』로 그린『여성』의『표지』다

(女性)定價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所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무게잇는創作陣과 興味津津한探偵小說

빗나는신춘에누구나읽어야할 이『朝光』紙의小說九篇

이번 조광 사월호에는 세계탐정소설이 네개나 잇는데 모도가흥미 백퍼ー센트의 것이다。영국의고넌・도일(코난도일)것을 위시하야 미국의엘란・포ー』불란서의『르불랑』 독일의、야콥、뺏서ー만』등 이들은 벌서 독자가숙친한 탐정작가로서 그일홈이널리알려진것다。

더구나 그번역한 분들은모ー두그나라 문학을 전공한분들로써 본바서편을 리헌구(李軒求)씨가 영국편을 김환태(金煥泰)씨가 미국편을 김광섭(金珖燮)씨가독일편을 하인리(河仁里)씨가각각 담임하여 그유려(流麗)한역문(譯文)만도 일독할가치가잇다

이제 그리고또 창작진(創作陣)만 보드라도 한설야(韓雪野)씨의딸 엄흥섭(嚴興燮)씨의 과세 박태원(朴泰遠)씨의 악마등모두가 중견 작가의 무게 잇는 작품이며 또 장편 소설로써 단연 인끼를 끌고 잇는합대훈씨(咸大勳氏)의 『순정해협(純情海峽)』도 이번호에 더한층

흥미를 끌고잇다 그리고 신진최명익씨의 비오는길도 편자미(無情)이 첫번출세의 작품이엿지만 잇는작품이다 어와가티 세계적명작탐정과 조선에 유수한 작가의작품 八九편이 조광사월에실리게된것은 그야말로 대잡지의면목을 세울수잇는것이다

더구나 빗나는 안석영씨의삽화는 금상첨화의장관을 일우어읽기에도 매우 자미잇고 쉽도록하엿다 이는오로지 독자들위한 희생적봉사로써 어느때나독자에게 영합되며 지도하는이잡지야말로 누구나 읽을만한가치가잇는것이다

春園李光洙氏 文學苦行卅年記 赤裸裸한自敍傳

문학고행삼십년(文學苦行三十年) 이라는제목아래 무엇을 쓸려인가 로년긔(老年期)에드러서는 춘원은 그의 차무엇을 쓸러시작해쓰며 도장생경해진 두리뭉가지고 이것을쓰는것이다 여기에 조금도 거짓이잇스랴 여기에 젊러라한자 그고백(自己告白)도잇고것이요춘원과갓가운사람、문단사람들도동가지고 말이만던시대가잇다 그러나 씨는 조선에 새문학(新文學)을가저온이다 십은이다 그가삼십년동안이라는 긴ー세월을 문학에 무엇을하엿스며 무엇을하고 무엇을 가젓는가 무엇을어덧는가 무엇을 배화는가 무엇을 생각하엿든가 우리네에게끼치는가 지춘원을 그것을 조광(朝光)사월호부터 쓰기시작하엿다

의예관는 가슴속에 사랑이울리게시작한것도 바로 이때엿다』 이것은 북구(北歐)의 작가든슨의작품『아르네』의 한구절이지만 조광(朝光) 사월호에는 이에 나타난봄과 그를 읽든시절을 명작상(名作上)에 나타난봄과 그를 읽든시절을 명작을읽기

그들외는 시절이란 제목아래로 불란서의명시아의 문호부활을 투르게네프의 작가든『보바리부인』『여자의일생』등 명작을 자미잇게쓰엇다 명작을읽기

전에 이들 문인의 예술관을 그내용부터읽어보라

1、十七歲의마농레스코오ー李軒求
2、부활의카츄ー샤와봄 崔載瑞
3、春情에불타는三女性 金珖燮
4、『아르네』와에리의사랑金煥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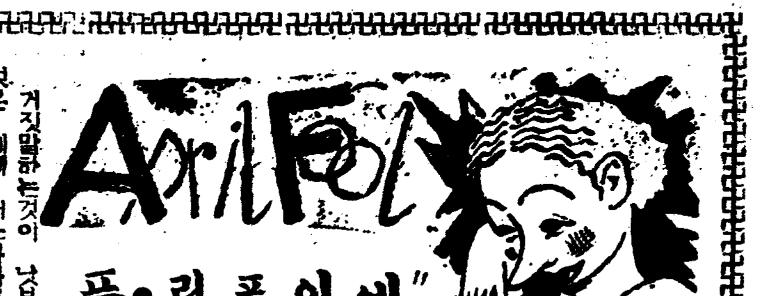
朝光

(四月號) 四百二十二頁

四月四日発売

定價三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에이푸릴·풀"

거짓말하는것이 나쁘다는것은 세계 어느나라를 물론하고 다가튼것입니다。그러나 서양서는 일년중에 사월초하로만은 무슨 거짓말을하여도 관계치안타는 이상한 풍속이잇는데 이것으로『에프릴、풀』이라고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해도 관계치안타는 이상한『에프릴、풀』은 어떠케 생긴것인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서양서는 아주 옛적에 사월초하로를가지고 일년의처음날 다시말하면 정월초하로로 써왓습니다。그러다가 불란서의 임금『쇄르르』구세가 긔원일천오백륙십사년에와서 일년의 처음으로 일월일일로 쓰는『유리우스』책력을쓰기로 하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이나 로인들은 무엇이든지 묵은 것을 조하하고 젊은이는 새것을 조하하는때문에 늙은 로인들은 이유리우스책력에 반대를 하엿습니다。그래서 젊은사람들은 로인들의 반대하는입을막기위해서 사월초하로人날은 특히 로인들을 대접하는날로정햇습니다。

혹선물도하고 잔체도 베푸러서 로인들이 반대를하지안토록 하엿습니다。그러나 본래부터 고마워서하는 노릇이아니니까 선물을 한다면서 알맹이는 빼고 빈 상자만보내기도하고 잔체를 한다고 로인들을 불러다노코 되지못한음식을 내여놋키도해서 만히속엿습니다。

그뒤로부터 이날은 남을 속이는날이되엿습니다。그러니까 사월초하로는 누구나 거짓말을하게되고 또 아모리 거짓말을해도 아모관계가업게되엿다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만은 거짓말이아니고 사실입니다。

家庭

"공연히나붓기는마음 너와나정드려볼까"

어항한개의 의의가 결코적잔타

금붕어 ……고히기르는방법……

첫재 어항은 보통들유리로맨든것을 택합니다。사방으로 다비치기때문에 보는운치를 취하는것일것입니다。그러나 나재는 유리그릇에 너허두다가 저녁이후 다른그릇으로 바꾸는것이 더조습니다。다른그릇으로 바꾸지안으면 밤에는 반듯이 어두운데다가 노하두어야 합니다。그리고

나무 한주、풀 한폭이가 업는우리네 가정에는 그야말로 봄이 와도 봄가치 안습니다。그러타고 좁은 뜰에는풀이나 나무를 심그기도어려우니 가정안으로 봄을끌어 드리기가 힘들게 됩니다。오즉단한가지 어항의 금붕어는 갑도 싸려니와 보기조하그런대로봄운치를 도웁하지 안습니까?다른 철에라고 금붕어를 못기를것은 아니겟지만은 그래도 봄이제철이 아닙니까?이제부터 금붕어장사들은 여긔저긔 허저저 돌아다니게 될것입니다。기르는법을 대강소개할터이오니 멧마리 사서서 책상엽 탁자우에다가 노코 길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리그릇대신

애숙이 힌 사긔그릇도 금붕어의고운 빗갈을 돗보이게 하야 훌륭하고 양재긔그릇도 그와가티 무방합니다。오즉 생철이나 쇠그릇은 쇠스긔운으로 인하야 해가잇스니 쓰지말어야합니다。

둘째 물은 수도물보담 우물물이조코 우물물보담 내스물이 조습니다。그러나 흙탕물이라든지누런물은 오히려 수도물만도 못할것입니다。또 아모리 한녀름이라도 물은아조 찬물보담차지안흔물이 조습니다。그러니까

차되찬우물물

가튼것을 쓸때는 대개 하로나 이틀전쯤 떠노핫다가 써야 합니다。물을 가는것은 그 물이 아조 더러웟슬때 금붕어가 쇠약해젓슬때 또는 코를 우로처들기 시작할때를 보아서 해하십시요。그 도수가 춘추로는 한달에 이삼회쯤 녀름에는 한달에 삼사회쯤 겨울에는 두어달에 한번쯤 알마즌터로 해여나 자조하지 마십시요。

셋재로 먹이는 동물성으로 뜨물 번득이 닭알 생선등도 조코 식물성으로는 국수버리가루 밀까루과자등이 조습니다。물논

식물성의먹이

가 갑시싸고 엇기쉬우니까 만히 쓰이나 동물성의먹이에비하야 자양이 부족되는것은 사실입니다。그뿐이 아니라 그 먹이의 종류를 딸아서 또 다각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죽번득이가튼것은 지방이 만흔만큼 만히 주지 말것 생선도 지방이 비교적 적은것을 골라서 조금 소금스긔를 하야 줄것 닭알은 누른자만 빼아내어 삶아 줄기이 버리까루는 한번 물에 쩌낸 것을 가루로맨들것등입니다。

넷재 먹이를 주는 방법을 물논

그 무엇이든지

전부 조그마케 부시어야 할것은 두말할 여부가 업거니와 그다음으로 주야 두번 먹고 조금 남을만큼 넉넉히 주엇다가 세시간쯤 지나서 남어지를 다 거더가도록 할것입니다 먹는 분량은 천긔나 철을 딸아 다른데 그중에도 겨울에는 거의 절욱을 하고 지냅니다。

다섯재 금붕어에는 병이 썩 만습니다。몸에 힌점이 생기는병 아감지가 썩는병 비눌이 비늘이

거꾸로 서는병

꼬리나 지느럼이가 호치호치해지는병등입니다。그런데 제일주의할것이 똥이니 똥이검은것은 건강상태요 힌것은 배가고프거나병이며 뚤재로 주의할것은빗갈과노는모양이니 빗갈이 조코 깜작깜작 잘 놀래는것은 건강상태요 빗갈이 나빠지고 자꾸물아래로 돌고 잘 놀래지 안는것은 병입니다。병자는 곳 꺼내서 딴데 두는것이 조습니다 공연히 그대로 두엇다가는 성한놈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몸이약한대먹을약

問 저는 금년이십팔세된 녀자입니다 몸이 너무약하야 태아에게까지 영향이 잇슬가하여 복약하랴하는대 베오론드닌을 복용하여도 관계업슬지요 자세히 지상으로 하교하십시요 (新義州一女生)

答 몸이약하면 엇재서 약한가를 안다음에 복약하는것이 조흘것갓습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젓이적습니다

問 저는 이십이세의 녀자로 이개월전에 출산을 하엿는대 출산후 삼주일까지는 젓이만엇든대 그후로는 차차 젓이 줄기 시작하드니 지금은 조곰도아니나옵니다 삼월일전에 미의국에 체한후로 다른음식에도 체하니다 한약을 복용하엿스나 효과가 업습니다 지금은 가슴이마치고 쓰리고 아픔니다 무슨약으로 치료할가요 가정치료법을 하교하심을 바람니다 (市內一女生)

答 다음처방약을써보시고 또 될수잇스면 소젓(牛乳)을 구해서 먹어보시요

一、重曹 二、〇
자스타-제 〇、五
마-인 六、〇
하포호린 一、五
右爲一日量三回食間分服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성병일까요

問 저는 이십일세된 녀자이온데 부득한형편에 어떤남자와 정교를 하엿습니다 하고난후그 남자가 매독성요고네 로 살발삽주사를 맛는동이라는것을 알엇습니다 매독이 전염되지나아니하엿슬가요 그남자의 국부에는 아모런 종긔도업섯습니다 (市外아이생)

答 의심이되거든 혈액검사를 바터보시요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오늘은 우리 입화시험 ─ 사월일일 덕수유치원 원아시험광경

입학은햇스나 "선경질인아이" 지도를잘못하면큰탈

어느 보통학교에서든지 아마 다-들개학한모양입니다 어제오늘은 길거리에 책가방을 억개에 지고머진보통학교 아동들이 만히 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듸 말슴드리고저 하는것은 다름아니라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든아동은 별반말슴할것이 업거니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게된 아동에게잇서서는 부모와 학교선생님들이 특히주의해서 살펴야할일이 한가지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하니 신경질의아동입니다 이때까지 가정이라고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새생활에 첫발을 드려놋는 아히들의마음은 어른들이 상상하는이상으로 긴장되여잇는까닭에 선생과 부모는 특별한 주의와 옹호를 하지안으면 안되겟습니다

×

신경질의 소질을가진 아동이 도회지에서는 전아동의 二、三파-센트 이상을 헤이고잇다고 합니다 그러타고 해서이런신경질인 아동이라고 각별나게 다른아동보다 특수한점이 뵈이는것도 아니므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의사까지도이런아동에 대해서 쉽게알수업다고 합니다

×

그러면 신경질이란 어떤정신상태를 말함인가하는데 대해서이제 말슴하겟습니다

신경질의 아동은 조그마한자극에도 민감하고 감정이 쉽게움죽이고 사람에 권태를 느끼고 따라서 몸과마음이 피곤해지기쉽고 또 무슨일에나 열중하기쉽고 표면으로는 잘나타나지 안으면서도 머리속엔 상상역이 풍부합니다

×

상상역이 풍부한것쯤은 조흔일이라고 하겟지만 이것도 도수가 느려가게 될것갓흐면 주의를 집중식히지못하고 물건을잘정돈하려는 성벽이 강해지고옷이나 가지는물품을 사치하려고하고、손톱을 빠는등의 실업는짓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것을잘주의해 살피지 안흐면 주위의사람이 얼는알어채기가 곤난함으로 잘주의해서 발견하게될것갓흐면 곳전문의사에게 치료를 밧도록 하지안흐면안될것입니다。

물론 이런아동은 학교성적이 납불뿐아니라 편도선가튼 병증도 자조발생합니다。

수봉이 학교 선생님께서도『우리차지』를 보시니 말슴이지요 수봉이는 요새 전에업든버릇이 생겨 큰일 낫습니다。공책산다 연필산다 해가지고 돈을 달래서는 길거리에 나가 몰래무엇을 사먹으니 엇저면 좃슴니까。수봉이가 래일 학교가거든 벌 좀씨워 주십시요。(큰일 낫다 정말큰일나)

(글쓴사람어ㅁ니)

童話 물업는나라

● 崔秉和

옛날 어느나라에 해마다 큰 장마가져서 사람이 몃만명인지 수효도 알수업슬만치 만히 물에빠저 죽엇습니다 그까닭으로해서 이나라 임금님께서는 세상에서 물처럼 무섭고 물처럼 보기실흔것은 업슬만치 생각하시엿습니다

하여간 그장마물로 해서 몃만명이라는 사람이 죽음뿐만아니라 소、말、도야지、닭、양들의 죽은시체는 산거리처럼 싸이고떠나간집과 흘려간다리를-다시짓고 다시노스코하는데 십년이란긴세월이 걸니므로 임금님께서 세상에서 물처럼 무섭고 물처럼 보기실혀 하시는것도 당연한 노릇이라고 신하들도 생각하고 잇섯습니다。

그러나 물은 사람이 만드러내는것이아니고 땅속에서 저절로 소사나오는것이므로 아모리임금님께서 무서워하시고 보기실혀하신다고 하드라도 호랑이나 늑대를 잡아 업새버리는것처럼 아조 업새버릴수는 업섯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느날 대신들을 아페불러세워노흐시고

『나는 무섭고 보기실흔물을우리나라에서 모조리 흘려보내고 십흔데 그대들의 의견을 듯고 십허서 불넛네』하고 말슴하시엿습니다。대신들은 일제히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무르심이십니다。잘 아시는바와가티 물이라는것은 흘려도흘려도 말르지안코 소사나오는 것이므로 도저히 왼나라의물을 한방울도 남기지안코 모조리 흘려보내기는 사람의힘으로는 어려울줄 압니다』하고 대답하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눈살을 찌프리시면서

『될수업다는 말인가。나는 요사히물만보면 공연히 화가나서 죽을지경일세 우리나라의물을모조리 업새주는 사람이잇다면 나는 그사람에게 임금의자리를물려주어도 원통치아느니 한시밧비 왼나라백성에게 나의바라는것을 전하야주게。백성들중에는 엇더한훌륭한재조를 가진사람이 잇슬는지도 알수업스닛간』대신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네 잘알엇읍니다』하고 임금님앞을 물너갓습니다。그리고왼나라의물을 한방울도 남기지안코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임금님의자리를 물려주겟다는 방을 방방곡곡에 부처[illegible]

대야의물이나 끌부의물가트면 누구나 손쉽게 업샐수가잇지만 왼나라 땅속에서 소사나오는물을 한방울도 남기지안코 업새버릴수는 사람의재조로는 될수 업는 노릇입니다。그래서 이방을읽은 백성들은

『임금님자리까지 물려주신다니 욕심이라도부려서 이나라물을흘려보내고 금강석의왕관을 써보고십지만』하고 맛나는사람마다 칭얀홀리고 이약이들만 할뿐이엿습니다。그런데 언느날 한사람의 젊은사람이 말을타고 대궐에와서

『나는 방을보고 온사람이니 대신들을맛나보게 해주시요』하고 대신에게 기별을해서 그젊은사람은 대궐안으로 드러갓습니다

대신한사람이 나오드니

『방을보고왓다는 사람이 당신이요。그래 당신이 물한방울남기지안코 다업새버리시겟소。』

『네、그럿케 해달내시면 해드리겟습니다。』

『참 놀나운재조를 가지신분이요。임금님에게 말슴을올리겟스니 잠간만 기다려주시요。』하고대신은 임금님에게로가서젊은사람의 이약이를올리니 간긧버하시면서

『이리로 데려오게 얼는맛나서 이약이좀해보게』하시므로 대신은 젊은사람을임금님아프로 데려왓습니다。임금님은 젊은사람을 아프로밧작갓가히오게하신후

『그래 너는 우리나라의물을한방울도 남기지안코 다 흘너낼 재조를 가젓단말이냐?』

『네 그럿습니다。제가 물맛흔 실령(水神)에게 호령을하면 물이한방울도 남기지안코 바다로 흘러가버릴것입니다。』

『그것참 장하고나。그러면 얼는 물의실령에게 호령하여라 물이한방울도 남지안코 흘러가서 우리나라의물이업서지면임금의자리는너에게물너줄것이다。』

『그러면 호령을하지요。그런데 임금님! 만일 이나라의물이한방울도 남지안코 다흘러가버리면 백성들은 물이업서서 고생을 할터이니 그래도 조흐십니까』

『무어라고、물이업서지면 백성들이 고생을한다고。그것은 또 엇전까닭이냐?』

『물이업서지면 쌀과보리를 비롯해서 오곡(五穀)이 읽을수가 업습니다。물을마시고 사라가는 백성들은 살수가업습니다。』

『쌀과보리와 오곡은 이웃나라에서 사드리지。백성들은 물을 못마시여도 죽을까닭이업스니 그런염녀는 고만두어라。얼는 물맛흔실령에게 호령을하여라。』

이말을드른 젊은사람은 공손히 례를하고나서『그것만 용서하신다면 즉시 호령을하겟습니다。』하드니 큰목소리로

『물맛흔실령!이나라의 땅우의물이든지 땅속의물이든지 한방울도 남겨노치말고 바다로 흘려보내!!』하고 호령하니간 별안간 연못물도 개천물도 우물물도 그저 물이란물은 모조리 바다로흘러가버리고말앗습니다。

地下村 (七)

姜敬愛 作
熊超 畫

그는눈을 두어번 굴렷슬때 문득방아간이떠오른다。

『이재 개똥네 논에 동이 터젓는데 전부쓸려 나갓다누나。에구 무서워 저게무슨 바람이냐 저바람!우리 바른 어쩌나

어머니는 밧그로 뛰어나간다 칠운이는 울면서 따르다가 문턱에 걸려 공중나가너머지고시재 감으려는 소리를 하엿다。

칠성이는 눈을 부릅떳다。『저저놈의 새끼 주축이고 말까부다!』

어머니는 얼른 칠운이를 업고 울려나서 정신업시 밧을바라보고 또 나갓다가 들어와다 칠운이를 따리다가 중얼중얼하며 돌아간다。

칠성이는 이꼴이 보기실혀모루안자눈을 감앗다 무엇에 놀라 눈을 뜨니아래목에 누어할딱할다하는 애기가 일어나려다쓸어지고 소리업는 울음을입으로 운다。머리를 갈자리에 부비치다도시원치 안흔지 손이 올라가서 헌겁을 쥐고 바박 할키는 소리란 징그러워 들을수업섯다。

칠성이는 눈을 안뜨자 하다도 어느새무뚝 뜨게되고 애기의 저노란 손까락이 머리를 쥐어 뜻는것을 보게된다。조놈의계집애는 죽엇스면!하면서 눈을 감는다。

바람은 점점더 세차게 분다 살구나무꺽이는소리가 뚝뚝나고 집기둥이 쐬이는지 쐐꺽 쿵!하는 소리가 생문에 울렷다。칠운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눕는다。

『성아 내일은 눈약두 어더오럼 개똥이는 저아버지가 읍에가서 눈약 사왓는데저 그약을 너으니까 눈이 낫다더라 응야』

칠성이는 잠잠이 드르며 얼른 가슴에품겨 잇는 큰년의 옷감을 생각하엿다。차라리 눈약이나 사올것을 하는 맘이 잠간 들엇스나 사라지고 어떠케 큰년에게이옷감을 들려줄까 하엿다。

부엌에서 석양 것는소리가들리드니 어머니가 들어온다。

『아궁에 물이 가뜩하니 이를 어쩌냐 저것들도 아무것도 못먹엇는데…너무 배고프겟구나』

이런말을 하고 밧그로 나가더니 곳뛰어 들어온다。

『큰년네 논두 동이 터것단다 그리 튼튼하든 동두 저를 어쩌니』

칠성이는 눈을뚱그러케떳다。

『좀 자러무나 요게집애야 웨 작구만 머리를 뜻니。조놈의계집애는 며칠째 안자고 새워단다。개똥어머니가 쥐가죽이 약이라기 쥐를 잡아 저리 봇텃는데 작구만 떼려구 저러니아마나려구 가려운 모양인지』

그러타고 해줘야 어머니는맘이 노힐모양이다。큰년네 말에 칠성이는 눈을 떳는데 딴 푸념을하니 듯기 실혓다。하나 꾹참고

『그그래。큰년네두 논이 텃대?』

『그래!젓이 안나니……』

어머니는 연신 애기를 보고 그의 젓을 주물러본다。멱주고름끈 가티 말른그린다。

애기는 점점더 할딱할다 숨이 차오고 이전 손을 놀릴 기운도 업는지 손이귀밋흐로 올라가다는 맥을 일코 다르르굴러떨어진다。어머니는 바람소리를 듯드니

『이전 우리조는 못쓰게 되엿겟다!큰년네 논이 떠는데 조아 글세 이르땐 안보려인지어제 시작갓단다。』

『큰년이가?』

칠성이는 버럭 소리첫다。그의 가슴에 고히 안겨잇던 큰년의 옷감은 돌가치 딱딱 질리운다。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놀라 바라보앗다。

『어마이 저것봐!』

칠운이는 뛰어 일어나서 웅 웅 운다。그들은 놀라 일시에 바라보앗다。

애기는 언제 그헌겁을 찌젓는지 방쫑헌겁이 찌저지고 그라로부터 쌀알 가튼 구데기가 설렁설렁 내달아오고잇다。

『아이구머니。이게 웬일이어!』

어머니는 와락 기어가서 헌겁을 잡아제치니 쥐가죽이 딸려 일어나고 피름투데가가 아굴바굴 떨어진다。

『아가 아가 눈떠 눈떠라。아가!』

이가튼 어머니의 비명을 드르며 칠성이는『에!』소리를 지르고 우둥퉁퉁 밧그로 나와버렷다。

비는 좍좍 쏘다지고 바람은 미친듯모라치는데 가다가 우르릉 쾅쾅하고 하늘이 울고 번개ㅅ불이 제멋대로 쭉쭉짓거나 가고 잇다。

칠성이는 묵묵히 저하늘을노려보고잇섯다 (곳)

어린애의 기침은 감기·폐염·기관지염 홍역·백일해의 위험신호임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십시요

백일해·홍역

「지밋신」은 담·기침약으로 구미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기침에잘듯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 약을 실허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써더욱 유효하며 더구나 조곰도 극약청분과 마취성분이 섞여잇지안음으로써 아모리 몸이 약한 어린애에게도 아무부작용의염여업시 절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는약임니다。

기침병중에도 가장고통이 심한 백일해·홍역의특효약으로 칭찬을밧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오며 병의진행중에 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 발작과 담·기침을곳개이게하며 구토와쇠약을방지하고밤잠을잘자게만들어줌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에만흔 밧튼기침·담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기침에 무슨약보다도 조선사람의체질에꼭마저서 잘듯는다고 칭찬과감사로환영을밧고잇사오니 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갓추워두시사 기침을하거든 한숙갈…잠재할때에한숙갈식…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세의 악화를방지하고 견쾌를빨으게만듭니다。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ノ七 鎌田逸元三郎商店

TY-K-37

戲曲 春香傳 (九)

【業無許上演】

柳致眞 作

房子 사람이란 말리면 경마제 피고 싶다는격으로 한번 관창이 되어보면 걸경이질도해 먹고 싶은거지。

卞學道 암 그렇지! 암해서사 제깐놈도입으로는 큰소릴 할는지 몰나도 별수없을꺼요。그놈도 사람이겠 그예 해먹고 말지。

求禮縣監 우리들하는 노릇을등치고 칭찬할는지 또 아나요 (夢龍은 아까부터 모여려진개다리소반에 콩나물대강이等한床바터 먹으며 守令들의 하는소리를 듯고잇섯다。듯고잇노라니 이食官들의 하는소리에 화가나서 참을수업다。실수하는체하고 소반을 뒤집는다。床우에잇던것이 다 업지러진다。)

夢龍 (화가나서)에이 비러먹을! 이노롬을 보아라。화가나서 못 참것다。(하며 두소매와 옷자락으로 얼친모주를부처다가 左右便에 뿌리는체하며 고마좌守令에게 함부로 대고 뿌린다)에이 떠려워! 먹을복이없으니 가진 실수를 다하는고나。에이 떠려워。(守令들모주人벼락을 피하노라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비킨다)

淸道郡守 어허 이것이 무슨짓이란말고。미친놈이로군!

漢陽府使 운봉, 이게 무어요? 우수것을 다 청하여다가 만적을 요란케 하니──

卞學道 (과자노리가 불쾌하며)이놈 대령 못나가겟니! 이 고이한놈!

夢龍 웬통으로 무천 내옷도잇소。약간뛰엇기로 그대도롱호령할건 무어요。

卞學道 원! 저런 주럽할놈보앗나!(방룡을 덜렁채며)거누구 업느냐?

使令 (오르루 나오며)예─이。

雲峰營將 (나서며)아니 그렇것이 아니오。

卞學道 그럴것이 아닐게 무어요。지금 곳 춘향이를 잡어다가 매려죽이는 구경도하여야 할터인데 저런미친놈을 두어서 파흥을 시켜?

求禮縣監 (가만히 내가 조흔 생각이 잇소。그러면 이러면 어떳소? 저놈이 양반의 자식은 분명한데, 젊은아이가 이러케 버른장머리가 업는것을 보니 제집안 람동이요。필시 무식도 할터이니 운人자를 내어서 쫏처버리는것이 어떳소 허허허……내의견이 그럴법 하지요。

漢陽府使 그것 조흔 생각이오 (一般에게)자, 좌중에 풍월할이잇소。우리 좌정하야 글한귀식 짓사이다。만일 글을 못짓는자는 큰벌을 쓸터이니 좌중이 그리 아르시오。

卞學道 춘향이를 때릴 차비도 다되엇슬터인데 새삼스럽게도 무슨 딴전이오?

漢陽府使 (卞學道에게귀人속말노 울하고) 운人자는 노픈高── 그리고 기름膏──이무자입니다。

(漢陽府使도지하니 淸귀온 紙筆을 夢龍앞에놋는다)

求禮縣監 문두에 귀천잇소。업은 지어보오。

(夢龍이 붓을든다)

淸道郡守 허허허……저걸에 또 글이라니!

卞學道 (글귀를쓰는夢龍에게눈을 잘못지으면 좌석에서 단박에 내쫏칠것이니 그리아러라。

夢龍 (비우스며)만일 내가 글을 잘지으면 내가본관을 몰아내칠까?

卞學道 에이! 죽대뻬를 놈!

夢龍 (글을지어 자리미테 업흘숨키며 붓을던지고 이러선다)나는 밥버서 가야겟소。먼대잇는 거지가 주흥을 포식하니 은헤 라망이오。홍압다시 봅시다。

(夢龍 슬히 退場。夢龍의 뒤를 하는양을보고 坐中은 통쾌하야웃는다)

求禮縣監 하하하……어떳소, 그거지 쫏처내는 의견이?

[illegible] 무식한 놈이란 하는수업군。

卞學道 참 명안이오!

求禮縣監 쌍놈을 잡끌데는 주먹으로잡어서는 못씁니다。글로 잡어야지。

(淸廳에오라소리가떠다)

雲峰營將 (夢龍이가 써두고간글을 자리미테서 끄어낸다。읽어보더니 별안간顔色이 변하여진다) 이 소리가 무엇까?(坐中이 긴장한다)

卞學道 무어요?

雲峰營將 이걸 읽어보오 (본관부들떨며글을 내려진다)

學藝

奇文選譯 (二)

우리를슬푸게하는것들

─안톤·슈나─크─

金晋燮

우룸우는아이들은 우리를슬푸게한다。庭園의한편구석에 發見된 小鳥의 屍體우에 初秋의 陽光이 떠러저 잇슬때。大體로 가을은 우리를 슬푸게한다。그리하야 가을날 비는 悽凉히내리고 사랑하는사람의 人跡은끈켜, 거의一週동안이나 혼저잇게될때。아모도살지안는녯宮城。그리하야 "壁"에서는 灰壁조각이떠러지고 一窓扉의삭은나무우에『아이씨여, 나는 너를사랑한다!』는 거의判讀키어려운文字를볼때。몃해고몃해고 지난後에 문득 도라간 아버지의 便紙가 發見될때。그곳에 쓰엿스되『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의 所行이 나에게 얼마나만흔 不眠의 밤을가지고왓든가!』大體 나의所行이란 무엇이엿든가? 或은하나의 戀愛事件, 或은 하나의虛言, 或은하나의 稚戱, 이제는벌서 그만흔 罪狀을記憶속에 차질바이업스되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문에心勞하신것이다。動物園의 不安焦慮가 또한우리를 슬푸게한다。鐵柵가를 그는 언제보아도 왓다갓다한다。그의 빗나는눈, 그의 무서운 憧憬그의 괴로운부르지즘, 그의 압발의 限업는絕望, 그의 밋친듯한揮舞, 이것이 우리를 말할수업시 슬프게한다。『휠덜린』의詩章,『아이헨도르프』의 歌曲。故鄕을다시 訪問하엿슬때 동모집을訪問하엿슬때。그리하야 그가이제는 우리러 볼만한 一의高官大爵이요, 或은또한혼 "工"藤士의몸으로서우리가朧圖하고愛讀한詩語를誦讀하든그一詩人밧게 못되엿다는理由에서 우리에게 손웃주기는하나 그러나 벌서 우리를아러 보랴 하지안는듯한 態度를 取하는것 가리 보일때。砲手의 銃砲에 죽어가는가슴의 눈초리 자스민의香氣。이것은 恒常나에게, 憂鬱한祖國의 老木이선내故鄕을생각게한다。公園에서 흘너오는고요한音樂。그것은 꿈가리아름다운여름밤에 모래자갈을 고요히빛고 지내가는사람사람의발자욱소리가들니고 한曲節의 秩活한美聲은 귀롭간지리는데 그러나 당신은 벌서 近엄룹이나 沈鬱한病室에 누어잇는몸이 되엿슬때。다라나는汽車가 또한우리를슬푸게한다。그것은 黃昏이 밤이되라는 지음에 불밝힌客車를 이 幽暗의 무리가리 시끄럽게 지나가고 엇던어엽분女子의얼골이 窓가에서 은은히웃고잇슬때 代議士諸氏의 講演集을 읽을때 憐憫코도 殷盛한 假面舞踏會로부터도라왓슬때。부드러운 아츰空氣가늘고소리업는비를 "戲"弄할때愛人이俳優와 인사할때共同墓地를 지나갈때 그리하야 문득『여기 十五의 弱年에 世上을 떠난少女클라라는 누어잇슴』이라는墓標를 읽을때。아、그는 어렷슬적의단짝동모의 한사람。날이면날마다 해면해마다恒常언제든지 都會의 집집의興味업는 등걸만 보고는지쳐버린사람。만흔敎師에 對한追憶。數學敎科書 오랫동안 愛人으로부터 便紙가아니올때。그는 病이나아닐까? 或은 그便紙는 다른사나이손에로 잘못가서 그는 시방 愉悅과愛情에넘치는모든詩句를 우스면서 읽고잇지나안흔가? 或은 愛人의心臟이 化石한것일까? 或은 그는 이러한봄밤을 다른어떤男子와의散步에 依해서 享樂하고잇는것은 아닐까? 첫길인 어느村酒幕에서 의외로운 一夜。深川물의쫄쫄거리는소리。겻헤房門이 열니고 속살거리는 音聲이들니며 낡아빠진헌時計가 새벽한時를 鈍濁하게칠때。그때 당신은 난데업는哀愁를느길것이다。나라가는 한마리의蒼鷺。秋收後의텅비밧과밧。婦人의泥醉。어렷슬적에상혈이잇는조고만 "地"方에만흔 해를지나서다시들녓슬때아모도 인저는벌서 당신을아는이업고, 일즉이놀든자리에는 움고거만한 屋舍들이 느러서잇스며 당신의 本家에든집속에는 알수업는 사람의얼굴이보이는데 下者가리놀나왓든 아카시야숲풀은 비여지고말엇다。이모든것은 우리의마음을슬푸게한다。그러나 우리를슬푸게하는者들, 엇지이뿐이랴! 五六月의葬儀行列。가난한老婆의눈물。倨慢한人間。바이올렛色과 黑色과灰色의 빗갈들。鈍聲의鐘。銅鑼。바이오링의G絃。가을밧헤 보이는 煙氣。山길에 흣터진뻬들기의 털。自動車에안진 出世한婦女子의좁은억개。훌너단이는歌劇女優들。세번째줄에서떠러진광대。집웅우에 떠러지는비소리。休暇의마주막날 事務室에서 處女의가는손까락이 때무든書類속에 움적어림을보게될때 滿月의밤의 개짓는소리『쿠누-트·함순』의 一三節 어린아이의 배곱흔모양 鐵窓안에 뵈이는 罪囚의 蒼白한얼골 茂盛한나무우에 떠러지는白雪──이 모든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푸게한다

漢詩

春雲─押花

桐岡考選

三等　大阪府　方秉準

海國春雲凝復斜
稜陰片片落人家
和煙乍擁墻頭柳
吹霧遙迷陌上花
艶陽縱被三分暗
碧岫還奇半面遮
向晩釀成旱天雨
桑生柔葉麥生芽

評曰 起句平凡而漸入佳境

漢詩募集

題 春雪
押 風
限 一月末日
薄謝進呈

文學修業에對한覺書

題材에對한所見 ⑤

車自鳴

그러나 所與된條件內에서 最善을다할것! 이것이 우리들 이 時代에處한사람들의 避할수업는 任務일 밧게업습니다。內的으로 生活의窮乏이 不絕히 딸아오고 外的으로 情勢의困難이 점점더 그度數를加重하는 이 不利한가운데서 眞實한文學의 建設을꾀하는것은 한荊棘의길임에 틀림업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文學에對한 以上과가튼 熱烈한熱情만 喪失치안코繼然히 벗치여나간다면 偉大한文學의 創造는 반듯이 일우워질것이라 밋어 疑心치안습니다。文壇의 沈滯도 이에서 어느程度까지 解消될것입니다。

主題의 消極的인것과 材料의 貧弱은 現下朝鮮文壇을 全幅的으로 支配하고잇는 痛弊입니다 어느作品을보나 題材에 强烈한 野心을 가진作品이 하나도업고 擧皆가 寒貴꺼리의 붓작난에不過한것들가티 보입니다。이것은오로지 作家의 怠慢不誠實에 基因한것으로서 크게憂慮할 現象이아닐수업습니다。어째서 創作이天職인 作家로서 그作品製作에잇서 이러케 熱意가업는가? 왜 좀더 雄大한 野心的인題材를 붓잡고 싸와볼 勇氣가업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作家들의 文學에對한 熱情의缺乏을 되푸리하지안흘수업습니다 生이 鬪爭이듯이 作家의 創作生活도 또한 鬪爭이 안일수 업읍니다。作家가擇한바 題材는 그作家의敵입니다。作家는 몰음직이 그 敵인題材를 征服함으로써만 그 所期의 創造的成果를 어들수잇을것입니다。强大한 敵을 征服하면 그戰利品도 多大한듯이 作家도 커다란題材를 그뭇곳으로 征服식힐때에 비로소 偉大한作品은 創造할수잇는것입니다。

文學을 課業視하든時代는 이미 博物館에 던저둔지오랫읍니다。眞實한文學의 大道는 어데까지든지 眞實한 鬪爭的態度로써만 걸어나갈수잇슬것입니다。

作家가 언제까지든지 微溫的인 淡淡한境地에만 自足하고잇는것은 그作家自身의 自殺行爲인것은勿論 나아가서는 文學自體의發展을 阻害함이되는것입니다。힘써 새로운境地와 危險한境地를 開拓할것……이것은 新時代의作家들의 義務일것입니다 視野를 넓히라는 口號도 여긔에서뿐 有美의成果를 맷슬것입니다。

이時代의作家는 모름직이 한개의 巨大한 野心家이어야할것입니다 巨大한 野心업는곳에 우리는 무슨巨大한成果를 바랄수는 업읍니다。그럼으로 作家도 또한 巨大한野心을 抱懷하는곳에 비로소 巨大한作品을 創造할수잇는 素因이 생긴다믿습니다。

『나폴레온이 칼을가지고 征服한것을 나는 붓을가지고 征服하겟다。』하고 豪語한 발작크의 意氣를 우리는 본받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그리하야 어데까지든지 野心的인態度로 힘써 雄大한 題材를 探擇하야 本格的인格鬪를 敢行할것입니다。虎穴에 들어가지안흐면 虎子를 捕捉할수는업습니다。危險한境地에 肉迫치못하면 人生의眞實은 맛보지못할것입니다。이 時代의作家는 맛당히 巨大한題材와 危險한境地에 肉迫함으로써 그文學生活의 本領을 삼을것입니다

材料의 업슴을 嘆息하는 作家가잇습니다。大體이作家는 視覺과 聽覺이 마비되엇습닛가? 人間의 社會生活이 存續되고 잇는限 材料의 缺乏云云은 痴人의 囈語에 지나지안습니다『女子가 卓上에 손을 집고잇는것만도 훌륭한 한개의題材다』라고한『헨리-젬스』의 말은 極端이기는하나 잘 人生生活의 機微와 文學材料의 豊富를 喝破한말입니다 材料는 現實의 大海는 그만두고라도 每日接하는 新聞의 社會面記事에도 수두룩합니다。作家가 材料의 缺乏을云云한다는것은 그自身의 文學的力量의 低劣함을 披瀝함이아니면 提示하는데지나지안습니다。우리는 우리의左右에 無限無量히 山積하여잇는 材料中에서 그玉石을 가리기만하면 그만입니다。文學者의 才能은 이것을 잘選擇하는데 잇는것입니다。

거듭말합니다。野心的인 態度로 巨大한題材와 危險한境地에 肉迫할것! 이것은 今世紀의 文學者의 모로가 되여야 할것이고。(끗)

尋牛莊散詩 (五)

萬海

─江 배─

저녁볏을 배불리 밧고
거슬리 오는 적은배는
외江의 맑은 바람을
한矢에 가득히 실엇다
구슬픈 노젓는 소리는
봄하늘에 사라지는대
江가의 술人집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한다

─落 花─

떠러진 꼿이 힘업시 大地의품에 안길때
애처러운 남은香氣가 어대로 가는줄을 나는 안다
가는 바람이 적은풀과 속사이는 곳으로 가는줄을 안다

×

떠러진 꼿이 굴러서 알지도 못하는집의 울타리새이로 드러갈때에
쇠잔한 붉은빗이 어대로 가는줄을 나는안다
부끄럼만코 새암만코 微笑만한 處女의입설로 드러가는것을 안다

×

떠러진 꼿이 날려서 적은 언덕을 넘어갈때에
가연슨 그림자가 어대로 가는줄을 나는안다
봄을 빼아서가는 惡魔의 발미트로 사러지는줄을 안다

─一 莖 草─

나는 솔나무 아래서 놀다가
지팽이로 한줄기 풀을 부질럿다
풀은 아모 反抗도 怨望도업다
나는 부러진 풀을 슯어한다
부러진 풀은 永遠히 이어지지 못한다

×

내가 지팽이로 부질느지 아니하얏스면
풀은 맑은바람에 춤도추고 노래도하며
銀가튼 이슬에 잠자고 키쓰도 하리라

×

모진 바람과 찬 서리에 꺽기는것이야 엇지하랴마는
나로 말매암아 꺽거진풀을 슯어한다

×

사람은 사람의 죽엄을 슯어한다
仁人志士 英雄豪傑의 죽엄을 더욱 슯어한다
나는 죽으면서도 아모 反抗도 怨望도 업는 한줄기풀을 슯어한다。

江流三十里 ─夕影 畵·文─(二)

漢江은 나려갈사록 넓어진다 조그만배는 물결에 부대기여서 탄사람을 어지럽게한다

世波에 부대겨사는 사람이『사공』에게 배를맥기고 뱃전에 팔을노코 콧노래하는 이호강에 그만한 괴롭이야 업는것이 섭섭할것갓다

그래도 돗다른 큰배는 서슴지안코 으젓이간다

漢江下流에는 奇巖怪石이잇다 바위틈바우니로 철럭어리며 돌고나는물소래『물달방』에 못드른것이 恨이다

저기서오는 帆船에서 노래소리가 난다 찌드러보히는 그뱃사람들의입에서 노래가 나오는것을보니 저게 고생사리라하여도 世上일을 알라하고 아는체해야하는 그生活을 버리고 나도 저배에뛰여 올라 밥짓는『떡거머리』가 되겟소─하고십다

間島의史的考證

在來로부터朝鮮과因緣깁다 (五)

韓忠爀

이에 朝鮮서는 北境問題를解決하기爲하야 距今五十四年前인 高宗二十年(淸光緒九年)에 魚允中을 西北經略使로 任하야 慶源郡에 駐在케하얏더니 魚經略使는 赴任即時로 鍾城人 金禹軾을 두번이나 白頭山에 보내여 定界問題의 實地上根據를밝히고 間島地方이 當然히 朝鮮領土인것을 淸國政府에 向하야 抗議하기始作하니 間島가 於是乎兩國에 橫在한 未決의큰 問題가 되엿다 그런데 淸國에서는豆滿江과 土門江은 同音異字이매豆滿江이定界碑에 記載한 土門江이니 豆滿江이國境이라主張함에 對하야 우리는 豆滿江外에 따로土門江이잇고 豆滿江은 定界碑에서 數十里밧게서發源하니 碑에적힌理가萬無하고 碑近處에發源한 一水는 東北으로流하야 土門사이로流下하니 이때문에土門江의 江名도생긴것이니 이江(淸松花江上流土門江)이 定界碑에表示한江인것을 主張하니 要컨대 定界碑文에써잇는 土門이『豆滿』인가 아닌가하는 爭論거리가되엿다 이에 高宗二十二年(淸光緒十一年)에 兩國이 使臣을 派遣하기로되야 德源府使李重夏 從事員趙昌植이 淸國使臣德玉 賈元桂로부터 會寧에會同하야 談判을開始하니 淸使는文書로서立證하고 우리代表는 實際가 第一이라하야 定界碑實地檢分을主張하야 마참내 定界碑에 當到하여서는 淸國使臣들도 意外의 感을가지고 語塞하야今番은 다만査驗하야 볼뿐이라하고 다시아무말도못하고 周章狼狽하야 도라가게되엿다 처음國境問題가發生할時에韓國政府에서는 問題가解決될때까지는 新移住者禁斷處罰하라고 江邊各守令에게命令하니 鍾城府使가上報하되 處罰하라하면 全部民을모다 處罰하여야되겟스니 禁斷이難하다하얏다 이로써보면 當時國境人民의根氣가 자못强하야 定界問題를 어듸까지든지 事實대로 貫徹解決하려함을알수잇섯다 한편淸國에서는 朝鮮人의移住가 增加할수록 더욱더욱自國移民을 勸奬하엿다 그後에도 兩國間에 定界談判이 數次 繼續하얏스나 解決을 보지못하고 高宗二十五年談判時에는 淸國側에서 强壓的으로 解決하려하야 定界標木數十個를 背에싣고 豆滿江邊處處에 建立코저하거늘 우리代表李重夏가 極力反對하야 中止케하고 實地檢査로 白頭山上에 當到하야서는 甘言利說로 自己들의主張대로解決하려하되 終是不應하니 乃終에는 威脅을加하려하거늘 李重夏가大聲叱責하야日 我頭는斷할지라도 國土는寸土라도 不讓할터이니 君等은自爲하라하니 彼等도 할수업시 標木을싣고 空還하얏다 其後에는다시 談判도업시오다가 高宗三十二年(淸光緒二十一年)乙未에 移住民들의國境問題를 速히 解決하야달나고 政府에 願懇하니 高宗光武六年(淸光緒二十八年)에 政府에서李範允을 視察員으로 間島에 派遣하고 翌年에 李範允을 間島管理使로 任命하니 範允이私砲兵을 養成하며 租稅를 徵收하니 京城과 北京에서 外交問題가 긋칠날이 업다가 高宗光武九年(淸光緒三十一年 日本明治三十八年)에 韓國外交를 日本에委任하매 韓淸間의 外交問題가 日淸間의 外交問題로 되엿다가 隆熙元年(明治四十年光緒三十三年)에 統監府 出張所를龍井村에 置하고韓國內部에서 派遣한官吏와 合勢하야 諸般行政을始作하니 淸國도 此에應하야 吉林邊公署를 設하고 官吏와軍隊를派遣하야 對抗하니 間島問題는더욱 紛爭이甚하야젓다 이때에日淸間에는 새外交問題가 하나생겻스니 그는 日露戰爭의結果 長春 大連間 鐵道를露國에서 引受한 日本은 이鐵道를 장利用하라면 支線으로 奉天 安東縣間에 安奉線을 敷設하야 韓國京義線과 連絡하는것이 第一緊要한問題인데 淸國이 그鐵道敷設權을 容易히 許容치아니하는것이 큰頭痛거리가 되엿다 이安奉線敷設權問題와 前記한 間島問題解決에잇서 淸國政府는 多大한 術策을썻다 當時淸國의 處地로보아서 東洋平和를爲하야 露國과交戰하야 戰勝한 日本에 對하야 安奉線敷設權을 絶對不許할수업는것이事實이며 또日本도 鐵道敷設權을 어드리라고自信하엿슬것이事實이다 그러나 元來外交에 能한淸國의일이라 內心에는 間島問題에對하야 自己들의主張이 無理한을 번연이알면서도 日本과 鐵道敷設權問題를 解決하는機會에 間島問題를 幸여 有利히解決코저하야 鐵道問題를 가지고 頑强히主張不讓하야 時日만遷延하니 日本外交官은 鐵道問題를 一日이라도 急速히解決함에만 熱中한結果 及其也엔 淸國이 勢不得已讓步할것을 豫測한 節이엿든지 間島問題를 犧牲하야써 交換條件으로 鐵道問題를 締結하게되고 間島協約을 締結하야 淸國의主張대로 豆滿江으로써 兩國의國境을定하니 時는 隆熙三年(明治四十二年 宣統元年)九月四日이엿다

間島協約抄

第一條 日淸兩國政府는 圖們江(곳豆滿江)을淸韓兩國의國境으로하고 江源地方은 定界碑를 起點으로하야 石乙水로써兩國의國境을삼는事를聲明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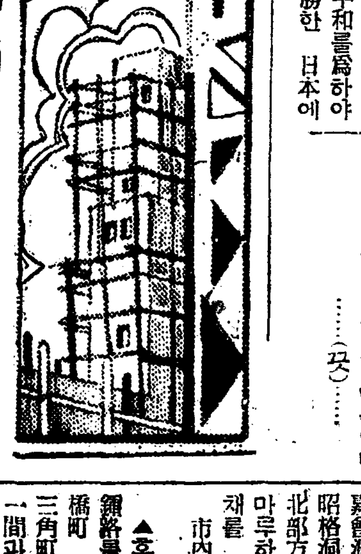
第三條 淸國政府는從來와가티圖們江北의墾地에서 韓民이居住함을承認함 그地域은別圖로써 此를示함

(此外五個條項略)

右間島協約의條文을보면 아무리 淸國도 매우 거북하엿든形跡이 歷歷하다 定界碑에 明示한 土門江을 人爲的으로 豆滿江으로 變改하자니 적지아니한心勞를쓴것이 번연이보인다 條文에豆滿江이라고쓰자면 定界碑에對하야 惶悚한일이오 土門江이라고쓰자면 無意味한일인故로 土門이라도相似하고 또字形의一部라도 近似한江名을 新作할수밧게업서 엉터리업는 圖們이라는 急造江名이생겻다 그리하야도 未安點이 풀니지아니하야 圖們江(곳豆滿江)이라고條文에記載하얏다

이와가치 奇怪罔測한急作江名을標準하야 北朝鮮의 終端驛인 南陽驛越便에잇는 檜幕洞을滿洲에서 圖們이라고 改名하야 滿洲初入口의 關門驛까지 맨들엇다 ……(끗)……

◇……올림픽彫刻……◇



産兒調節의 優生學的考察 ②

文仁柱

조흔素質을가진者라도 適當한敎育을밧지안흐면 그良好한本質을 낫타내지못할것이다。敎育의힘으로 良好한 素質을 빗내는것은 先天的으로 良好한素質을 所有하야잇기때문이다。先天的으로 劣惡한 素質을 가진者라면 敎育의힘으로써 多少는 나흘지몰으나 그本質까지는곳칠수업것다。玉을다그면닥글사록빗치나瓦는아모리닥드라도 玉이될수업다。先天的素質이 重要한理由도이와갓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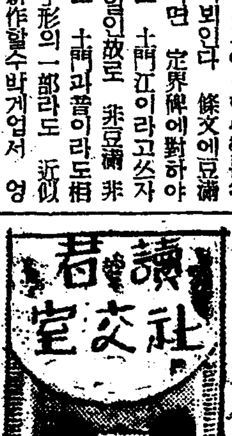
優生學의 實施는 人間에잇서 優秀한素質을가진者의 繁殖을獎勵하며 劣惡한素質을가진 者의 繁殖을防止하는데잇다。劣惡素質者의 防止를爲하야는 各個人에게 優生學에對한 智識普及이식허 劣惡者로하야금 受胎할豫防하도록할것이니 即, 産兒制限을 實施해야할것이다。産兒制限의 方法으로는 여러가지가잇스나 그中에 斷種法이잇스니 이것은

國法으로 制定하야 惡質의 繁殖을 防止하고저합니다。

그러면 産兒制限을 必要로할만치 劣惡한素質을 가젓다고生覺되는것은 어떠한것들인가。

먼저 精神病이다。精神病은그疾病그것이 直接 子孫에게 遺傳하는일은 極히稀少하다고生覺되나 將來 精神病이 發生하기쉬운素質이 遺傳되는일이다。精神病患者의 過半數는 그兩親또는祖父母等에서 精神病의 遺傳的關係를發見할수잇다。그럼으로 精神病的素質이 遺傳할可能性이잇는 重症의 精神病者로하야금 産兒制限을實行케하는것이 當然하다고生覺한다

다음은 酒精中毒者이다 男子또는婦人이 慢性酒精中毒이되면 그生殖細胞인 精虫 卵子가 侵害됨으로 受胎하면 白痴 低能 癲癎等의劣等兒를 出生하게되는일이 만흠으로 産兒를制限할必要가잇다고 생각된다。그러고 또 一時的酒精中毒 即 大醉한때에도 受胎하면 또한 胎兒의素質에 影響한다。그럼으로 이런때에도 一時的으로 適當한避姙法을實行하야 受胎를豫防함이 賢明한일일것이다。



▲二月十八日分社交室欲求生에게左記와如히通知하나이다 大正六年陰六月二十四日은陽曆으로八月十一日이고月建은丁未이며 日辰은乙酉인데戊寅時외다多幸히 其年曆이잇서通知합니다

▲求貸家 本人은會社員 齋洞 嘉會洞 樂園洞 益善洞 慶雲洞 昭格洞 諫洞 松峴洞 臥龍洞 等北部方面外 傳貰나月貰로 房둘 마루하나 부억 잇는깻긋한집한채를 至急히 求함 市內仁義洞一二九ノ一 觀山亭人

▲혼처사는 젊은 女子이외다 鍾路를 中心으로한 安國洞 武橋町 進進洞 光化門通 茶屋町 三角町 附近에 안방 건너방各一間과 마루 부엌잇는 五六間짜리로 전채집이나 사랑채나從容한집을 求하오매 누구나알려주시면 薄謝를呈하겟습니다 市外彰義門外付岩里二五一番地 金明淑

▲이方面 先輩에게 뭇습니다 小生은 中學校第四學年까지修業한者이온데 童話와童謠를 硏究하고자하옵는바 어떠한方法과書籍은 어느것을 보아야조흔지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市內鍾路三丁目一五三 金 剎 洙

▲社交室에뭇습니다 저는이십오세의가혼녀자입니다 배움에차저서 이곳에오바 年令은이십오세學力은 맵校五年終了程度로써 이에(年齡)關치안코, 實際女子中等敎育을하는學校를下敎하여주시옵을 바람니이다(소귀양)市內玉仁洞一二一번地 孫貴岩

新刊紹介

▲音樂 三月號 京城府壽松洞三六 音樂社發行 振替京城二二一五三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節制 第七號 京城府仁寺洞九四 朝鮮女子基督敎節制聯合會發行 一部二錢

▲朝鮮醫報 第五卷三號 京城世富蘭偲醫學專門學校病理學敎室內 朝鮮醫師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八二二番 定價五十錢

▲룡천검 第三十五號 京城府堅志洞八〇 룡천검社發行 定價十五錢

▲카톨릭少年 創刊號 滿洲國間島省龍井市 카톨릭少年社發行 定價一部八錢 送料一錢

▲聖火 四月號 京城府苑洞一七 聖火社發行 振替京城三三七番 定價十錢

▲最近十年間 朝鮮總督府普通文官試驗問題集 附 普務考試問題 京城府永樂町一丁目七九 朝鮮受驗硏究社發行 振替京城一〇九〇番 定價八〇錢 送料(書留十六錢)

黃昏 (52)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옥기는마음 (四)

경재의 마음은 확실히 려순에게로 기우러지고 잇다。

깃부면서도 괴롭다。괴롭고、괴로우면서도 깃븐──이러한 알수업는 심정에 그는 지금 사로잡혀 잇다。

동시에 그는 나날이 현옥에게서 멀어지고 잇다。현옥에게서 멀어지는 길은、말하자면 려순에게로 갓가워지는 길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려순이 때문에 현옥이와 멀어지는것은 아니다。또는 이와반대로 현옥이가 실혀나기때문에 려순이와갓가워지는것도 아니다。

현옥은 얼골이 조흔편은 아니엇지만 그때문에 진실으로그를 사랑하지 못하는것도 아니요 려순은 현옥이보다 훨신 아름다운편이엇지만 그때문에 그를 사랑하는것도 아니다。

또 현옥은 경재의 성격과는 반대로 잣갑스럽고 경솔한점이 만헛지만 그때문에 그를 갓가히 할수업는것도 아니요、려순은 경재의 성격과가티 결곡하고 탐탁하엿지만 그때문에 그를 갓가히 하는것도아니다。

그러한 일면의 리유、즉 장점 또는 단점은 인간을 전적(全的)으로 평가(評價)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고잇다。그러나 그러타고 그보다 더철저한 조건을 일일히 차자내어가지고 혹은 실혀하고 혹은 사랑하는것도 아니다。

누가 만일 그에게、현옥을실혀하는 리유를 뭇는다면 그는 결국、현옥은 인간미(人間味)가 부족하다는것이다고 대답할것이다。그러나 누가 만일 그에게 려순을 조아하는 리유를 따진다면 그는『려순은 인간미가 풍부하다』하는 한마듸로 결론지어버리지는 안흘것이다。

려순은 현옥이보다 훨신 놉흔 인간미를 가지고잇는것이사실이나 다만 그것뿐은 아니다。인간미라는 막연한 한말로써표현할수업는 오직 마음으로서만 느낄수잇는 언어를 초월한 여러가지의 미점(美點)을 가지고잇다고 경재는 생각하는것이다

한편 려순이도 발서부터 경재에게로 만히 끌리고 잇다。처음 경재와 현옥의사이를알게되엿슬때에 그는、거게대하야 이런것 저런것을 죄다 알고십헛스나 그것을 일일히 물어보기에는 아직 너무 먼거리에잇섯다。

그러다가 두사람의 관계를확실히 알게된 최근에와서는 그것을 뎌건히 밧고 못든때에서 일종의 공포와 시기를 느끼면 만큼 발서 갓가운 거리에 와버렷다。결국 그들의 관계를 떠알필요가 업섯다。

오직 알고 십흔것은 경재의 태도 하나이다。물론 그도 어느정도 까지는 경재와 심정을 알고 잇섯지만 좀더 마음밋흘 잇는대루 두드려보고 십헛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부자연하게 경재를 자기에게로 끄러오고는 십지안헛다。의젓하게 제진정으로 걸어오기를 바랄뿐이다。

려순은 자기가 마음으로 바라는 그사나히를 자기가 끌어서、비로소 파동적으로 옹지기는 그러한 졸한 인간으로 떠러트려주고 십지는 안햇다。

말하자면 두사람은 극히 자연스러히、그러나 가장 갑히 융합하는 그길을 것고 잇는것이다。

그러나 두사람의생각은 처지가 다르니만치 차이가 잇지안흘수 업다。경재는 려순이보다 훨신 복잡한심경에 노혀잇다。

언제든지 드러나고야말 자기들의 관계가 장차 어떠한 파문을 그릴는지? 그리고 자기는 려순이보다 얼마나 사정에 얼켜잇느니만치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지?를 경재는 생각 안할수 업다。

그러나 비교적 운혜바든 생활가에데서 인생고와、녀난(女難)을 겨거보지못한 그는 그들의 청춘행로(行路)를 가르막는 거츤 파도를 그려보면서도 한편 그설낸물결을 헤치고나갈상쾌한 생각을 품구고 잇다。

려순의 압헤 안저잇다는 과 오직하나인 려순에게가는 신념이 선명해진때에 어려한 의협심과 모험심을느는 모든 거정과근심을 일순에 울리처버리고 마는것이다。

어떠한 난관에 가치라도그것이 버서나기 어려우면 어려우니만치 허칠때에 오는 쾌감은 더욱큰것이다。경재는 자기주위에 얼컨석정을 내다보며이런생각을 하고잇다。

그가 바야흐로 필승(必勝)을 기(期)하는 군사와가튼 쾌심한 계를 드려다보라고 할때에 려순은 신문지로 그것을 가리며상글 살끗 웃고 잇다。

그리하야 그들의 이야기는 끗칠줄을 모르드시 밤느즐록 계속되고 잇다。

점차소리도 끈허져가든 도회의 밤도 깁허저서 고요하다。

라디오

二日 (木曜)

◇午後六時 피아노獨奏 李慶元
◇同六時二三分 趣味講演『森林의傳說』 李模殷
◇同七時三〇分 講演『記念植樹日을마지하면서』 京畿道産業部長 尹泰彬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沈淸歌中『船人따라가는데』』 林小香 鼓手 鄭海是 伴奏 金德鎭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방아타령 三、사발가 四、도라지타령 六、청춘가 六、노래가락 李眞紅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이야기
◇同八時三五分 民謠獨唱
◇同八時五五分 (東)浪花節

三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〇分 吹奏樂 壯蘆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셀니크作曲外二曲
◇同六時 童話『토끼세마리』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講演『神武天皇祭를當하야』 曺在浩
◇同七時三〇分 歌謠 一、羽調 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界樂 盧鳳桃 金蘭珠 洋琴 金相淳 短簫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室內樂
一、소나타……晩許作曲 第一樂章…라ー르고 第二樂章…비바ー체 第三樂章…아다지오 第四樂章…프레스토
二、소나타…루아이예作曲 第一樂章…그라베ー 第二樂章…도코라르고 第三樂章…안단테 第四樂章…알레그로
바이올린 J 李스 쫄루ー트와오보이 R H블라이스 피아노 JB스투데니
◇同八時三〇分 古談『刀劍勸婚』 李雲林
◇同九時 놀냥外 一、놀냥 二、알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東) 雅樂
◇同二時一〇分 (大) 獨唱과合唱
◇同六時 (東) 라디오·스켓취
◇同六時二五分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謠曲
◇同八時五分 (大) 神樂舞囃子獨奏
◇同八時二〇分 (東) 琵琶
◇同八時五〇分 (大) 義太夫

四日 (土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山念佛 四、靑春歌 五、아리랑 六、사발가 七、노래가락 八、唱夫打令 笑琴 池龍九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三時一五分 通信朗讀講座(九) 金炳潛
◇同六時 兒童劇『그날의싸움』 一景 —鄭英讀作及演出— (配役) 아버지…白樂鎭 어머니…金信鎬 敬淑(그의딸)…崔玉順 劇員(경숙이의동무)…鄭貞子 朴서방…文烈 料理장사…李基東 店員…朴浩巨 新興藝人會 作曲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朝鮮中央日報編輯局長 李寬求
◇同七時三〇分 吹奏洋樂의밤 —本町一丁目어구로부터 中繼— 一、行進曲『偉大한武人』…海軍軍樂隊作 二、序曲『祭禮의歡喜』…江口作 三、圓舞曲『金과銀』…레하르作 四、舞曲『龍舞』…海軍軍樂隊作 五、組曲『英國民謠集』…윌리암스作 六、軍歌(가)바다의守護…江口作 (나)精銳한我海軍…海軍軍樂隊作 七、洪牙利狂詩曲第二番…리스트作 八、軍艦行進曲 九、君が代 練習艦隊軍樂隊
◇同八時一〇分 (東) 管絃樂(通俗名曲定期演奏第四回) 新交響樂團 『交響組曲『세헤라자ー드』 바이올린獨奏 윌리프레——림스키·코르사코프作曲—指揮 니코라이시페르블랏드 一、바다와신드밧드의배 二、칼렌더王子의이야기 三、젊은王子와公主 四、바다드의祭禮、海船難破、大團員
◇同九時 獨唱과二重唱 一、레너獨唱『悲歌』…마스네作曲 二、소프라노獨唱『山고개』…安基永作曲 三、레너獨唱『그때에날 생각하리라』…블프作曲(歌劇집이女子中에서) 四、소프라노獨唱『폴로린도여』…스칼라티作曲 五、레너獨唱『作別』…安基永作曲 六、소프라노獨唱『오·마뽀뇨』…愛蘭民謠 七、레너獨唱『알려비빠의아츰노래』『歌劇써빌의理髮師中에서…로씨니作曲 八、二重唱『降雪』…스미프作 安基永 金顯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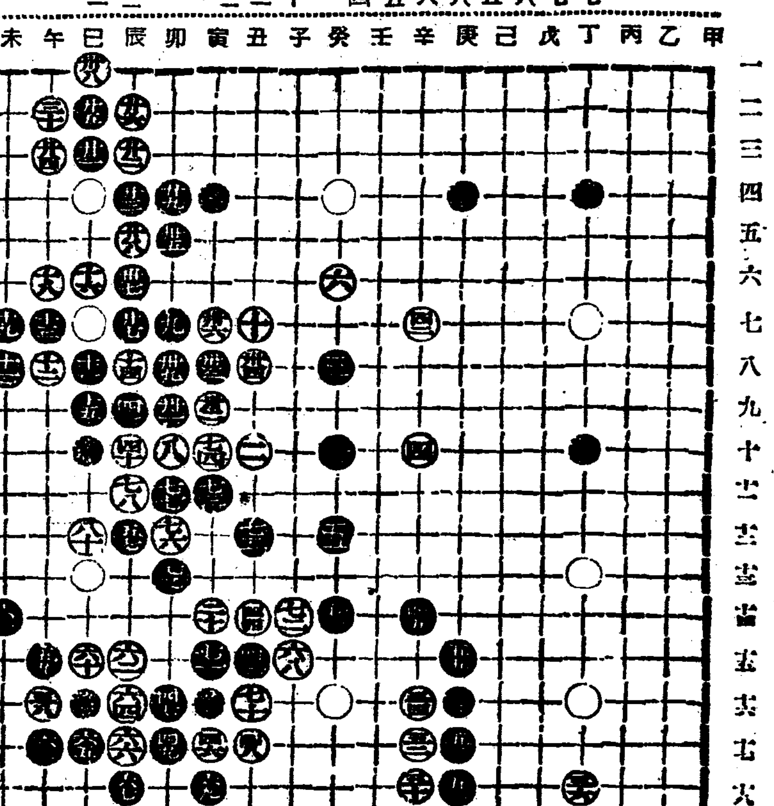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婦人의時間
◇午後〇時〇五分 레코ー드
◇同二時〇分 (東) 婦人의時間
◇同六時〇分 (大)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同七時三〇分 (東) 講談
◇同八時〇分 (東) 小唄
◇同八時〇分 (東) 管絃樂
◇同九時〇分 (大) 時事解說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蔡極文
黑先 柳讚河

●六五 巳의十七
○六六 辰의十七
●六七 辰의十八
○六八 子의十五
●六九 寅의十八
○七十 丑의十六
●七一 寅의十五
○七二 子의十四
●七三 寅의十一
○七四 寅의十
●七五 丑의十二
○七六 卯의十二
●七七 卯의十一
○七八 辰의十一
●七九 卯의十三
○八十 巳의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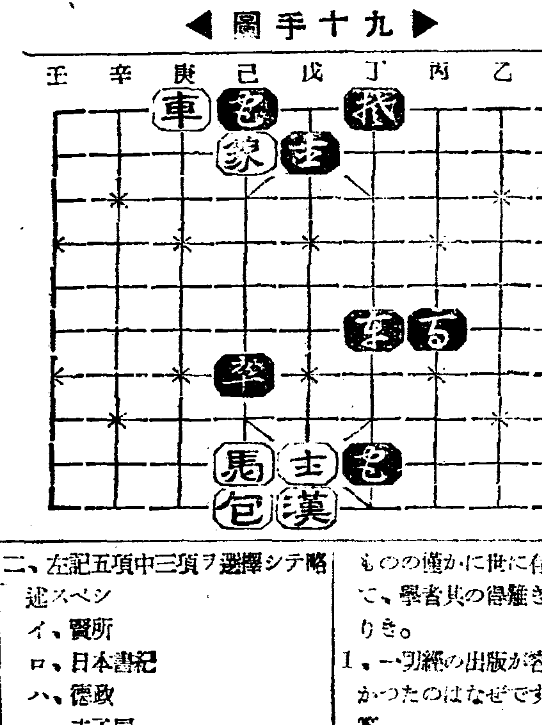
◆對局者談 此中結構는 彼此包圍心이 濟在하엿스나 尖銳한 方策은 頓無하다 白은 黑耳角破綻策이 錯誤됨으로 自衛連絡에 不過하고 黑도 白을 冲斷하야 終末成功하고 後面에 危險性이 隱隱함으로 아즉 斟酌中이나 逐次善變을 한번 볼지어다

❈曆❈ 四月三日 (金) 三月建壬辰小(十二日) 乙卯·水·亢·建
●祭祀裁衣에宜함
●淸明四月五日(舊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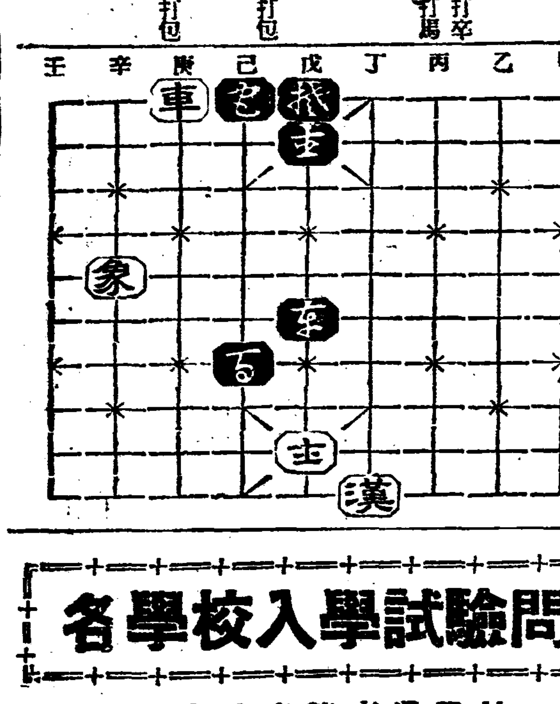
李在鳳 (漢先 手一兵減) 對 金漢榮

◀九十手圖▶



◀百手圖▶

己七包―己三打卒
丁九象―己九打馬
己三象―辛五
丁六象―戊六
戊十漢―丁十
丁二象―戊一
戊九士―己九打包
丙六象―丁八
己九士―戊九
丁八象―己七打包



…半島의舞姬… 崔承喜를 主演으로 今日出海의 監督아래 製作된 新興키네마의 作品으로서 東京과京城서 同時에 封切키로되얏다。그 筋書는 崔承喜自身의 出世顚末을 多少 潤色한것이니 그女主人公의 이름조차도 白重姬라고 해서 그의傲似한音을取하얏다。

各學校入學試驗問題

京城高等商業學校

國語 (其の一)

一、次の傍線の部の意味を述べ、且つ全文の要旨を簡單に記せ。
イ我等は自由人として理想を求める。我等は理想の欣求者である而して理性によつて理想を確立せんとする。哲學の本意は此處にあるのである。これ即ち我等が止むに止まれぬ要求に動かされて學に志す所以である。既に此の覺悟を以て進まむとする以上は日常の生活に於ても此の覺悟を忘れてはならぬロ我等は物質化して時空の間に輪轉するものとなつてはならぬハ我等ハ動もすれば日常生活を以て些事となし、多く顧みるに足らぬものなるかの如くに誤解し、爲すべき日課もなさず、徒消暑を移すが如き傾がある。併しながら、これは我等が本來の覺悟に乖戾するものである。
イ、
ロ、
ハ、
ニ、
ホ、
要旨
二、次の＝線の語を說明し、且つ一線の部を解釋せよ。
或日義家朝臣、宗任を具していで行きけり。主從ともに狩裝束にて靭をぞ負へりける。廣き野を過ぐるに狐一匹走りけり。義家靭より鏑矢を拔きて狐を追掛けけり。射殺さむは無慚なりと思ひて、左右の耳の間をすりざまに射たりければ、箭は狐の前の土に立ちにけり。狐その箭に防がれて倒れて、やがて死にけり。宗任馬より下りて、狐を見上げて、『箭もたたぬに死にたり。』といひけ…て、義家見て『臆して死にたるなり。殺さじとてこそ矢はあてね。今生き返りなむ。その時放つべし。』といひけり。
1、
2、
3、
4、
5、

國語 (其の二)

三、次の片假名の語に漢字を宛てよ。
或クモ(　)つた冬のヒグレ(　)である。私は橫須賀發上り客車のスミ(　)にコシ(　)をおろして、發車のフエを(　)待つてゐた。とうにデントウ(　)のついた客車の中にはメヅ(　)らしく私のホカ(　)に一人もジヨウキヤク(　)はゐなかつた。ソト(　)をノゾ(　)くと、ウスグラ(　)いプラツトフオームにも、今日はメヅ(　)らしく見送りのヒトカゲ(　)さへコト(　)をタ(　)つて、ただヲリ(　)に入れられたコイヌ(　)が一匹、時時カナ(　)しさうにホヘタ(　)てゐた。これらはその時の私のココロモチ(　)と、フシギ(　)な位ニ(　)つかはしいケシキ(　)だつた。私のアタマ(　)の中には云ひやうのないヒラウ(　)とケンタイ(　)とが、まるでユキグモ(　)リの空のやうな、どんよりとしたカゲ(　)をネトト(　)してゐた。

代數 中校卒業生ニ限ル

(1)次ノ聯立方程式ヲ解ケ。
$2x^2+2xy-4y^2=10$
$4x^2+5xy+y^2=45$
(2) $(a^2+b^2)x^2-2(ac+bd)x+c^2+d^2=0$ ノ根ガ實數ナラバ、二根ハ相等シキコトヲ證セヨ、但a,b,c,dハ實數ナリトトス。
(3) 二等邊三角形ABC ノ底邊BCハ5寸,高サハ6寸ナリ。CヨリAB＝垂線ヲ引キ,其足ヨリAC＝垂線ヲ引キ,又其足ヨリAB＝垂線ヲ引キ,順次斯ノ如ク垂線ノ足ヨリ他ノ邊＝垂線ヲ引キテ限リナカラシメバ,此等諸垂線ノ長サノ和如何。

幾何 上同

(1) △ABC＝於テBE, CDヲ對邊ニ引ケル垂線トスレバ, $BE>CD$ ナルトキ $AB>AC$ナリ。
(2) △ABCノ内心ヲOトシ, AO, BO, COノ延長ガ其外接圓周ト交ル點ヲA', B', C', トスレバ,Oハ△A'B'C'ノ垂心ナリ。
(3) AB=m, AC=nヲ與ヘテ∠Bガ∠Cノ二倍ナル三角形ヲ作レ, 但シm,nハ與ヘラレタル長サトス。

商業算術 商校卒業生＝限ル

(1) 原價￥13.20ノ商品ヲ定價ノ2割引＝賣却シテ原價ノ2割＝當ル利益ヲ得タリト云フ。定價ハ何程ナリシカ。
(2) 或人金￥5700ヲ年8%,一年一期ノ複利ニテ 4ケ年間借入ルレバ 幾何ノ利息ヲ 支拂フベキカ。
(3) 神戶K商ハ倫敦L商＝對シ今日受取ルベキ £750ノ債權アリ。下記條件＝於イテ，今日L商ヲシテ90日拂ノ手形ニテ送金セシムルト，K商ガ一覽後 4ケ月拂ノ逆爲替ヲ取組ムトハ，K商ニトリ何レガ何程ノ利益ナルカ。

倫敦／神戶	90日拂	1/2 $\frac{7}{16}$
神戶／倫敦	4ケ月拂	1/2 $\frac{7}{8}$
倫敦 市場金利	年	4%
神戶 市場金利	日步	2錢
兩地間郵便日數		20日

神戶ニ於ケル手形賣却手數料 $\frac{1}{8}$%

商業簿記(其ノ一) 商校卒業生ニ限ル

(一)某株式會社ハ某期末決算ニ於テ下記ノ殘高試算表及ビ貸借對照表ヲ作成セリ。因ツテ兩表ニ基キ決算整理事項ヲ推定記載シ且ツ損益計算表ヲ調製セヨ(表略)

商業簿記(其ノ二)上同

(二)手形債權ノ發生及ビ消滅＝關シテ起リウル取引例ヲアゲ、且ツソノ仕譯ヲ示セ。

歷史

一、明治時代ニ於ケル日鮮ノ重要交涉ニ就キテ說明スベシ
二、左記五項中三項ヲ選擇シテ略述スベシ
イ、賢所
ロ、日本書紀
ハ、德政
ニ、寺子屋
ホ、岩崎彌太郎

英文和譯 (其一)

If bad manners are infectious, so also are good manners. There is no one who can be disagreeable with sunny people. It is with manners as with the the weather. "Nothing clears up my spirits like a fine day," said Keats, and a cheerful person descends on even the gloomiest of us with something of the blessing of a fine day.
【解答】

英文和譯 (其二)

Who would care to live in London if it were deserted by its inhabitants, and if the horn of a motor-car were never to be heard in its streets? It would be like a hideous city of the dead, and you would no more think of going to it than of going to the Sahara.
【解答】

英文和譯 (其三)

From the moment when France declared war against England Pitt's power was at an end. His pride, his immovable firmness, and the general confidence of the nation still kept him at the head of affairs; but he could do little save drift along with a tide of popular feeling which he never fully understood. The very excellences of his character unfitted him for the conduct of a war. He was in fact a Peace Minister.
【解答】

和文英譯(其一)

今年の冬は近年にない寒さでしたが、降雪が少くて殘念ながら思つた程スーキに行かれませんでした
【解答】

和文英譯(其ノ二)

けさ早く、家族の者がまだ眠つてゐる間、私は獨り起き出て庭に出た。けふの試驗を思ふと、ゆつくり寢ては居られなかつた。
【解答】

和文英譯(其ノ三)

知識があればある程、人間は一層成功し得る望の多いことは勿論だが、品性がなくては人間の知識は有害無益である。
【解答】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

國語科講讀(一)

一、左の文を讀んで後の問に答へなさい。
一切經は、佛敎に關する書籍を集めたる一大叢書にして、此の敎に志ある者の無二の寶として貴ぶところなり。しかもその卷數幾千の多きに上り、これが出版は決して容易の業に非ず。されば、古は、支那より渡來せるものの僅かに世に存するのみにて、學者其の得難きに苦しみたりき。
1、一切經の出版が容易の業でなかつたのはなぜですか。
答
2 『其の得難きに』の『其の』は何をさしてゐますか。
答
3、『此の敎』とは何をさしてゐますか。
答
4、一切經とはどんな種類の書籍ですか。
答
二、左の言葉のわけを書きなさい
名狀し難い（
新紀元を劃す（
枚擧に遑あらず（
骨肉も及ばぬ（
喊喊の聲をあげた（
不歸の客（
三、次の○の中に適當な漢字を入れなさい。
○朗。 復○。 ○宣。 供○ 怪○。

國語科講讀(二)

一、次の語に讀みがなをつけなさい。

修行	野邊
手續	紺靑
著書	次第
氣配	由緒
莊重	健氣

國語科講讀(三)

一、次の文中の片假名(かたかな)のところを漢字に改めてそれぞれ(　)の中に書きなさい。
近來は文明人にセツ(　)するケツカ(　)としてだんだん洋式のカオク(　)も出來ればヨウフク(　)を着るものも多くなつた。今日では我が國でマウ(　)けた學校などもあるから子供は日本語をジヨウズ(　)に話しレイギ(　)などもよくコヽロエ(　)てゐる。彼等土人の最もトクイ(　)とすることは舟をアヤツ(　)ることである。
二、左の十語の中から適當な語を選んで、次の文の○○の中にそれぞれ書き入れなさい。
討議 國家 作成 幸福 親子 生活 可決 秩序 規則 作業
法律ハ○○トイフ共同○○ヲ、○○アリカツ○○ナモノニスルタメノ○○デアルカラ、イヤシクモ國民タル者ハ必ズ之ヲ守ラナケレバナラヌ。

國語科講讀(四)

三、次の言葉をつかつて一つづつ短い文を作りなさい。
目覺しく（
思ふ存分（
一しほ（
器用な（
すげなく（
四、次の{でつらねた二つの言葉の中、正しくないと思ふ方を消しなさい。
{成績 成續} {組織 組識} {記憶 記億} {總督府 總督府} {蜜接 密接}
一、左の文を讀んで後の問に答へなさい。
一切經は、佛敎に關する書籍を集めたる一大叢書にして、此の敎に志ある者の無二の寶として貴ぶところなり。しかも其の卷數幾千の多きに上り、これが出版は決して容易の業に非ず。されば古は、支那より渡來せるものの僅かに世に存するのみにて學者其の得難きに苦しみたりき。
1、一切經の出版が容易の業でなかつたのはなぜですか。
答
2、『其の得難きに』の『其の』は何をさしてゐますか。
答
3、『此の歌』とは 何をさしてゐますか。
答
4、一切經とはどんな種類の書籍ですか。
答
二、左の言葉のわけを書きなさい
陰に陽に（
物笑の種（
目安になる（
こよなき知遇（
一存にはまゐりませぬ（
眼中に置かず（
三、次の○の中に適當な漢字を入れなさい。
逐○。 刹○。 慈○。 ○養。 ○擊。
四、次の語に讀みがなをつけなさい。

修行	野邊
手續	紺靑
著書	次第
思召	緊張
養生	硫黃

國語科講讀(五)

一、次の文中の片假名(かたかな)のところを漢字に改めてそれぞれ(　)の中に書きなさい。
だーういんはキヨウミ(　)を覺えると、あくまでそれにこるセイシツ(　)で、一度何かをし始めたら、マンゾク(　)なケツクワ(　)を得るまでは決してチユウト(　)でやめなかつた。しかもニチジヤウセイクワツ(　)は極めて規則正しく毎日きめたジカンワリ(　)通りにシゴト(　)を進めて、たとへ十分、十五分のヨカ(　)でも無益にツヒヤ(　)すことがなかつた。
二、左の十語の中から適當なを選んで次の文の○○の中に語をそれぞれ書き入れなさい。
討議 國家 作成 幸福 親子 生活 可決 秩序 規則 作業
法律は、○○といふ共同○○を○○ありかつ○○なものにするための○○であるから、いやしくも國民たる者は必ず之を守らなければならぬ。
三、次の言葉をつかつて一つづつ短い文を作りなさい。
くつきりと（
見くびつて（
ひつきやら（
とりどりに（
名に負ふ（
四、次の{でつらねた言葉の中、正しくないと思ふ方を消しなさい。
{成績 成續} {組織 組識} {愉快 偸快} {裁判 栽判} {危險 危瞼}

國語科 作文

文題『過ぎた一年間をふりかへつて見て』
注意 イ、國語體で書きなさい ロ、假名は平假名(ひらかな)を用ひなさい。

算術科 其ノ一

(1) 0,6072×0,049=
(2) 13,3+4,05−11,85−(1,54−0,78)+10,1=
(3) $5\frac{1}{8}-3\frac{7}{12}+2\frac{5}{6}=$
(4) $\frac{2}{3}\times(\frac{5}{8}-\frac{1}{3})\div\frac{5}{36}=$

算術科 其ノ二

(5) 二ツノ比3:7ト4:6ノ複比ヲ書キ其ノ値ヲ求メヨ。
(6) 三角形いろはノいノ角ハろノ角ノ$1\frac{1}{3}$倍デはノ角ハいノ角ノ$1\frac{1}{4}$デアル。い,ろ,は,ノ各ノ角ハ何度何分カ。
(7) 職工ガ或仕事ニカカツテ15日ニ$\frac{3}{4}$ダケシタ。1日ニスル仕事ノ量ハドレダケカ。
(8)甲,乙二ツノ圓ガアル。甲ノ周ガ72糎デ乙ノ周ガ84糎デアルト甲ト乙ノ直徑ノ比ハ何程デアルカ。
(9) 職工九人ガ5日間働イテ賃錢72圓トレルト15人ガ幾日間働イテ賃錢ガ96圓トレルカ。
(10) 金5500圓ヲ日步1錢5厘デ借リレバ30日間ノ利息ハ何程トナルカ

算術科 其ノ三

(1) 235圓+618圓+25圓50錢+356圓52錢+74圓48錢=
(2) 0.2151÷0.47 答ハ小數第二位マデ求メソノ下ハ四捨五入セヨ。
(3) 298−37.4−{52−(109.54−75.6)}+5.12=
(4) 次ノ比ノ値ヲ求メヨ。
(イ) 2Km:500m
(ロ) 2時間:40分

算術科 其ノ四

(5) 甲ハ27圓乙ハ15圓持ツテヰル。今甲ガ乙ニ何程與ヘルト甲ノ所持金ガ乙ノ所持金ノ$1\frac{1}{3}$倍トナルカ。
(6)茶270Kgヲ648圓デ仕入レコレヲ賣ツテ2割5分ノ利ヲ得ヨウト思フ1Kgノ賣價ヲ幾ラニスレバヨイカ。
(7) 或町ノ人口ハ10年前ニハ6300人デソノ後10年間ニ18%增加シタトイフ今ノ人口ハイクラカ
(8) 甲乙二ツノ鐵ノ球ガアツテ直徑ノ比ガ5:3デ甲ノ重サガ2,5Kgデアルト乙ノ重サハ何程デアルカ。
(9) 商人ガ同ジ品三個ヲ買入レ其ノ二ツハ一割ツツ儲ケ他ハ2割7分損シテ賣ツテ差引3圓22錢損シタ此ノ品一個ノ買價ハ幾ハラカ。
(10) 或株券額面50圓ノモノヲ80圓デ買入レ年一割2分ノ配當ヲ受ケルト利廻リハ年何程カ

向上女子實業學校

(國語の問題 第一日)

(一) 左の全文を解釋しなさい。
(イ) 君が代は千代に八千代にされ石の巖となりて苔のむすまで
(ロ) 希望と幸福に滿ちた朝
實に樂しい世界の目覺めよ
遠いものも近いものも
見渡す限り優美に微妙に
夕陽の光を受けて靜かに
目ざめる
(二) 次の文の片假名の所を漢字に直しなさい。
彼ガキダイ(　)のテンサイ(　)はこゝにもキカン(　)なくハツキ(　)せられて、ちやくちやくセイコウ(　)のキキ(　)にスス(　)みし、炭素線のケンキウ(　)にイタ(　)りてはモツト(　)もクシン(　)したる所なり
(三) 左の語の右側によみかなをつけなさい。
微妙。對峙。茅葺。藹然。刺戟 逗留。時く。
(四) 左の語を用ひて短文を作りなさい。
(イ) 愛らしい
(ロ) 凡そ
(ハ) 從來
(ニ) 心ゆくばかり
(ホ) 遂に

國語の問題 (第二日)

作文
題『私の家庭』(六〇分間)
(注意) 平假名又は片假名にて書きなさい。文體は隨意。

算術 (第一日)

(1) 次の金錢出納表を淸算しなさい。

月日	收入	支出	差引殘高
5 1	165、00	45、00	
同3	57 00		
同4			
同5	97、02	104、31	
同6		62 57	

(2) (イ)大小二數あり。其の和は100で其の差は30である。此の二數各各何程か
(ロ)次の式を計算しなさい。
(A) 123、17÷5+3、4×2、7−1、06=
(B) 128−{135−(24+3、5×8)}=
(3) 圓の半徑を直徑をd(=22)円周率をパイ π(3、141592…)で表はせばその面積は2 2×π=)2×3、1415、92……又はd 2×$\frac{\pi}{4}$=d 2×0、785398……である。直徑15mの圓の面積を求めなさい。
(4) 或る學校で39人の生徒が順番に毎日3人宛當番となる。或る年の9月一日(土)に當番に當つた人が次に再び土曜日に當番となるのは何月何日ですか。但し日曜はみます。

算術 (第二日)

(1) 次の各式を計算しなさい。
(1) $\left(\frac{1}{2}+\frac{1}{3}\right)\times\frac{1}{4}+\frac{1}{5}$
(2) $\dfrac{7\frac{1}{3}+1\frac{1}{2}\times\frac{7}{12}}{\left(63\frac{1}{4}-58\frac{1}{6}\right)\div13\frac{1}{6}}$
(2) 1kg 23錢のを20kg 0kgと1kg18錢の米30kgとを混合すれば1kg幾錢の米を得ますか。
(3) (イ)利息に關する用語を步合で表はしなさい。

利息算	步合算
元金	
利率	
利息	
元利合計	

(ロ) 年利5分4厘で3年間金を貸し利息19、44圓を得たといふ元金は何程であつたか。
(3) 金1440圓を年利率7分5厘で貸し、元利合計1710圓を得るには幾年間かかるか。

大邱醫學專門學校

國語及漢文 (其一)

一、次の文を解釋せよ。
名を聞くよりやがて面影は推測らるゝ心地するを、見る時は、又て思ひつるききの顏したる人こそなけれ。昔物語を聞きても このでこの人の家の其處ほどにてぞありけんと覺え、人も今見る人の中に思ひよそへらるゝは誰もかく覺ゆるにや。又らかなるをりぞ、ただ今人のいふ事も目に見ゆるものも、我が心のうちも、かゝることの何時ぞやありかと覺えて、いつとは思ひ出でねども、きさしくありし心地のするは、我ばかりかく思ふにや。
(解釋)
二、次の語句を解釋せよ。
(イ) 知らぬ間に潛在意識が働いた(
(ロ) 事件は迷宮に入つてしまつた(
(ハ) 彼は、妥當な處置をとつた(
(ニ) 君の言ふ事は、時代錯誤だ(
(ホ) 袖振り合ふも他生の緣(
(ヘ) 一事が萬事(
(ト) 匙を投げる(
(チ) 生字引(

國語及漢文 (其二)

三、次の各語に相對する語をあげよ。
例 右手＝左手
(イ)抽象的＝ (ロ)主觀的＝
(ハ)歸納的＝ (ニ)批判的＝
(ホ)普遍的＝ (ヘ)進取的＝
(ト)絕對的＝ (チ)自然的＝
四、次の傍線の語を漢字に直せ。
(イ) ケイケン(　)なるタイド(　)
(ロ) ミカン(　)とリンゴ(　)
(ハ) 學問のザウケイ(　)が深い
(ニ) ジンタイカイボウ(　)
(ホ) ムジユンドウチヤク(　)
(ヘ) ケツエキジユンクワン(　)
(ト) センキヨシユクセイ(　)
(チ) イウビンカハセ(　)
五、次の文に句讀點、返點、送假名を施し、且大意をのべよ。
顏公之學問文章往往雜於神仙浮屠之說不皆合於理及其審然自立能至於此者益天性然也故公之能處其死不足以觀公之大何則及至於勢窮義有不得不死雖中人可勉焉況公之自信也歟惟歷忤大奸顚跌撼頓至於七八而終始不以死生禍福爲秋毫顧慮非抵於道者不能如此此足以觀公之大也
(大意)

數學(其一)

(1) 三角形ABCノ邊AB, ACヲ底邊トシ其外側ニ於テ直角二等邊三角形ABD, ACEヲ作リBCノ中點FヨリDEへ垂線ヲ下シ其足ヲPトスレバ EP=DP=FP。
(2) 圓Oノ直徑ヲA, BトシAOヲ過ギル第二ノ圓ガ圓Oノ圓周ト他ノ點Cニ於テ交ハラバ半徑OAハBCト第二ノ圓ノ半徑OPトノ比例中項ナル事ヲ證セヨ。

數學(其二)

(3) 半徑aナル圓ニ内接シ且ツ互ニ外接シ合フ三ツノ等圓ヲ畫ク時，コノ三等圓間ニ挾マレタル部分ノ面積ヲ求メヨ。
(4) $\left.\begin{array}{l} y-yz+2z=0 \\ 2z-zx-3x=0 \\ 3x-xy-4y=0 \end{array}\right\}$ ヲ解ケ。

數學(其三)

(5) 2錢切手, 3錢切手, 10錢切手合セテ20枚買ヒテ1圓支拂ヒタリ。各切手ノ枚數如何。
(6) $\frac{1}{1\cdot3}+\frac{1}{3\cdot5}+\frac{1}{5\cdot7}+\frac{1}{7\cdot9}+$……n項迄求メヨ。

物理

(1) 溫度ニ就テ述ベヨ。
(2) 蓄電器ニ就テ記セ。

化學

(1) アムモニアノ製法·性質·用途ヲ述ベヨ。
(2) A· 溶液ノ濃度ノ表ハシ方ノ主ナルモノヲ舉ゲテ說明セヨ
B· 次ノ術語ヲ簡單ニ說明セヨ
a)·[illegible]
b)異性體

英語

(1) As no man fording a swift stream can dip his foo twice into the same water, so no man can, with exactness, affirm of anything in the sensible world that it is.
(2) The difference of natural talents in different men is, in reality, much less than we are 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st dissimilar characters, between a philosopher and a common street porter, for example, seems to arise not so much from nature, as from habit, custom, and education.
(3) Travel is an excellent thing for people who like reading history, for somehow, if you visit the scenes of great events, you find yourself taking a keener interest in them, as if people you knew had taken part in them.
(4) I am no botanist, but I have long found pleasure in herb-gathering. I love to come upon a plant which is unknown to me, to identify it with the help of my book, to greet it by name when next it shines beside me path.

英語

1 二三日前のある新聞で來月早早歐洲に御出發になることを知りました。
2 (イ) 春が來た。
(ロ) 鉛筆を二ダース下さい。
(ハ) 君か僕かが間違つてゐる
(ニ) 兩親ともまだ生きてゐます。

私立延禧專門學校

國語

(一) 左ノ文章中傍線ヲ施セル部分ヲ普通語ニ解釋セヨ
さても多くの年月を經て、世の移り變る有樣を考ふるに (1) 盛衰榮枯互にゆきかふをば(2)夢といやはん現とやいはん。きことに『富貴は浮か…〔…〕…(3)…鶴の如し。』といへるに (4)何か違ふことあるべき。中にたゞわが聖人の立てたきへを三綱五常の道のみ (5)天地と並び傳へ、古今のへだてなく、これはかりは變ることあるべからず人と一て仰ぎよぶべきは (6)この道ぞかし。
(二)左ノ語句ヲ答案紙ニ靑キ、右側ニ讀ミ假名ヲ附シ其ツ下ニ解釋ヲ記セ。
(イ) [illegible]。
(ロ) [illegible]。
(ハ) 籠絡す。
(ニ) [illegible]。
(ホ) 切磋琢磨。
(三) 作文題「中等學校時代の回顧」(四百字以内ニテ文體隨意トス)

朝鮮語 文科에限함

一、左記單語를解釋하라。
1、끼끗하다 2、불비다 3、겨레 4、韻致 5、先此 6、서두르다(서들다)7、시누의 8、수라(水剌) 9、정까 10、盛墨
二、左記俗談을解釋하라。
1、살강밑에 숫가락 어덧다
2、갓바치 내일 모레。
3、立春을 거꾸로 붓쳣다。
4、벌어대련 체 하지 말고 진솔로잇거라。
5、등잔밑이 어둡다。
三、글짓기(題一題一枝)(될수 잇는대로 마춤법을바로하라。) 成功의 要訣을論함。) 以上

漢文

一、句讀。譯解
士之特立獨行適於義而已不顧人之是非皆豪傑之士信道篤而自知明者也一家非之力行而不惑者寡矣至於一國一州非之力行而不惑者蓋天下一人而已若至於擧世非之力行不惑者則千百年乃一人而已耳
一、定省
二、友愛
三、王大夫人
四、岳丈
五、侍生
三、朝鮮文漢譯
달은밝고 바람은맑다 얼는곱고 몸은곱다。우는것이피고라냐 므른것이버들이냐。닥금은물다 금비덩더큰게업다。정성이이르는데는 쇠물도뚜를수잇다。석지아니하는것은입이오입서지지아니하는것은뜻이다。 以上

• 歷史 國史ノ部(上同)

(一) 奈良時代と平安時代の文化の特徵を述べよ。
(二) 左の事項に就きて述べよ。
(イ) 中尊寺 (ロ) 蒙古襲 (ハ) 神皇正統記 (ニ) 悲田院 (ホ) 寬政異學 (ヘ) 下關條約

歷史 西洋史ノ部(上同)

(一) ロカルノLocarno)(條約ヲ說明セヨ。
(二) 第十九世紀以後英國ノ亞弗利加經略ヲ敍述セヨ。
(三) ケーザルJulius caesar)ノ功業ヲ敍述セヨ。
(四) 左記各項ヲ說明セヨ。
一、オリンピアの大祭。(Olympic Games)
二、穀物條例(Corn Law)
三、印紙條例(Stamp Act)
四、人道主義(Humanism)
五、…ッシユ(Foch)
…西洋史ノ部…べシ。

南浦府民의 生命泉 水源池또涸渇에直面
今月內로適當한雨量업스면 飮料水飢饉騷動難免

【鎭南浦】 남포부민의 생명선인 수원지의 물이고갈되어 일시급수시간제를 실시하여 한바탕물난리로 소동하든 진남포는 해빙기(解氷期)가되면서약간한물을기로 얼마동안 물난리도 해소되엿드니 이즈음또다시 수원지의물이 점점감소되어 얼마가지 못하여 물난리를 다시맛나게될 것으로 부민은 가슴을조리고잇다 제이수원지라는것은 저수지가업시 흐르는물을 사용하는관계로 조금만 비가오지 안흐면 곳감수되여 버리고 제이수원지의 저수량이 지난일일 현재로 보면 이만이천구백오십삼돈밧게 남지안흔 현상임으로 사월중으로 상당한비가 나리기전에는 또물난리는 면치못할 형세라고하여 일반이 매우걱정이라고한다

釜山放送局의 放送時間改正

【釜山】 부산방송국에서는 사월일일부터 방송시간을 개정하엿는데 종래의아침방송시간이일곱시든것을 삼십분더일즉이 여섯시삼십분부터 방송을 개시하고 또종래에 방송치안헛든 일요일에도 오전구시십오분부터 열한시사십분까지 긔상통보(氣象通報)를 중계하기로되엿스며 오후네시의 뉴-쓰도 일본내지와가티 방송키로 되엿는데 전체의 개정시간표는 다음과갓다

▲午前六、三〇 新興講座其他(十三日부터開講) ▲同七、〇〇 아츰體操 ▲同七、二〇 라디오體操 ▲同七、四〇 天氣豫報

▲日曜祭日의午前中放送 ▲九一五 氣象通報 ▲九、三〇 어린이時間 ▲一〇、〇〇 日曜勤行又는講演其他 ▲一〇、四〇 講演 ▲一一、四〇 海外市況 ▲午後四、〇〇 뉴-쓰

船運勞組員結束 會社側에嚴重抗議
運炭量復舊即時就業等條件 一日總會席上에서決議

【平壤】 긔보=평양부내 선교리(船橋里)평남선운로동조합(平南船運勞組)에서는 삼년평양간(三營-平壤間)에 운탄렬차가 개통된이래 선운로동조합에서 취급하든 석탄칠만톤이 삼만삼천톤으로 격감되여 지금까지에는석탄운반선일백팔십사척을 삼백팔십팔명의 조합원이 운전하여의식주의 안정을어더 오든동 석탄도수의 감소로 현재의 조합원중에서 반수는 부득이 실직의 설음을면키어려운 현상에 직면케되엿고 또한석탄운반량의감소와동시 유월부터 석탄운반을개시할것을 회사측으로부터 통지해왓슴으로 급박한문제를 토의키위하여 선운로동조합에서는 일일오후한시부터 동조합사무소에서긴급총회를 소집토의한결과 조김정호(金貞浩)씨를 전권으로하여 회사당국과 교섭하여 운반석탄량의복구를하든지 그럿치 안흐면 다른코-스」에 취업식혀 줄것과 륙월일일부터 운반을개시한다는것을 취소하고 즉시취업하도록 할것을 강경요구한후 만일 회사측에서 이문제에대한불만한 회답을 할때에는 다른코-스」에종업중인 칠백팔십명전 조합원의 최후적태도에 나올것으로 추측되여 금후가 극히주목된다 또한 현재문제중에잇는 삼년평양간코-스의 조합원백팔십사명은 목하의 식량결핍을 조합에호소하고 좁쌀(粟)다섯말식을 전대(前貸)하여달나고 요구햇슴으로 조합측에서는 위선 사월십일까지 세말식을 전대하여 주워다한다

百餘名職工을收容한 煉瓦工場舍宅全燒
損害額은調査中

【興南支局電話】 이일오전한시반 흥남우편국(興南郵便局)뒤에 잇는 련와공장(煉瓦工場)부속직공사택에서 불이일어나서 삼시간에 그건물전부를 태워바리고가튼 두시에야 겨우불을 잡엇다 원인은 불을담시때여 불ㅅ길이

大金을携帶코 無端出家한者

【平壤】 평양부내 긔림리(箕林里) 박태규(朴泰奎)의장남 영철(永哲)(二〇)은 삼십일일 오전여덟시 유가증권과 현금사천이백오십일원을 휴대하고 무단출가 햇스므로 평양서에 수사원을 제출햇다한다

南村洞에火災 二棟一戶全燒

【元山】 지난삼십일 오후구시경 損害二千圓 原因은失火

平壤師範附屬學校 新學期開校無望
總督府當局無誠意非難

【平壤】 평양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는 평양부에서 구만오천원의 경상비는 총독부가 부담하여 금년부터 신설하기로되엿스나 총독부에서는 의회해산관계로 추가예산을지출치안어 금년은 그대로진행하고 명년부터 개교할 모양이나 평양부에서는 교사를 신속하게되엿슴으로 추가예산으로 경상비를염출하여 부자체가 부속에서 떼여내여 신설하는것이조타는 요구가 놉하 부에서는 목하 총독부당국과 교섭중이다 신학교를압두고 금년중개교하게될지 못하게될지가 의문시되며 목하교섭중의 결과가 극히 주목되는터이나 엇잿든 총독부당국의 무성의함을충분히 증명할수잇서서 비난의소래는 자못놉하잇다

大川市繁榮會 創立大會盛況

【揷橋】 충남례산군고덕면대천시(忠南禮山郡古德面大川市)는 지리상으로보아 경남선삽교역(揷橋驛)으로부터 서산당진(瑞山唐津)등을로에 심장지이며 산업상으로도 유일한 집단지인관계로 지방발전의 요소가 농후하다하야 유지들의활동은 다방면으로 만흔 주력하여왓스나 아즉이러타할 성과를 보지못하게되여일대 유감으로잇든바 이를개척코저 회하는동시에 그실현을 보고자 지난이십일 오후한시부터 유지 강완선(姜完善)박영호(朴英浩)등 제씨의발긔로 대천시번영회(大川市繁榮會)를 조직하엿는바 결의안은 동대회의사정과 시간관계로 오는사월삼일 림시총회에서 토의하기로 결정하고 무사폐회하엿는데 동회에 선임되역원은다음과갓다

會長 姜完善 副會長 李哲周 書記 姜海? 會計 金昇起

在滿少年少女 懸賞童話盛況

【新京】 긔보 신경고념공회당에서는 신경아동교육연구회(兒童敎育研究會)주최 신경청년회 선외삼신문지국의 후원으로 소년 소녀 현상동화신대회(少年少女懸賞童話新大會)가 삼월삼십일오후칠시부터 열이엿는바 연사는 남녀이십여명이며 정각전부터 만원으로 대성황을 일우엇다하며 입상자는아래와갓다

一等 金玉順(女)新公學校 二等 金和錫(男)同上 三等 高英子(女)同上 四等 李順道(女)同上 五等 嚴宜鎬(男)鷺城子學校

大邱府內極貧者 五百餘名또輸送
살길을차저北滿農場으로 方今府當局서人選中

【大邱】 강언더 논둑엔 모다들 쑥이 나오며 꼿님들은 우숨웃고 봉접들이 춤추는 희망의봄!평화의봄!은다시왓것마는 우리의 춘궁은 떠나갈줄 몰아봄철이 올사록 고통과비봉은 더심하여간다 대구에서는 부호의 계급이 전조선에 수위를 차지하고 잇는반면에 극빈자의수만키로도 굴지하는 도시인바 최근부당국에서 그날그날의 생활난에 빠저잇는 극빈자일만칠천오백여명의 구제책에 부심하든결과 수일전에 사십팔가족 이백오십명을 북만주로 이주시키엿는데 근일재차 일백호의 오백여명을 북만주로 이주시키고저 방금 인원을 전형중이라한다.

紳士賭博事件 無罪言渡
大邱覆審에서

【大邱】 상주신사도박(尙州紳士賭博)사건에관한 복심공판은 삼십일일 오후세시반부터 대구복심법원 제삼호법정에서 송전(松前)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엿는데송본(松本)재판장으로부터 일심과가티 박종호(朴鍾護)외 피고전부에게 무죄판결이 잇섯다는데 검사는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할 의향이 십상팔구라하야 일반은 그추이를 주목한다고한다

教育界功勞者 柳明洙氏銅像
今月十二日에除幕式擧行 —海西教育界大盛事—

【安岳】 황해도 안악군안곡면(安谷面)연리(延?里)에는 교벽한농촌이엇스나 안곡면의 은인 류명래(柳明洙)씨를 마지한관계로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에 명진학교(明進學校)란 초등교육긔관을 설립하고 팔백여명의 영재를 해마다 양성해왓다 이에대한 충동이 안악은물론 대외에까지 전파되여 동교동창회에서 발긔한 류씨긔념 동상건립은 작년초가을에 공사가 완료되여 그제막식을 오는 사월십이일 오전열시 동교운동장에서 거행할것으로 결정되엿는데 당일의 성황은 해서교육계의 일대성사로서 일반은 그대하고잇다한다

平南道內教員 大異動

【平壤】 평안남도에서는 관내각 보통학교의 학급증가 신설고급교장 훈도들의 융퇴등으로 광범위의 교원대이동을 단행하기로되엿는데 융퇴자는 륙칠명이며 곰춘사범 화교졸업생도 백사십명에 달하는터이므로 이번의 이동은 백사오십명에 달할 모양이다

本報裡里支局主催 男女自轉車大會
來廿五六兩日間에

【裡里】 본보이리지국(本報裡里支局)에서는 년중행사(年中行事)인 제이회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第二回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를 오는 이십오륙양일간에 거행하리라는데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日時 四月二十五、六兩日間(雨天順延)
一、場所 裡里公設運動場
一、參加金 每人二圓式
一、申込期間 四月二十日까지本支局에到着되도록
一、申込場所 全北裡里京町七番地朝鮮日報裡里支局으로

但 男子一、二、三流의一着과 女子一、二着의 選手가 地方選手인時는 局統片道三等車賃을 本支局에서 提供함

詳細한規定은 本支局에서發送함

年復年增加하는 過重의賦役、寄附
細窮民生活戰線의大脅威 漆谷郡民의怨聲漲天

【倭館】 경북칠곡군(慶北漆谷郡)내는 거년부터 도로신설급 사리(砂利)、사방(砂防)、도로부지(敷地)학교신설급 증축등의 부역과 혹은긔부금인하여 년년히 증가하는모양인데 특히그중에도 세궁민들과사라리맨들의 불평이창천하여 도처마다 그네들은 당년하부역、긔부를하여 빈약한 재정의 원조를 하여야할것이나 도저히 차등의원조를할 여유가 업스며 그중에도 특히 세궁민들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조들이며 농번한긔(農繁閑期)를막론하고 차등의 부역긔부를할 여유가업슴으로 세금보다 못할바업는 고심을하고잇다고한다

樓氏高女
歷史로三十四年 北朝鮮女校嚆矢
◇……教育元山의彗星

私立中等學校巡禮 (九)

興北唯一의 港都元山은 六萬人口를 擁擁하고 나날이 發展하야간다 이發展하는 元山에 五萬朝鮮人이 살고잇스되 그들은 아직까지도 自己本位의 中學校한個도 갓지못하고잇는 寒心無比한 狀態이다。 그러나 基督教의 宣教稿分에 教育熱이 冷却된 元山에도 朝鮮女性으로하야곰 新文化를 呼吸하고 振擴케하야 世界文明線에 接近케할 動機를 지어준것이 元山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이다。 이 樓高의 存在는 元山의 자랑인同時에 五萬朝鮮人의 唯一한 빗(光)이되고 자랑이되는것이다。 이러케 元山에는 朝鮮人本位의 高普로서는 男女高普를 通하야 이 樓高밧게 업는것이다。

◇

이 樓氏女高普는 只今으로부터 三十四年前인 千九百三年五月二十六日 南監理教 米國人女宣教師카로-루쎌이 元山府臥牛里에 數間草房을 빌려 無依無託한 女兒十一名을 募集하야 食堂費等一切를 주어 漢文、朝鮮語、聖書等을 가르침으로 부터 出發되엿고 其後 十餘萬圓의巨金을 當時米國女宣教部 그루씨·컨닝금女史가 敎會의 讚算이업섯슴에 不拘하고 自己의生命保險을 擔保로 責任지고 支出하야 主關係로 現在의 山祭洞山腹에 二百九十餘建坪의 花崗石 四層高閣을 建立하고 千九百十二年 同校舍로 移轉하게 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當年에는 前記루씨·컨닝금女史의 일홈을 永遠히 記念하기 위하야校名을 루씨컨닝금女學校라 하얏다고한다 그러나 以上은 樓氏女高 誕生前夜의 實錄이고女高로서의 出發은 千九百二十年四月부터 이라고한다 其後千九百二十四年六月二十六日 新敎育令에 依한 女子高等普通學校로 昇格되여 昨年六月二十六日에 創設三十一週年과 昇格十週年의 記念式까지 擧行하고 現今에 이르럿다고한다。

◇

이러케 樓氏女高普는 三十四年前이란 朝鮮사람이 아주 曚昧하든 時代에 學費를주어가며 女子를 敎育한 關北嚆矢의 女學校로 昇格되기까지에 千餘의 卒業生을 내엿고 昇格後 昨年까지에 三百十九名의 中學卒業生을 世上에 내어보냇스며 今年에는 四十九名의 秀才를 내여보내게 되엿고 現在籍生은 三百四名이라고한다 그리고 今年度에는 一學年에 約百名을 三學年에 若干名을 入學시켜 二學級을 增設하야 入學級으로할 方針이라고한다

◇

同校는 山紫氣淸한 山祭洞山腹에 位置하야 元山市街를 一眸에俯瞰하고 元山朝鮮人의 生活根據인 漁港에 連接되 日本海의 青波를 眺望하며 마음것 뛰놀며 修業할수잇는 理想的修養處이다 이景概秀麗한位置와 한게 學校設備의 完全과 文化的施設을 다한 九十名收容의 寄宿舍는同校의자랑이라고한다 只今 同校는 每年約三萬圓의 經費를 所要하는데 其中一萬五千圓은 南監理敎宣教部로부터補助로 밧고 殘餘는 授業料 其他收入으로 充當하야가는터이라고하다 이러케 宣教部로부터 보내는 補助로서 維持되나 다른 업는處地인 樓高로서는 其補助가 오래繼續될것을 밋고잇슬수 업는지라 이에 同校當局者들은 向校를 萬年不動의 經濟地盤에 올려노아 將來할 經營難을 克服하고 同校의盛運을 保障코저 千九百三十四年부터 每年一萬五千圓式을 同校後援會員과 職員、其他一般有志의 寄附에 依하야 積立하여 가다는데 이러케 向後十個年間에 十五萬圓을 積立하여 財團法人을 造成하기로되엿다고 한다。

이러케 經濟難에 逢着할 念慮가 解消된 同校는 每年百餘名을 入學시켜 今後數만혼女子를 敎育하여가게되엿는데 現在同校先生들을列記하면다음과갓다

校長—車善孆、副校長—梁在順 敎員田義均、金鎔穰、李瑗淳、金健雨、中村正義、洪淑永、池愛蓮、徐敬男、柳會韶、黃相順、姜元祚、鳴託、張龍俊、姜順女

◇寫眞…同校全景과校長 車善民

(元山支局 一記者)

中等校合格者

宣川實聖女校

承鍾盤 桂成玉 吳周泰 羅順福 金亨國 金相如 金英淑 桂龍順 鄭寶珮 白信玉 張德福 朴仁淑 李一娘 金俊植 梁明玉 李寶富 金寅慶 賴炳熙 柳春華 裵秀玉 趙元淑 金眞安 安英信 安錫烈 金惠卿 禹貞烈 羅泰順 李允憲 金成潤 羅順浩 金京淑 盧長春 姜敬愛 金道英 崔秉珠 李永愛 洪龍妹 車愛珠 朴殷弘 桂炳日 崔興基 張慶玉 李正錫 徐秋錫 方鳳寶 崔福女 李珙淑 李淑女 李信福 李在福 張英子 廉順根 桂鳳信 李永寶 金禮淑 李昌俊 韓春淑 丁汝蓮 尹炳善 崔學善 李環愛 方禮煥 金官順 趙淑淵

李衛玉 李貞玉 丁琭杓 鄭仁玉 李根孝 李德姬 金禮一 徐貞實 金明環 金桂鎭 許淳聖 金夢姬 李鍾仁 朴基俊 吳寶殷 崔東煥 許英子 趙英淑 鄭龍信 金炳澈 金元柔 金亨淑 李德順 車得雲 金永洙 金貞淑 白金錫 孔善禮 車敏熙 張熙玉 李慶實 金信洙 張順玉 崔公 車敏順 鮮于惠 善

載寧明新學校

姜永郁 吳世熙 金東云 金麗星 安道浩 李益寬 李良燮 康渊榮 李光鉉 柳鳳鶴 崔喆俊 郭永淳 李周東 李貞殷 安昌勳 兪信玉 金弘備 金世華 金永守 鄭寅晞 金俊植 金炯杜 韓俊均 奇元亨 李泰俊 金成燦 廉行敏 吳明洙 金約懿 趙義澤 金錫基 孔達彬 池賢植 李燦鎬 金東河 朴義用 金鍾球 李興龍 金一善 具大鎬 金燦燮 崔信浩 金敏洙 林季晟 韓慶源 朴泰洙 裵正浩 金鋼玉 金用振 裵仁煥 崔鳳一 金善濟 李行成 張華永 李相根 崔京坤 桂文善 姜潤植 朴仁俊 李培 梁旺模 金在河 白日坤 李鳳梧 金根履 金禎履 朴周鉉 宋秉燮 白 宣 宋桃昌 金德成 韓永根 金炯紳 金文根 金貞範 姜賢求 孫述祚 李海宗 李永纘 吳成春 李順昌 趙基俊 林鍾國 金昌淳 金汝杜 李義燮 韓宗述 李俊熙 吳基赫 金炯任 鄭處福 朴昌海 金成根 林淳欽 康泰洙 朴宗烈 金泳天 李鎭煥 金順朔 金順河 吳永燮 金尙墉 河光潤 表宗浩 金周鉉 李東輝 丁仁亨 金昌瀞 金知哲 趙德仁 康能洙 金宗鎭 咸淳萬 崔鳳一 金根周 梁鳳侑 金英哲 李順萬 林基哲

女子部

金龍順 趙永愛 宋泰俊 玄濟根 李君子 柳順德 李蓮泰 金寶植 張龍淑 宋仁淑 金炳珠 閔德基 洪鋼媛 金英娛 朴善愛 柳貞姬 金貞淑 崔益道 柳仁在 朴姓鎬 李日好 石仁洙 林德實 金春植 崔貞福 吳慶淑 張蓮玉 金禮性 金良順 崔善女 張 玉 尹貞義 魯東姻 崔貞淑 金秉坤 姜聖德 金善妃 金成女 金文姸 李仙妣 李聖實 金秀玉 吳七六 孫娘姬 金昌仙 咸玉南 安慶嬉 李寶淑 表珍鉉 康完榮 任大花 金聖姬 洪哈奎 金龍女

北靑職業學校

建築科

李枀先 朱碩立 全泰屹 金基龍

金溢澤 金秉林 金周善 劉道烈 李昌根 趙鎔海 李台龍 朴時德

家具科

徐光河 李和洙 李炳石 李文燮 金寅化 裵炳綱 金東集 文準燮 金吉浩 金庚學 趙庚潤 康鳳辰 金進、 李奎烈 金鉉謙 崔秉洛 元主卿 金亨植

金工科

金寬淳 賀東聞 尹俊烈 朴俊雄 吳南奎 安錦頓 李錦位 李信鏈 成忠永 金忠敎 李載永 朱壽福 李明洛 馬孝郁 吳龍植 崔禹濟 李亨鍾 趙誠郁 金知學 楊錦文

南原農業專校

高在哲 張得俊 梁秉鎬 鄭夏模 趙正淳 梁判石 金容完 金道鉉 裵馨秀 金東漢 孔定錫 金洛圭 梁濟植 韓萬洙 林鍾安 吳元根 金準燮 崔洪範 李相稷 金昌順 嚴昌龍 張昌錫 高在瀚 姜錫浩 鄭東燮 申永錫 趙燦仁 金永載 權寧奇 趙秉寅 金勝亮 金鍾灝 蘇澈鎬 李斗玉 晋奎浩

龍岩浦水産校

金義鑼 金圭泰 韓龍基 李聖洙 金應燮 韓寅玉 韓世民 李榮樂 車斗亨 李勳世 崔鳳鳴 崔夢鏈 白雲壽 申尙俊 印衡燦 朴英華 李載杰 文元道 文秉赫 張永泰 金用鍵 金成鼎 白伊錫 白寶敎 桂仁秀 以上

大邱信明女校

尹寶台 徐有舜 孫牙只 白文淑 朴壽男 朴炳珠 吳世德 崔台生 洪鳳伊 崔佑珍 金正蘭 裵月隨 崔畢鄉 黃鳳喜 朴壽泰 申甲鍊 鄭五祚 金貴香 李貴永 金貞子 池志淑 鄭玉英 李小熙 鄭月生 李鳳出 車貞洙 徐今祚 安孝淑 申小淑 金小得 金明花 金麗水 安順祚 朴一媛 崔玉粉 崔聖海 李珠明 具任伊 朴聖玉 沈順祚 沈水任 金點珠 金貴蘭 李信榮 林達春 朴鳳鸞 金永洙 金蘭熙 李永姬 李奉順 鄭慶道 許 紐 嚴慶姬 尹蓮香 (以上五十四名)

永生高普校

金弘哲 尹得基 韓承奎 李承浦 趙永範 趙誠鎬 魏根之 崔英根 金洛鳳 金炳善 羅始允 韓溥寬 李正基 朴孝陽 金漾楷 金鶴元 韓寬淑 高斗星 金亨男 文容秀 金仁根 崔衡極 金壽經 崔仁喆 李燦鎬 姜虎鉍 金學魯 洪鋼沐 金和淳 金相墉 張昌燁 李忠炅 徐東勳 李一孫 朴東善 裵永鐸 金泳龍 金一俊 韓炳周 朴邁會 金壯淵 李晟杓 韓瑞鳳 韓在殷 朱寶淳 朴鳳覺 金秉毅 朴基高 金朗奎 任綱宰 金東濟 崔庚山 金東星 安錫基 金丙淵 朱武鎬 邊永燮 韓啓弘 李海一 劉忠吉 徐泰河 金瓚鈸 金秉雄 金稚植 朴玉錫 李天洙 李路可 魏在華 魏在晟 崔熙天 韓 孝 朴長鎰 申鉉璧 柳吉馨 金洪模 崔昇鎬 金相基 田壬秀 元時俊 張寅鎬 金仁奎 文良逸 朱秀英 高俊均 崔洙楨 李炳式 權承洙 李萬鎬 洪性濟 金寶燁 崔東俊 金孝範 金基渠 趙庸洽 金英哲 金正寬 楊承浩 李廷萬 趙勝曄 金忠欽 李春杓 呂宗錫 李東一 李杞浩 李鍾世 朴利稷 金益顯 全以泰 盧昌實 趙元衡 金起泰 河昌燮 金丙浩

地方人事

▲矢野勝次氏(鏡城實修學校長)榮轉人事次本社義州支局來訪

▲趙敢錫氏(呼蘭縣岐山病院長)本報北滿支局來訪

▲播繆氏(安東縣朝鮮人民會副會長)新任人事次本報安東縣支局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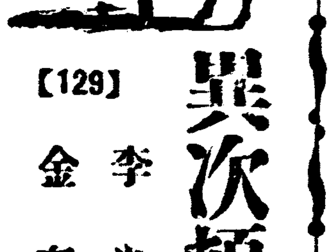
密陽

全朝鮮名唱大會

▲時日 四月十七、八、九、三日間
▲場所 密陽藝妓券番演藝場
◇主催 密陽藝妓券番
◇後援 朝鮮日報社密陽支局

異次頓의死 【129】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공주는 북바처오르는 슬픔을 억제하느라고 애를 쓰더니 가까수로 입을 열어

「지금 이차돈서방님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을 떠나서 가신다고」

하고 또 목이 메인다

「가시다니?」

하고 달님과 다른 두 사람이 일제히 눈을 크게 뜬다

「응 이 세상을 떠나서 악인이 안 사는 다른세상으로 가신다고」

「그게무슨말슴이오리까」

하고 달님의 눈에도 눈물이 어린다

달님은 어제 공주에게 불려서 이차돈이 공주부마가 되게 되엿다는것과 또 태자가 되여서 장차임금의 자리에오르기로 되엿다는 말을듯고 별님과 함께 밤을 새어서 장을 일우지 못하다가 지금 이 말을 듯고는 어찌 될 영문을 알지못하나 이차돈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과 공주의 우는 양으로 보아 이차돈이 죽게 된것을 짐작하고도 슬픔과 절망이 가슴에 끌어오름을 누를수가 업섯다。 그리고 만일 이차돈이 죽는다면 저도 따라죽으리라고 마음에 생각하엿다。

버들에기도 달님과 가튼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고 별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씻섯다。

「모도 이몸때문이오」

하고 공주가 이차돈의 안부 모양을 바라보며 한탄하엿다。

「모도 이몸때문에 이차돈서방님이 고구려에 가게 되고 모도 이몸때문에 이차돈서방님이 선마로이손의 미움을 밧게 되고。 이제 만일 이차돈서방님이 죽으면 그것이 모도 이몸 때문인데。 아아, 이몸이 웨 먼저 아니 죽어서, 이몸이 웨그리도 이차돈서방님을 잇지를 못하여서。 아아 이 일을 어찌하면 조흔가。 이제라도 차라리 이몸이 먼저 죽어버릴까。 아아 깃브던 꿈도 하로ㅅ밤, 하로ㅅ밤도 다 못 가서 이 슬픔。 참으로 미들수 업는건 사람의 일。」

「공주마마」

하고 달님이 공주의 압해 절하고 눈물을 씻스며, 배리는 어성으로,

「공주마마, 이몸이야말로 큰죄인, 이몸 곳 아니려면 공주마마의 슬픔도 업스시고 이차돈서방님께 이러한 일도 아니생길것을, 모도 이몸일래, 아마 공주마마 모도 이몸일래, 그래도 그래도 잇처지지아니하는 이마음을 둘 곳이 업서서 고구려 천리ㅅ길을 따라까지 갓건마는 아아 공주마마, 이차돈서방님이 어떠케 무슨 일로 돌아가시오? 이몸이 대신 죽어서 될 일만 가트면 금시에라도 이목숨을끗키라도 하련마는 이차돈서방님이 무슨 죄가 잇스시기로 세상을 떠나시지아니하면 아니되시오?」

하고 공주를 우러러본다。

공주는 가여운드시 달님을바라보시며,

「이몸도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아마 절을 지은죄와 이차돈서방님이 어저께 노상에서 설법을하신 죄인듯, 국법에 불법을 백성에게 말하는자는 죽인다, 하엿는데 아바마마께오서 아직 그법을 고치시지 아니하시와서, 국법을 고치라면 여섯마을 늙은이들이다 조타고 하여야만 고친다는데。 그러매로 그것이 죄라고 이차돈서방님을 내어달라고 저 군사들의 저 아우성。 그러치마는 실상인즉 선마로삼촌의 검은 마음, 이차돈서방님을 그냥 두면은 제가 임금의 자리에 오를까십지아니하여서。 그리고 또 이몸이 어저께 이차돈서방님과 혼인한단 말을 들엇기도 일럿더니, 하도 마음에 깃버서 그말을 하엿더니 그중에도 선마로삼촌의 끄나불이 잇서서 아마 그말을 선마로삼촌께 일러바친 모양—」

하는 것을 왕후가 듯고 깜작 놀나며,

「무어? 나인들을 보고 그 말을 하엿서?」

「예, 하도 깃버서」

하고 공주를 바라보신다。

「웨 그런말을 하엿느냐, 궐내에는 말이 금시에 새어나 가는 줄을 알면서, 궐내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선마로이손의 끄나불인줄을 알면서。 아악, 네, 웨, 그런 말을 하엿느냐」

하고 왕후가 미간을 찡기신다

四月一日より四月七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わたしのラバさん 三·〇八 六·〇八 九·〇八
浮草物語 三·三〇 六·三〇 九·三〇
彩色漫畵 正直靴屋 一·五二 四·五二 八·五二
奧樣借用書 二·〇八 五·〇八 八·〇八
●たけなわの春に捧ぐる傑作集●
蒲田特作サランド版
▲わたしのラバさん 小倉繁、小藤田正一
待望の名作 小津安二郎作品
▲浮草物語 坂本武、飯田蝶子
陽春にふさわしき明朗トーキー 五所平之助作品
▲奧樣借用書 飯塚敏子、近衛敏明
彩色マンガ
▲正直靴屋
洋劇專門 浪花館

四月一日부터晝夜二回 東洋劇場直屬劇團 喜劇座公演第二週
우숨으로서여러분압헤막을열고우슴으로서막을닷치는동안참으로이세상은明朗하고깁부섯슬것입니다 수심만흐신분오십시요!새봄이주는愛慾만흐신분오십시요 오ㅣ해동안얼굴에슬움을못펴시는이오십시요
李雲芳作 地下의天國 一幕
어느누가地下에도天國이잇다고미드라오、地上의天國이안입니다地下의天國입니다。
首陽山人作 喜劇 急性戀愛病 二場
아人쫄합니다戀愛病더구나急性은아서라마려라세상에누가그병을알다니!
喜劇座文藝部案 스켓취 戀愛脫線 一景
모보모껄의醜態와脫線을우슴으로꼬집어낸것。
吹月生作 漫唱스켓취 내편네편 一景
◇四月一日부터東劇座仁川公演
◇青春座南鮮巡業中
西大門通 電光3 三三番 東洋劇場

四月三日封切 (六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五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躍春第二週의偉容!
◇RKO라디오超大作映畵
메리암C쿠파ー畢生의大作品
아네스트슈드삭監督
푸레-스토-플스타 主演
도레-!윌손
構想은偉大!規模는壯麗!
內容은切實한
품페이最後의날
果然陽春映畵中超大作興趣滿載할사람과폼페이를一瞬에地下로부터버린阿鼻叫喚의大動亂의全貌가銀幕에再現되다!
◇RKO라디오特作映畵
쑤죽우압산뻐오監督
케니온、에이、죠이스大佐軍士敎導
米國野砲兵第十六聯隊將士總動員出演한
名馬物語
娛樂價値滿點의快作、動物愛護高唱篇!
◇日活超特作映畵
地雷火組 前篇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電光 九五九

四月三日낫부터晝夜四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은晝夜二回
巨彈巨彈映畵의興味!!
朝鮮映畵 京城撮影所 超特作全發聲版
朝鮮의자랑民謠아리랑의愛戀映畵化로끌는靑春男女의사랑의受難史
監督·洪吐無 原作 文藝峰 主演
아리랑고개
古今無比映畵史上에最高最大의純情無比情無盡詩요斷腸哀怨曲이다!現場錄音으로發揮되는明朗한音響
얼키인靑春 哀戀의情調와古代의世界에얼키인怒開!冲天의人氣로發映된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的大名畵 流線型超特急
監督·도미-스·아도긴스 主演 사리푸렌氏
장스스다렌드冒險的痛快한熱愛의結晶이아말로生命이다 世界的記錄을내인流線型特急車로저아셧한에빼진사람들! 大活劇?
◇팍社特作全發聲日本版
大高潮로이트의밤이第一
監督…… 主演……하롤드로이드氏
桃花劇場

經濟解說

"身代米買上"

政府窮餘의 一策

申泰翊

쌀값이 노픈것을 보하고 잇는 이때에 政府가 五十五萬石買上을 決定함에 對하야 조치못한 評判의말을 갓는것은 一理가 잇다 왜 그러냐고하면 政府가 民間으로부터 쌀을 사되리는 境遇는 大體로 쌀값이 低位에 잇슬때에 거의限定되어 잇고 또 그와反對되는 境遇 即 쌀값이 高位에잇슬때에 賣却이 斷行되어 오는때문이다 그러대 지금에잇서는 今年度米穀需給의 不圓滑狀態이 濃厚할뿐만아니라 米價가 最高公定價에 接近되어잇는 노픈값을 不拘하고 政府가 쌀을買上치안흐면 안될理由가 어데 잇는가?

× 이에잇서는 東京電은 다음과가튼 두가지의事情을 報한다 첫재 前米穀年末 即昨年에 民間在米의不圓滑로因하야 米穀統制法施行令 第十四條 但書에 依한 買戾條件의 百萬石 賣却을 하엿든일이 잇다 이와가튼 條件이 잇는때문으로 今年度新穀出廻에 드러서 이미 四十五萬石을 사드렷고 그 남어지 五十五萬石을 亦是사드려야만 될것임으로 結局 新米出廻의 旺盛期가 끗낫다고보는 三月末日을 期限하야 가지고 그 買上을 斷行한것이다 만약 三月을 너머스도록 그 買上에 손을 안대인 境遇에는 法規上 그 條件을 失效케될 憂慮가 잇는때문으로 米價高를 不拘하고 三月末日을 期限한것이라고 한다

둘재 오늘에잇서 政府의持米가 六百十九萬石에 不過하고 그뿐만아니라 그政府持米中 거의大部分을 再昨年產米가 占하고잇는마당 今後米價調節上 昨年產米의 所持가 가장 必要함을 늣기고잇다 그래서 첫재의理由를 압장세워 가지고 그남어지 五十五萬石의 買上을 斷行한것이라고한다

× 이것을 가러켜서 一部에서는 米穀政策의 [illegible]라고 말한다 即 米穀統制法은 米價調節上 한便으로 쌀을 民間에 팔고 또 한便으로는 民間으로부터 사되리는것을 가듬함이 正常的이라는 意味이다 그리고 이買上에 依하야 政府持米中 昨年產米의 [illegible] 압흐로의 米價를 調節함이 容易케될것이라는데 期待를 둔다고한다

그러나 이에對하야는 반듯이 그대로만 볼수업는 事情이 잇슴을 看過할수업다 即 오늘의米穀界事情을 常時的觀念한 認識不足의 感이 업지안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첫재로 日本內地米가 連續的兩年間의凶作으로 從來米過剩에서 在米不足으로 轉換되어 結局非常時的認識을 가저야만될

열이다 三月一日在米四千三百六十餘萬石을가지고 推算하면 民間米二百六十五萬石에 不過하야 今後米穀需給不圓滑의 [illegible] 常時的 [illegible] 그럼으로 [illegible] 가지고 米穀政策 [illegible] 에對한 [illegible] 매우 [illegible] 업게된다

× 그런데 오늘에 政府로서도 買上치안흘수가 업는事勢에이르럿다 現在의所持米가 六百十九萬石을가지고 今後米價를 調節함에는 너무도 그힘이 薄弱한마뜸 될수잇스면 大量의 買上을 하라고할것이나 그동안米出廻旺盛期의 米價高로 그機會를 다지못하고 오죽 買換條件의 買上을 그末期에 겨우 斷行한것이 그의眞相이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치만 이五十五萬

石을 買上하드래도合計가 六百七十四萬石에 끄치므로 今後米價調節力의 薄弱은 依然何等의 變化가 업슬것으로본다 떨어서 오늘의 米穀統制法은 米過剩에 對한對策에 置重한 缺陷의點을 차저낼수가잇다 要컨대 압흐로 注目을끄는點은 需給不圓滑의 [illegible] 가지고 放出을 아지기는 持米側이 [illegible] 期를 압두고 더참지못하고 내파느냐 [illegible] 하야 더 버티느냐고함이 目前에잇서米價의動向을 左右하는作用을 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大勢上으로 보다면 一向米需給不圓滑의 [illegible] 그대로 何等異常이 업시 [illegible] 되고잇는것으로 생각할뿐이다

朝鮮對外貿易 繼續膨脹의 數字

輸出入一千七百四十五萬圓

그러나入超額激增

十二億圓突破의 昨年貿易의뒤를 잇대여 今年度의朝鮮貿易은 依然 貿易額이 膨脹하엿스나 그 基調는매우 惡化되엇다 即今年 第四半期(一月—三月)의 對外貿易을 보면 貿易額은 四七、九三二千圓으로 前年보다 一千三百十八萬二千圓二割九分强의增大이나 輸出의減退가 顯著하야 三月의輸出은 前年보다 二十五萬圓 餘가 減退하고 輸出入別의前年比較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輸出	一五、三一〇	[illegible]
輸入	三二、六二二	一〇、三五二
合計	四七、九三二	一三、一八二
入超	一七、三一二	七、五二三

即 輸出은 겨우二百八十二萬圓의 增加임을不拘하고 輸入은 一千三十五萬圓이 增加되어 이結果 入超는 前年보다 七百五十二萬圓의 膨脹을 보혀 入超增이 [illegible] 膨脹을 보이고잇다

然하다 이것은 輸出의米出減輸入의粟、豆粕、油類、飼料의 輸入의增加가 그原因인데 그輸出의 產地別은다음과 갓다

◇一月以後累計

	三月	同期	比前年
輸出			
朝鮮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產	三三	三三	二〇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日本內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年度豫算不變 增稅額尙今不明

▲…馬場藏相談

【沼津電話電通】馬場藏相은 二日午前九時 東京驛發로 西下하엿는데 그車中에서 當面의財政問題에對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나의稅制整理에 關한생각은 이미 學徒로서 맨든案을 가지고 잇는바 그것이 實際에잇서 어떠케適用될수잇슬가 함은 더생각하야 보라고한다 어떠튼지特別議會까지 그序頭라도 맨들라고하는것임으로 될수잇는대로 各省間에 折衝을 하야 十日閣議에는 決定하라고 생각한다 그뒤決定될追加第二號의 豫算案도 지금에만흔 金額은 안될豫定이나 政府의 低金利政策도 農業金融에對하야 잘施行되고 勸銀이 實行利率을 引下한것은 農工銀行도誘導하야 農業方面에對한 貸付金利를 低下케할것이다 要컨대 農事金融과營業金融은別個로 생각할必要가 잇서나의생각으로는 現在의 勸銀과農工銀行은 將來合倂할것으로 생각한다

고한다 稅制整理의 具體案으로서는 먼저 國稅整理를 定하고 이에隨伴하야 地方稅整理를 整頓함이 順序로 그中心은 各國의先例에 徵하야도 所得稅부터 먼저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稅全體에 亘한것을 一擧에 다함은 勿論 될수업고

財政支出 의 定見이 樹立

되드래도 困難함으로 增稅의 額에對하야도 지금에는 不明하다 이번의特別議會에 提出될豫算에는 너무新政策을 加味하든 어러울것이다 十一年度實行豫算의 編成은 大藏省會議에서 討

鰮油 不定量入札

三圓六十五錢 三井側에落札

鰮油統制改更後 第二次統制의 勞爾인 十一年四月分不定量 魚油共同販賣入札은 再入札後三井物產에 三圓六十五錢으로落札되엇는데 義者의 定量에比較하면 十九錢低인데 定量은 베루베트의 買進으로 高價가 되엇든것이다

滿鐵社債引受

特別融通資金捻出

【東京電話同盟】大藏省預金部에서는 滿鐵의十年度 社債發行豫定額中未了의 四千五百萬圓中一千五百萬圓乃至 二千萬圓을引受키로決定한바 이資金은預金部資金의運用中 特別法令에依하야設立된會社에對한 融通金六千四百萬圓에서 捻出키로되고 [illegible] 金部資金運用委員會를 안거치고 目下引受를 [illegible] 東拓의 社債와 一部 農工債券에도 亦是前記資金의範圍內에서 이에應키로 되엇다고

日滿產業 統制法令 不遠間公布

【新京一日發同盟】日滿兩國產業上의 分野를 確然케하기爲하야日滿經濟를 形態를 一步前進케할 日滿產業統制法은 不遠公布키로되엇는데 同法은 從來滿洲國建設綱要 其他에依하야 漠然히 公表된것을 法文化한것으로그骨子는 다음과갓다

一、國防上重要產業에對하야 現在와가티 一業一社主義를 法的統制下에 事業케할일

一、統制產業以外의 모든것은自由로하고 統制法에規定된 產業은 全部屆出케하고 許可에依하야 이것을統制함

一、現在이미 需要量에比하야生產設備過剩의것은 將來擴張을中止하는同時에 境遇에依하야는 强制的으로 操短을命함

一、幼稚產業이라도 社會政策的見地上 同種企業勃興이 國民經濟를 破壞할念慮가 잇슬境遇 競爭企業의 濫立을禁止

一、國民生活에 特히 密接한關

朝鮮깨 쓰린値上

가론四、五錢程度

日本內地의 石油製造會社에서 原油値上을 理由로 不遠 깨소린値上을 하기로되아 朝鮮에서도 그値上을 準備中인데 이번의値上은가론四、五錢程度가 될모양인데 最悪의境遇에도 五十錢(現在四十六錢五厘)以上으로 引上 改定케될모양이라고한다

京城石油協會

大體成立된狀態

京城石油販賣業者로써 組織計畫中의 京城石油協會는 大體成立되엇는데 將來同協會를 中心으로 朝鮮石油製品의 一手販賣를 取扱케하기로 되엇는데 會員中에는 外油取扱業者도 加盟하고잇슴으로 同協會의 朝鮮石油에 果論이잇서 同協會의 一手販賣는 疑問視케하엿다

株式投資採算点

① 增稅와經濟統制

經濟革新時代의 株式投資採算은將來할增稅와 統制經濟에對한 的確한趨勢를 根據로하야 樹立하여야할것인데 增稅及經濟統制共히 아즉容易히 豫斷할수업고 特히 經濟統制에 至하야는 官民이 모다 具體策커녕 根本經濟에就한 實際的定論定說까지도 업슴으로 前途는 漠然한것이다。 從하야投資採算은 確立하고저해도 確立할수가업는 實情이다。

◇ 이意味에잇서 目下株式市勢는 小康을 呈코는잇섯스나 그實은 明日을 모르는 砂上樓閣的의것이오 漠然한 人氣와浮動的實質關係를 土臺로浮動하는中으로 決코 眞正한 安正 [illegible] 하는者는 別問題로하고 投資를目的으로하는者는

◇ 出動할時期가아니다。 近來 株式投資의 有力한者인 生命保險會社團이 株式의 前途難測으로 四分利公債投資로 轉向하는中인것도 無理가아니다。 一般投資家로서도 暫時傍觀이 得當하겟스며 反戾되기를 기다려서 持株를 賣擊함이 賢明한것갓다。

◇ 新時代의 株式投資採算의 基礎인 增稅乃至經濟統制에 就하야서는 먼저 增稅의程度가 一億六七千萬圓이면 財界는 別無大害이나 財政은 安定되지안코 四億圓으로는 財政이 確立되나 財界는大打擊일것이다。 從하야 新增稅는 國力으로서 可能한限度에 落着될것이아닐가? 그러면 그限度는 얼마이냐? 그것이 富者課稅이나 大衆課稅이나 直接稅本位이나 間接稅本位이냐等 課稅技術에依하야 相異가잇슬것이다

◇ 이번增稅가 增稅와同時에 增是正 國民生活의安定 跛行景氣의修正도 考慮해야겟고도 大衆稅 富者稅併行의 一般的增稅에依하는外에 他途가업슬것이아닌가? 이點에 對하야 大藏省에는 確乎한 成案이업다。 —(계속)—

造船界活氣 各社增資計畫

【東京電話電通】近海運賃의 堅調維持와 荷主의 優秀船要求는 最近海運界를 刺戟함이 多大하야 이結果 新船建造 또는 優秀船買收를 目的으로한 增資가 다음과가티 實現또는 計畫되고잇다

▲栗林商船=資本金二百五十萬圓을 倍額으로 增資하고 六千屯型의 大永丸及 同級船一隻을 購入하는外 三井物產玉造船所에 注文한 六千屯型 타-빈船의 購入費에充當

▲朝鮮郵船=老朽船整理、傭船의 自船化目的으로써 四千屯型타-빈船四隻을 建造키로 되고 現在의資本金三百萬圓(全額拂込)을 一躍하야 一千萬圓을 增資할 內定 四月末京城에 열릴 豫定期株主總會에 附議할豫定 그리고增資七百萬圓中 四百萬圓은 朝鮮殖產銀行其他 朝鮮에서 調達하고 그남어지 三百萬圓은 現在의株主에對하야 一株에 一株를配定할豫定

▲北日本汽船會社=現在日本內地樺太間에 就航하는 傭船五千噸級二隻을 自船化하고 伏木、樺太間線의交通丸、天草丸이 明年中에 解船될것임으로 이것을 補充하며 또 荷主와政府當局으로부터優秀化가 要望되든 敦賀浦鹽線와이베리아丸 北朝鮮敦賀線의 滿洲丸代船建造의 三目的으로 四月十日에 各各未拂込十二萬五千圓을 徵收한뒤 明年初에 二百二十五萬圓增의 五百萬圓으로增資하고 殘餘의 資金은 社債로할려이라고

商銀米貸現在

六百六十萬圓

商銀의 三月末現在 米穀資金融通現在高는 米擔保貸四百六十二萬圓 荷爲替百九十八萬圓 合計六百六十萬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米擔保貸는 三十萬圓의 減少이며 荷爲替三十五萬圓의 增加될것이다

國境郵便交換

朝滿國境의 都市는 鴨綠江及豆滿江을 相距하야 一葦帶水에잇서 郵便物은 鐵道에만依하야 交換되는때문으로 그遞送에 一週日乃至十日以上이 걸렷스나 不遠惠山鎭對長白、中江鎭對臨江、滿浦鎭對輯安의 三個所에서 郵便物을交換키로決定하고 不遠實施키로되니 以上과가튼 不便은 改善케될것이다

額으로 合計는五萬圓이 增加하엿다

朝郵受命航路

朝鮮郵船會社에서는 十一年度航路의受命이되엇슴으로 目下 그配船을準備中인데 從來와 變更될線은 大體 다음과갓다

▲北中線=四月一日以後 營口에寄港

▲上海線=從來平安丸(二、一〇〇噸)一隻으로써 一個年二十航海以上으로되엇든바 新年度부터 釜山丸(二、一〇〇噸)을 一隻增配하야 一個年에二十六航海 以上으로함

▲雄基、東京線=羅津에寄港을開始

▲北鮮新潟線=新京丸을廢止하고 長白山丸(二、三二一噸)을 配船

▲北鮮敦賀線=慶安丸(二、〇九一噸)을 配船

그러고 이結果 裏日本連絡航路의新京丸은 今後姉妹船盛京丸과 한가지로 東京、雄基線에 就航키로決定하엿다

米日爲替暴騰

【뉴욕一日發同盟】今日米日의爲替는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九十九仙으로 七仙高 買二十八弗九十六仙으로 七仙高

▲東京爲替(二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十五 買二十九弗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二日)

對米 賣二十八弗八分七 買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卅日局鐵米發送

	今年	昨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二	二	一〇減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濟界消息

○殖銀長箭支店認可=殖銀에서는 總督府에 江原道長箭支店設置에對하야 認可申請中이더니 認可의指令이 나왓슴으로 目下開設準備中인데 大體 五月一日부터 開業할豫定이라고

○專賣局新規採用者決定=三十日 三十一日兩日에亘하야 考試한 專賣局今年度의 新規採用人員은 應試人員六十餘名中 嚴選한結果事務方面에 七名、技術方面에 九名、計十六名을 採用키로 決定하고 一日附로關係者에게 通知하얏다고

經濟寸鐵

○專用車問題를 好機삼어 非合同業者計算機關인 丸計와 丸그의合倂論 再燃

○合친後 營業機關으로 한다면 第二朝運이 되고말것。

○그러타면 運合當時 메사라조혼일만한 前鑑이 잇음을 이저서는 안된다

○無力한 群少業者를 爲한다는 看板을 집어 치우라 찰아리 朝運에 合치는것이 도라어나 올것

商況(二日)

株式 日產低落 不勢

前場低迷 昨日伸惱不勢인 뒤를이어 今前場도 買氣不振하고 目前一押期待의賣物로 低迷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十錢低인 百二十三圓五十錢 日產十錢低인 六十七圓四十錢 鐘新一圓低인百四十三圓 朝新二十六圓五十錢에 各寄付後拓新十八圓五十錢이 잇섯고 東新百二十二圓八十錢大引이엇다

△東新三三五(寄)三五〇 二二五 [illegible] (引)

後場日產低 後場은依然浮動으로揉合이다가 結局前引에比하야東新同價인 百二十二圓八十錢 日產一圓九十錢暴落인 六十五圓五十錢 大新七十一圓四十錢 鐘新百四十三圓十錢 朝取六十六圓四十錢 朝新二十六圓四十錢에 各大引

期米 穩健裡에 漸騰

前場少高 昨後場 阪地三十一圓八十一錢止와共히 二十九圓六十九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七十九錢인 二丁反落을 報하고 二十九圓六十八錢인 一丁反落으로 場을始한後 阪地稍漸調로 九十錢의 最高로 止場을件하야 七十五錢의 最高로 場을止하엿다

後場續高 後場은 二十九圓七十九錢에 四丁高로 始場後二節七十六錢에 伸惱이엇스나 大阪二圓高報來으로買氣를刺戟하야 六節八十三錢으로올나고八十錢에 止場하다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三〇〇〇▲大同電力新二〇〇〇▲石川島新一六七〇▲川崎造船三七〇〇▲川崎優先四九〇〇▲帝人新一八三〇(取引高一四〇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强弱双方傍觀으로 市中은極히 閑散하고 環境의 不振으로 市勢軟弱을呈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二回四分利 九九八五 ▲佛貨四分利 一九〇六五

强氣의下期觀

上半期中은 揉合市勢이겟스나 期末或은下期初에는 低金利刺戟과 政府放出金으로 지금의不安人氣는 이저버리게되고 지금夢想도못할東新百五、六十圓市勢가잇슬것이라고 下期에 期待를두는强氣가잇다

日產過去低價

株數만키로 第一인 日產은東京 逝日步五錢을付하야 日產생긴後 두번재되는 株不足現象을 注目한다는데 첫번株不足時代는 昭和五年六月井上財政으로 諸株大崩落時日產단十一錢五十錢이라 低價일때에 渡株不足이엇다하야 歷史的株不足이 問題視된다한다

蘇滿國境問題

人氣動搖擴大

抑壓材料의하나인 蘇滿國境問題는 最近蘇聯側의强硬態度로 一層그前途가 憂慮되는터인데 今後如何한結果를招來할지 決코樂觀할수업는바 一方日本側으로서도 積極財政下에 單價의 可能性이 明確한點으로보아 外交的手段에依하야 最悪의境遇를 避케될지? 破局的事態에는至치안는다드래도 蘇聯側의態度가 强硬할수록 人氣的動搖는 擴大될것을미리覺悟하여야겟다

强材는出盡! 拂下는果何時

政府의第三次買上은 米界의惟一한 强材로期待하든바로서 一時는買上中止說이 잇서 反히軟態에傾하야 全혀無關心의商狀을呈하든바인데 去三十一日突然買上을 發表하자 市勢는 各地共히 一段反撥을示하엿다 그러나政治的强材로는 今回買上으로써 一段落을짓고 更히 注目할硬材가업스며 남은것은 弱材뿐이겟다 即政府의

買上市勢一巡

一高後엔伸惱

政府米第三次買上發表로 中限은一擧三十丁의 昻騰先限亦買氣旺盛하야 二十九圓八十錢인 三十丁의 上鞘로 六月限이 誕生되엇스나 此는二月中第二次買上時의 高價인二十九圓八十五錢을上廻하지못하고 俄然伸惱의狀態를 呈할뿐이다 即今回의 買上은政府의 所有米가 六百餘萬石으로 就中新米가 六十萬石에 不過하야 將來淸算市場의 突飛的高價와又는 渡米不足의 爆發을 防止하지못할것을豫期하는關係로突然斷行함에至하게된것이다 그럼으로 今次買上은强材를胚胎한同時에 政治的의一弱材로 보지안흘수도업다 果然米價의前途가마치何如할지는몰을이나 買上市勢도 一巡한觀이업지아니하고 又는目前의 正米事情이 春暖期에接近한關係上 賣急하기도十常八九인時期에 入하엿슴으로 更히더伸張하지는못할것갓다

所有米는 今次買上數量을 加算하야도 六百七十萬石에 不過할 [illegible] 으로 大量拂下를 [illegible] 나그러나 米價의昻騰을 [illegible] 는때는 拂下하고 [illegible] 아닐것이다 그럼으로 [illegible] 農家의 態度가 [illegible] 價의昻騰을 招致하게될지는 [illegible] 으나이로부터 拂下를 [illegible] 안될수업시되엿다 [illegible] 下를斷行하게되는 [illegible] 賣者의立場으로 보아서 [illegible] 를抑制할것도 [illegible]

不透明裡揉合

場面閑散而已

商品界朧勢도 房賣로 一頓挫되고蘇聯의 極東政策積極化 佛財政難과 法貨信用失墜 日中關係複雜 新政策全貌未判明等 內外重壓에 四月市勢는 一日부터頭重伸惱로 嫌氣投의 不勢이오第二期戰準備로서의 不透明한揉合이 거듭되며 確乎한 方針을 樹立하强弱觀이 無理인만큼 場面은 閑散의 度를加할뿐이다

今日財界(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九七〇	一〇高
大阪期米先限	三一〇	一〇高
⑪二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八錢八厘	不變
一斤價三等	八錢六厘	

◆市中金融價

金	一匁賣	一匁賣
錄	十二圓十錢	十二圓三十錢
	十六錢〇厘	十五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一〇低
東新	[illegible]	[illegible]低
日產	[illegible]	[illegible]低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低
고무現	[illegible]	不變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正米側 地場軟派

▲買方=朝鮮側 地場某搬地場强氣側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朝米取株 光田 康益商會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市場六感

株 昨日東新은 五圓高로 머리를 들다가 二圓高로 맛그러진채 今前場은 二、三圓高의低迷▲場은寂寂寥寥 大閑散揉合에入한모양▲增稅 經濟統制의 根本的 不安未解消인데다가 蘇聯態度 强硬으로 市勢를더욱抑壓▲百十九圓臺大底를主唱하는 者잇스나 이러다가는嫌氣助長의 賣押이 不絕할形勢▲拂込徵收를 떠들어買하던鐘新도 百四十二、三圓으로反落▲東新은 大底未濟라면大底가나와야겟고 이미大底入이래도上下二十圓幅의 揉合으로보아둠이無妨

米 今回買上發表를接하고 當地는 買氣너머나旺盛하야 阪地보다又一層頑强▲阪地二十一丁高에 當地는三十丁이나 中限이易騰하고 先限은阪地十七丁上鞘에當地는 三十丁이나上鞘發會▲그와가티當地는先驅的行動을하기때문에 其後阪地는繼續頑强함에도 當地는意外伸惱▲何如間政治的强材는 出盡하얏다 今後拂下의强材는 期待할수잇슬지언정 更히買上을實施할이라고는 期待키難한걸 그런데 農家의態度는 果然어떠할모양인가 繼續頑强하다면 米價低落도 期待할수업지마는 農家의그自身도 恐怖心은 업지안흘것이다▲어데까지 持久的方針을 取하려고는하나 春販期의 變質이念慮이오 實急을하자하니 實勢威壓의 瓦落이亦憂慮▲要하면平均的으로 賣出하는것을 唯一한方針으로할모양이나 何如間集散地의米穀은 刻一刻으로增加될것만은 事實▲그럼으로 此에서昻騰한다할지라도 그다지 可驚할高價는 업슬이라云云 果如何?

各地正米

仁川一息 產地實需譜 人氣濃厚이오 取引이 圓滑히進捗되지안허 一息 商狀을呈한 丸仁

京城不變 期米採算의物色買가 散見되나 不變이오 市況小康인 丸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釜山保合 市場賣物 二千五百叭天候不良으로 散見되는程度에 不過하고 角ク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四錢

大邱不變 定期好調로 採算側의 買氣가潜在하나 買物性이乏하고 保合인 角ク三等二十八圓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强含 買上發表에 刺戟되어 日本內地로부터의 入注文이頻繁하고 市況이多少明朗化하나 產地의 高價期待로 比較的取引이不進하야 菱ク三等二十九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丁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木浦同調 期米의頑强을 보고도 日本內地 買付는 갈이와서市況이 活氣가乏하고 氣配伸惱인 丸木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呈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寧邊產業組合을經由多量買入하옵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朝取短期◆ 二日

	前寄	前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賣定代引日步◆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二日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金融◆ 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綿布◆ ◆鋼油冲價◆ ◆鋼搾粕冲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商品◆ 二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單位錢) ◆日本各地期米◆ [illegible]